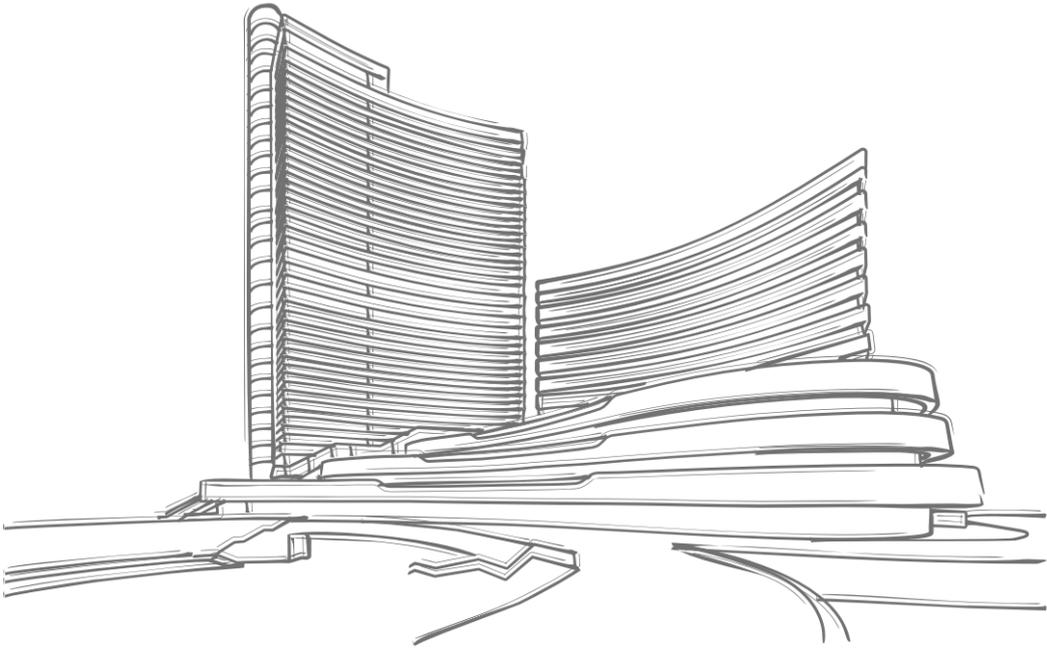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1106-01



새천년 경기, 광고시대를 열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Vol. 1  
Story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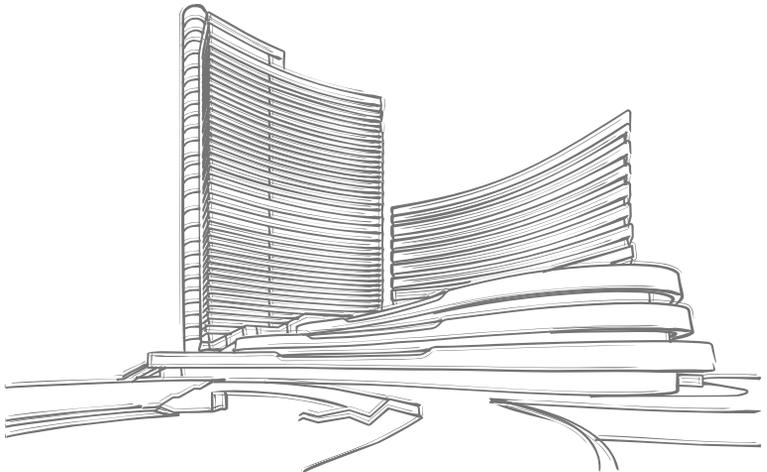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Vol. 1 Story book





새천년 경기, 광고시대를 열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Vol. 1  
**Story book**



# 발간사

경기도지사

“ 새로운 천 년, 더 넓은 세상을 내다보며 ”

경기도가 광고신도시에 신청사를 건립해  
더 나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만들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 팔달산으로 청사를 옮긴 1967년 이후부터 경기도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지금은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책임과 역할 그리고 위상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신청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7년 신청사가 착공되기까지 약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늘어난 행정수요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일찍부터 있었지만, 국가적 경제 위기나 자원 조달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청사 건립에 걸린 오랜 시간은 더 나은 신청사를 만들 수 있는 굳건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신청사는 대지면적 26,184㎡, 연면적 166,337㎡ 규모로 광고신도시 중심부의 경기융합타운에 자리 잡았습니다. 신청사는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완벽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건물로 도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사 외 경기도서관,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이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의 정치, 행정, 업무, 주거, 상업, 문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는 광고 신청사에서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지난 천 년 역사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담당하는 새 천 년을 훌륭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신청사 건립을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을 위해 애써주신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경기도지사 김 동 연



# 축사

경기도의회 의장

## “ 새로운 지방자치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 ”

경기도 신청사 건립과 그 속에 간직된 이야기를 담은 책자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신청사가 건립되기까지 오랜 역사를 정리한 소중한 기록을 책자로 발간해 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기도청의 역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애초 수원에 있었던 청사는 일제 강점기에 한성부가 경성부로 격하되면서 서울 종로로 옮겼습니다. 해방되고 서울이 다시 특별시로 승격됐지만 이후 한동안은 서울에 남았습니다. 이때는 경기도의회와 함께였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의정이 중단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경기도청이 다시 수원으로 온 것은 1967년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와 함께 1991년 경기도의회가 부활하고 1993년 의회가 효원으로 의사당을 마련해 옮기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다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효원으로 청사 개청 당시 310여만 명이었던 경기도의 인구는 현재 1,390여만 명으로 4배가 넘게 늘었고 그만큼 행정수요와 공무원의 수도 급증했습니다. 광고 신청사는 그런 시대적 요구와 도민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결정되고 개청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굵이굵이 그 길을 지나 결국은 이 자리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광고 신청사에서 자치분권 2.0이라는 새 전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책자의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새로운 청사에서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방이 국가의 중심인 자치분권의 시대, 도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서는 주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새천년 경기,  
광고시대를 열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Story book



# Contents

경기도지사 발간사  
경기도의회 의장 축사

## PART I

새천년 경기, 광고 시대를 열며

011 사진으로 보는 경기도 신청사

## PART II

'사람' 중심 도민 행복의 터전,  
경기융합타운과 신청사

- 134 1. 경기융합타운
- 146 2.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 160 3. 경기융합타운 및 도 신청사 추진경위

## PART III

경기도 신청사 건립,  
그 치열한 고뇌의 여정

- 164 1. 논의의 시작, 도 종합청사 건립계획
- 168 2. 청사 이전 결정
- 176 3. 도 신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사업

## PART IV

경기도 청사를 통해 보는  
경기도의 역사

- 190 1. 1,000년 경기 훑어보기
- 194 2. 경기도 청사의 변천사

## PART V

4반세기 여정을  
함께 한 사람들

206 사업참여자

# Part I



## 새천년 경기, 광고 시대를 열며

지난 1,000년,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경기도가  
반세기의 세월과 역사가 담긴 팔달산 청사를 떠나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간다.

그동안 한반도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로 활짝 커버린 몸집을 담기에,  
그리고 더욱 성장해 나갈 미래의 경기도가 머물기에는 너무 비좁아져 버린 것이다.

이제 경기도는 풍수지리상 가장 왕성한 기운이 펼쳐지는 '왕룡의 터'로  
평가되는 명당 중의 명당인 광고신도시의 심장부에 새로운 터전을 잡는다.

그곳에서 도민과 역사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더 열린 마음으로 새천년 경기의 미래를 준비하려 한다.



사진으로 보는  
경기도 신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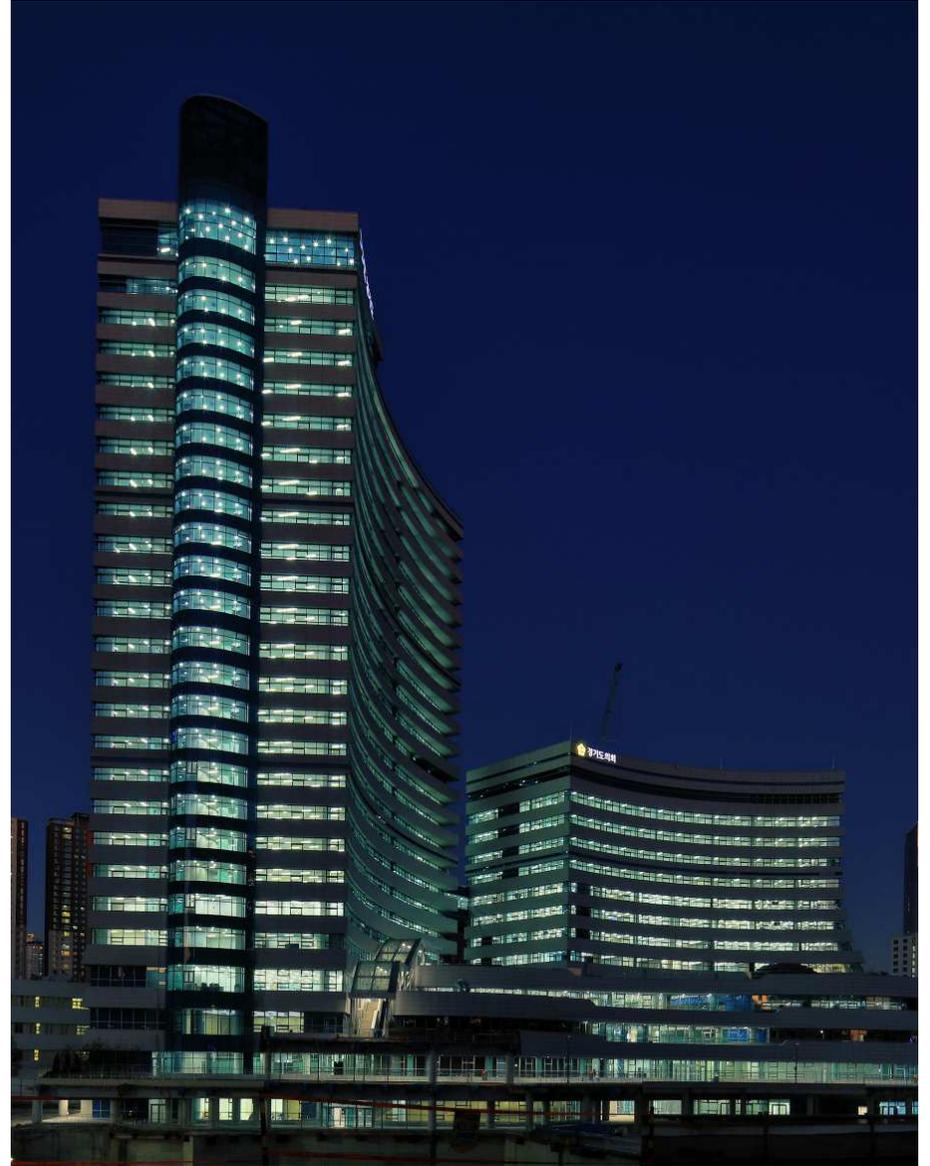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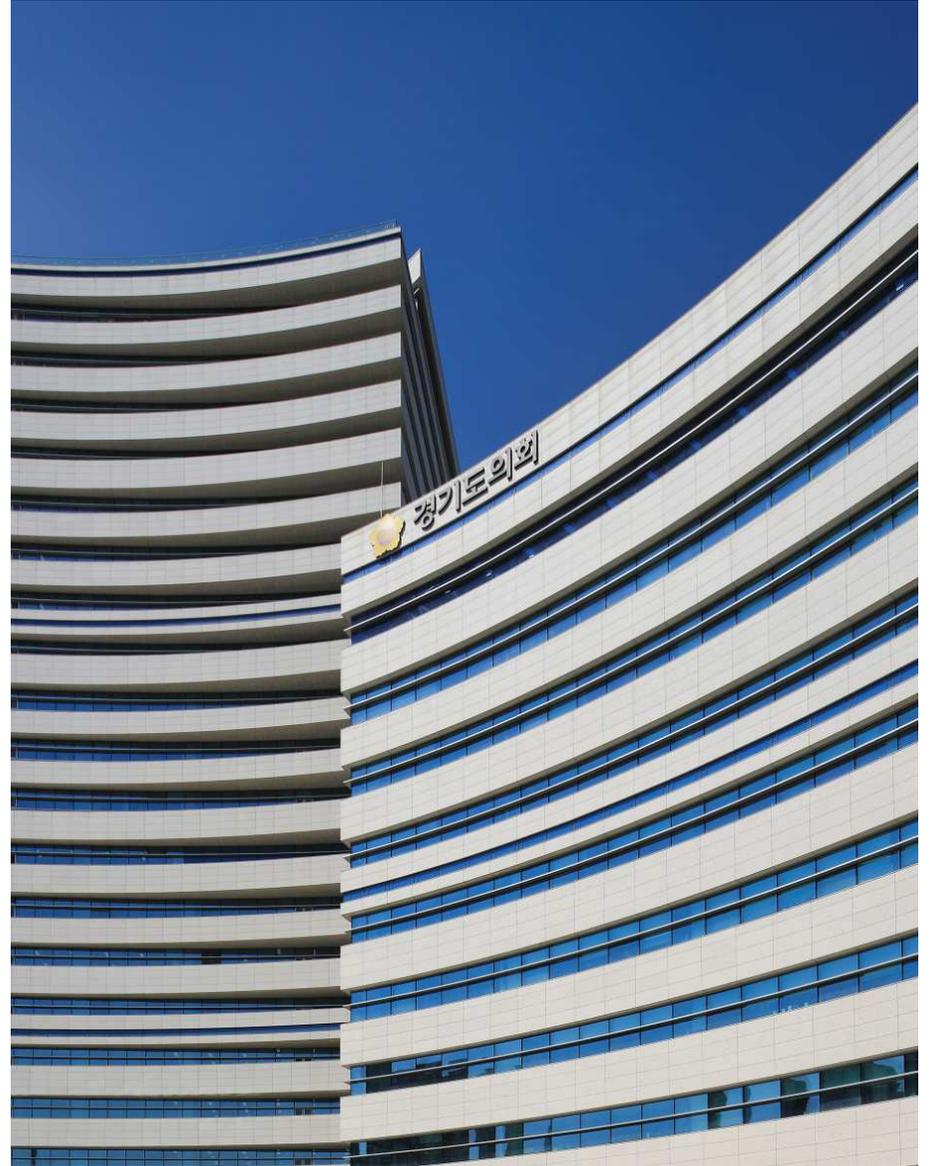


PART I 1,000년 경기, 광고 시대를 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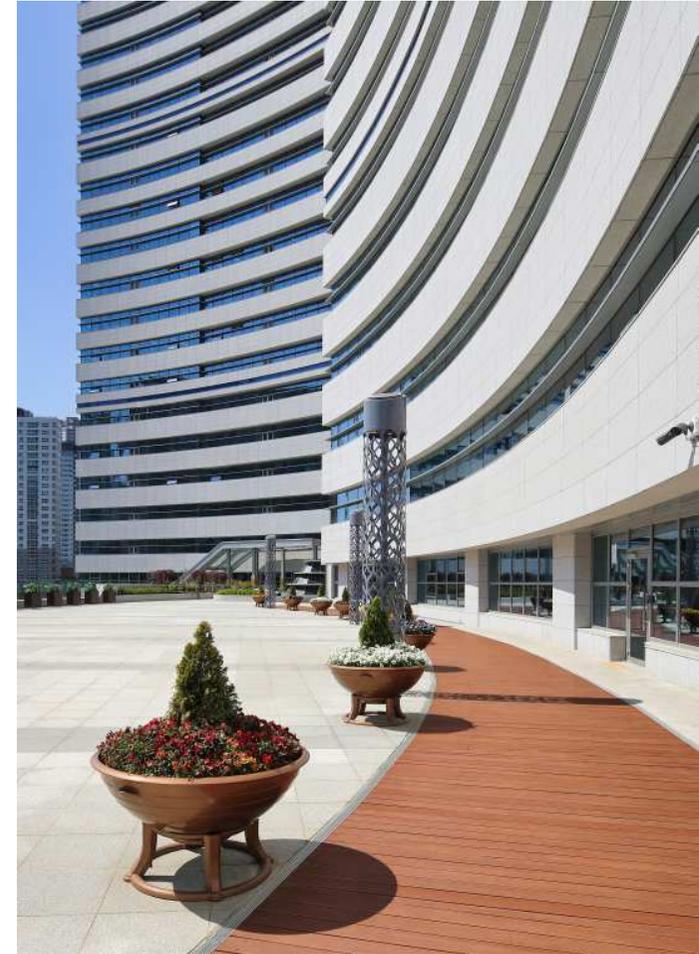
PART I 1,000년 경기, 광고 시대를 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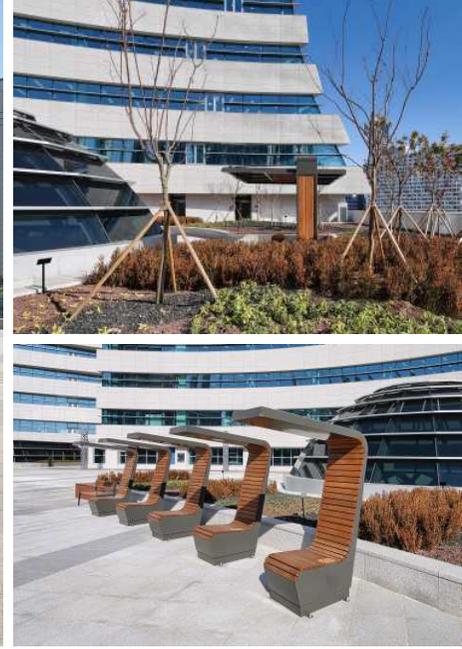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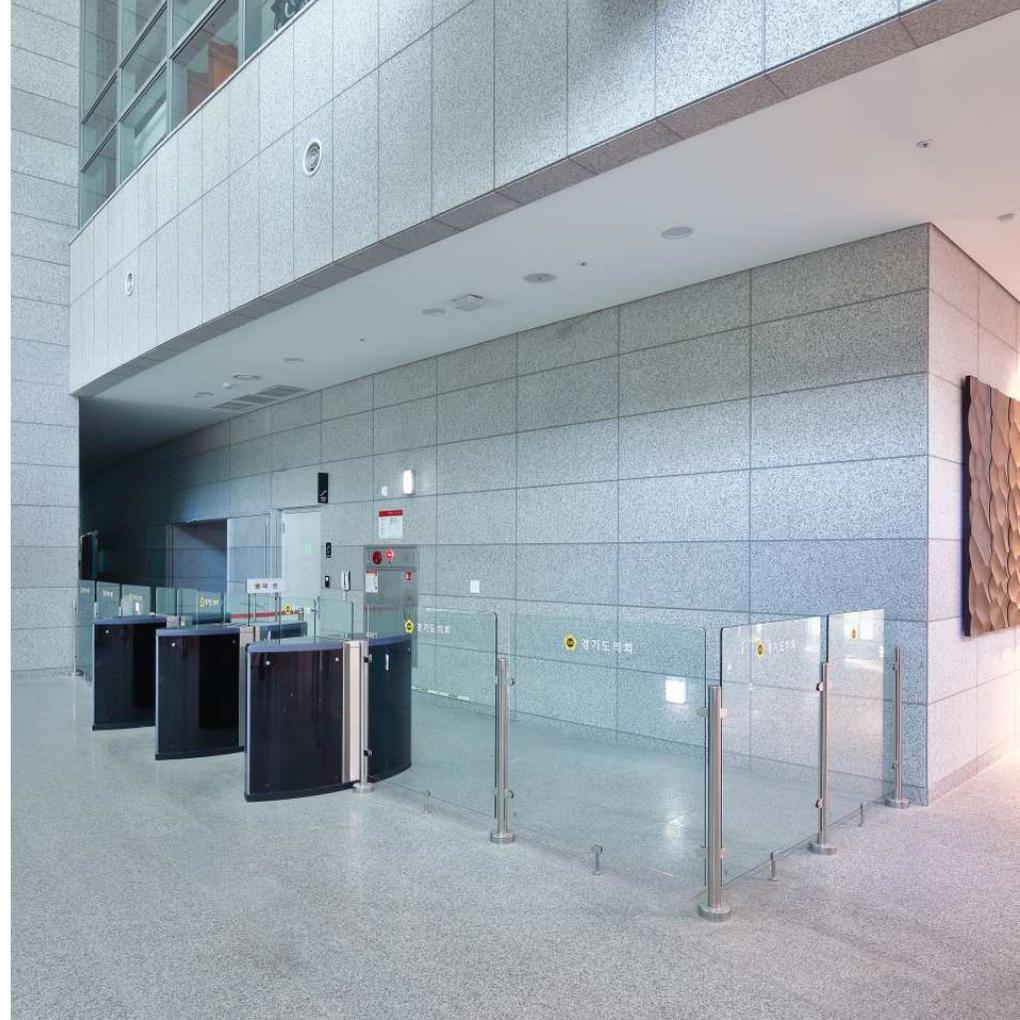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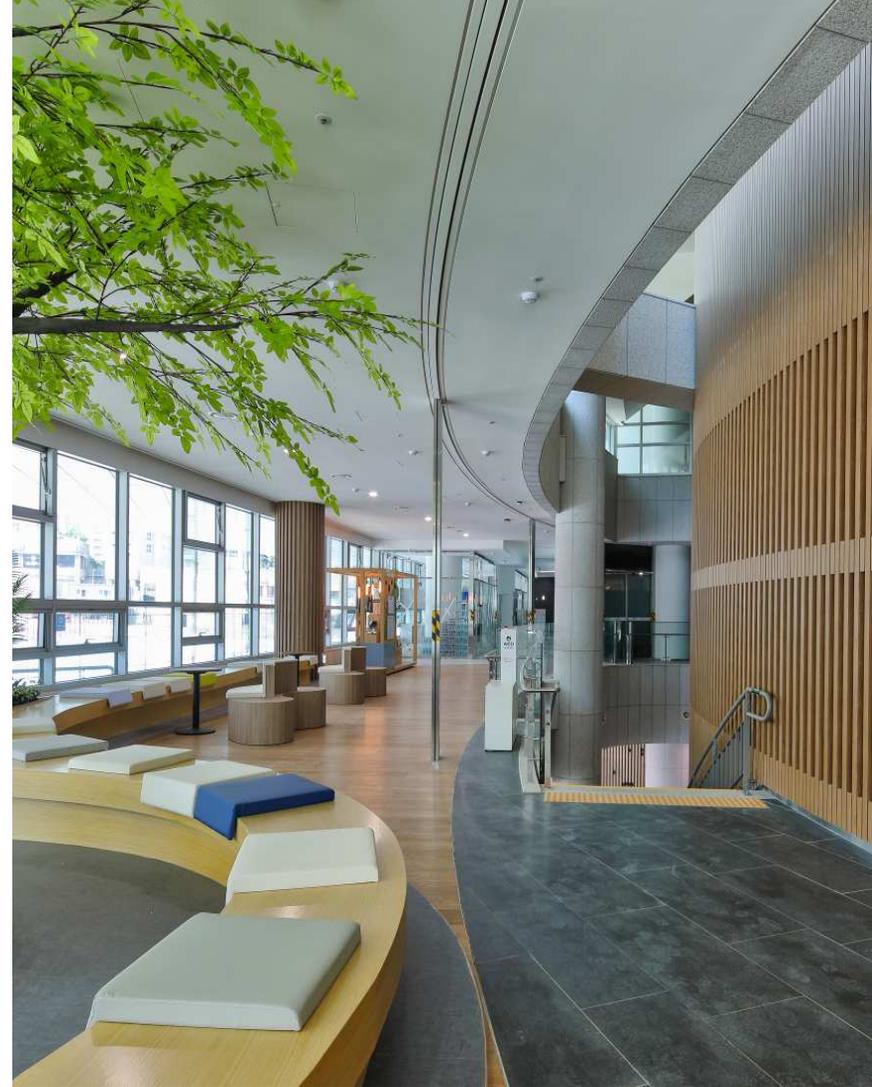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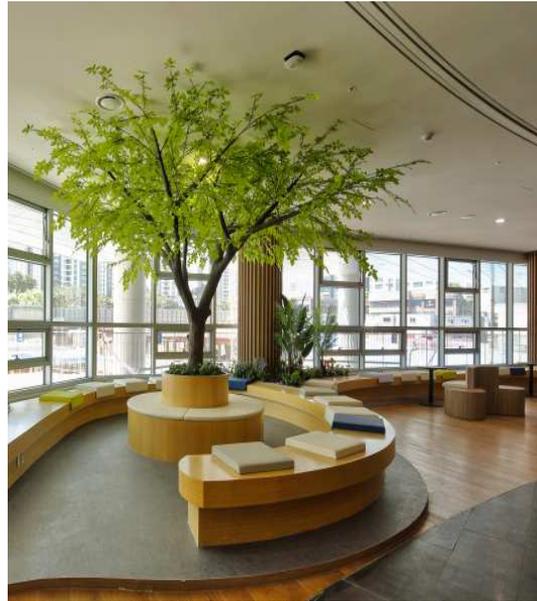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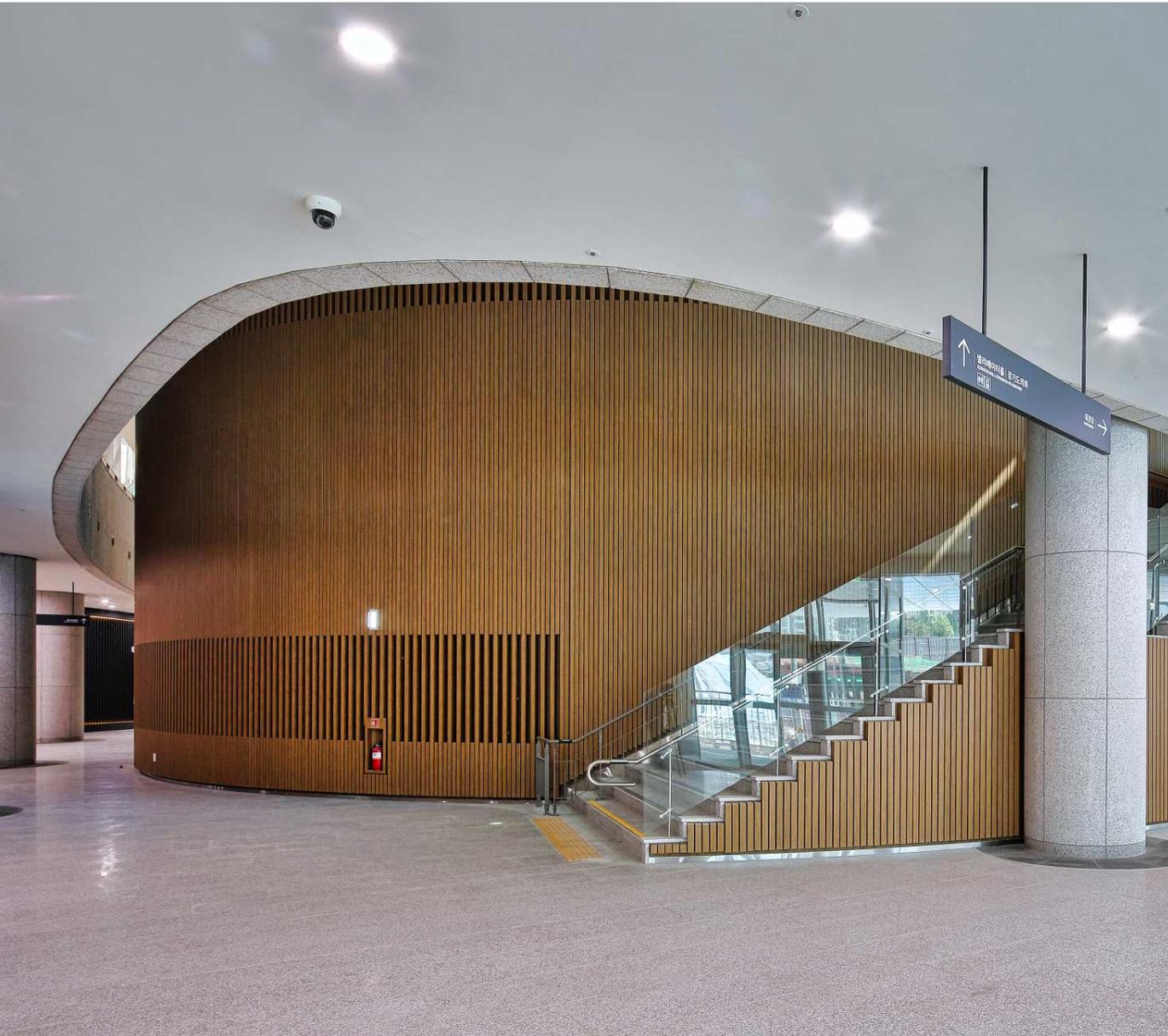


| 1F | 다목적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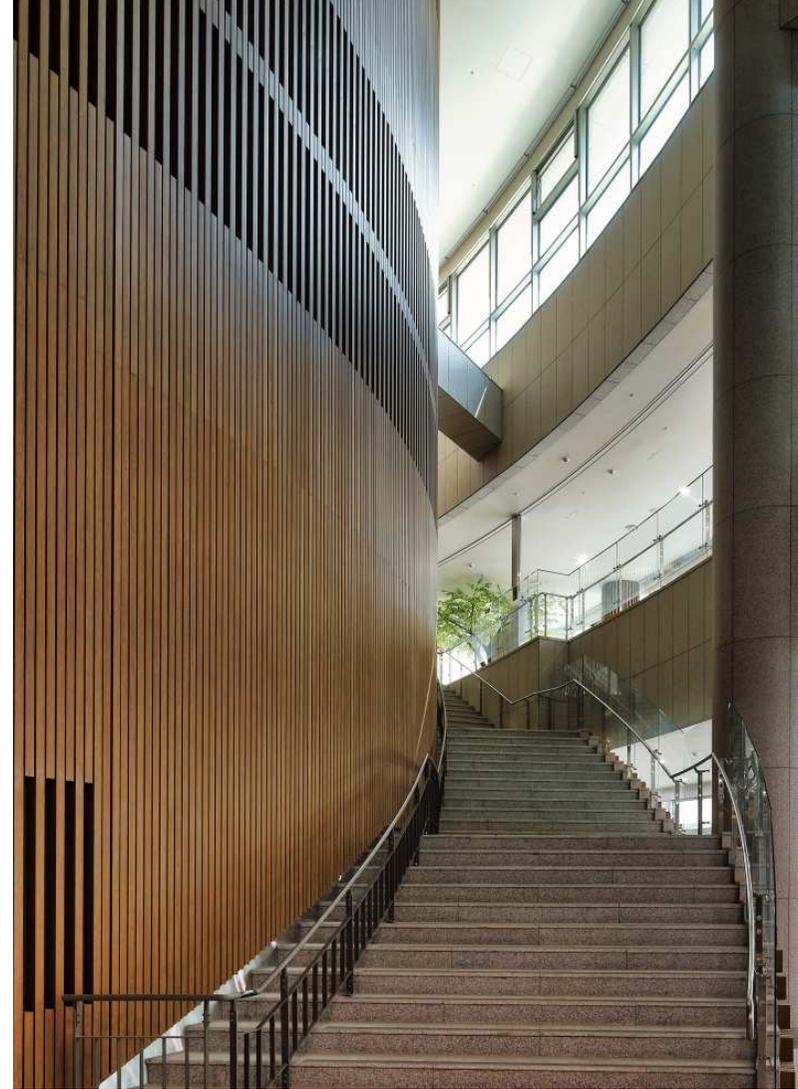








PART I 1,000년 경기, 광고 시대를 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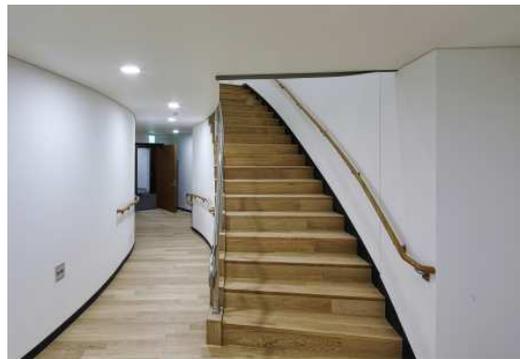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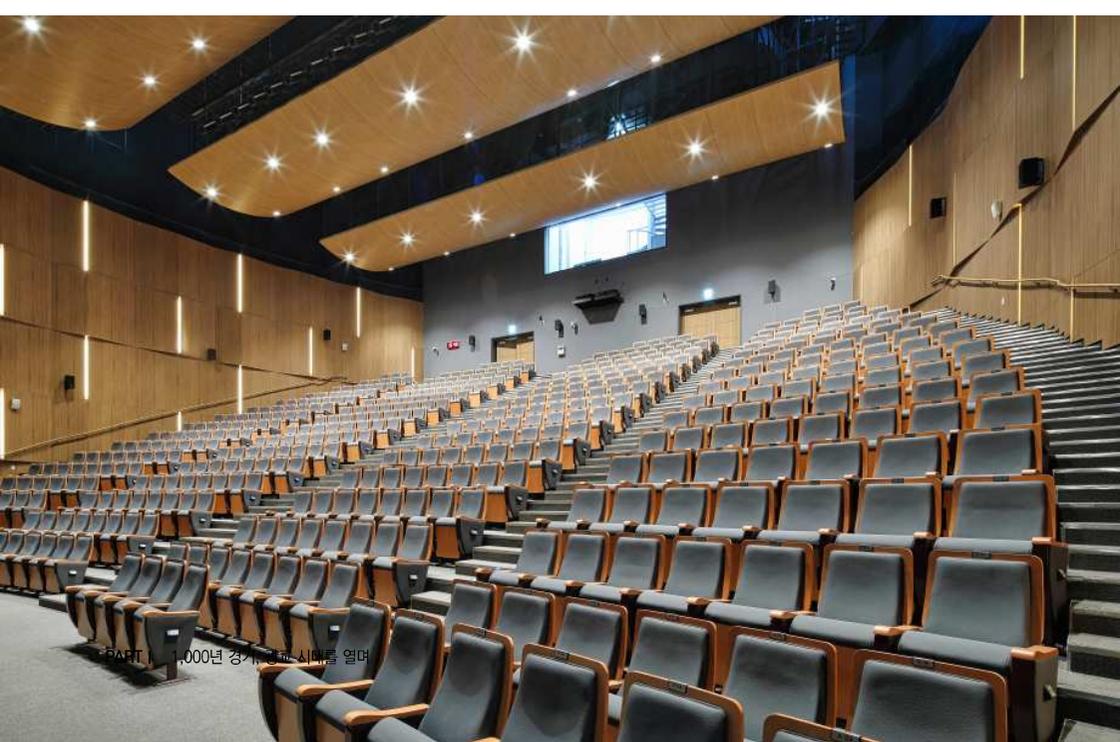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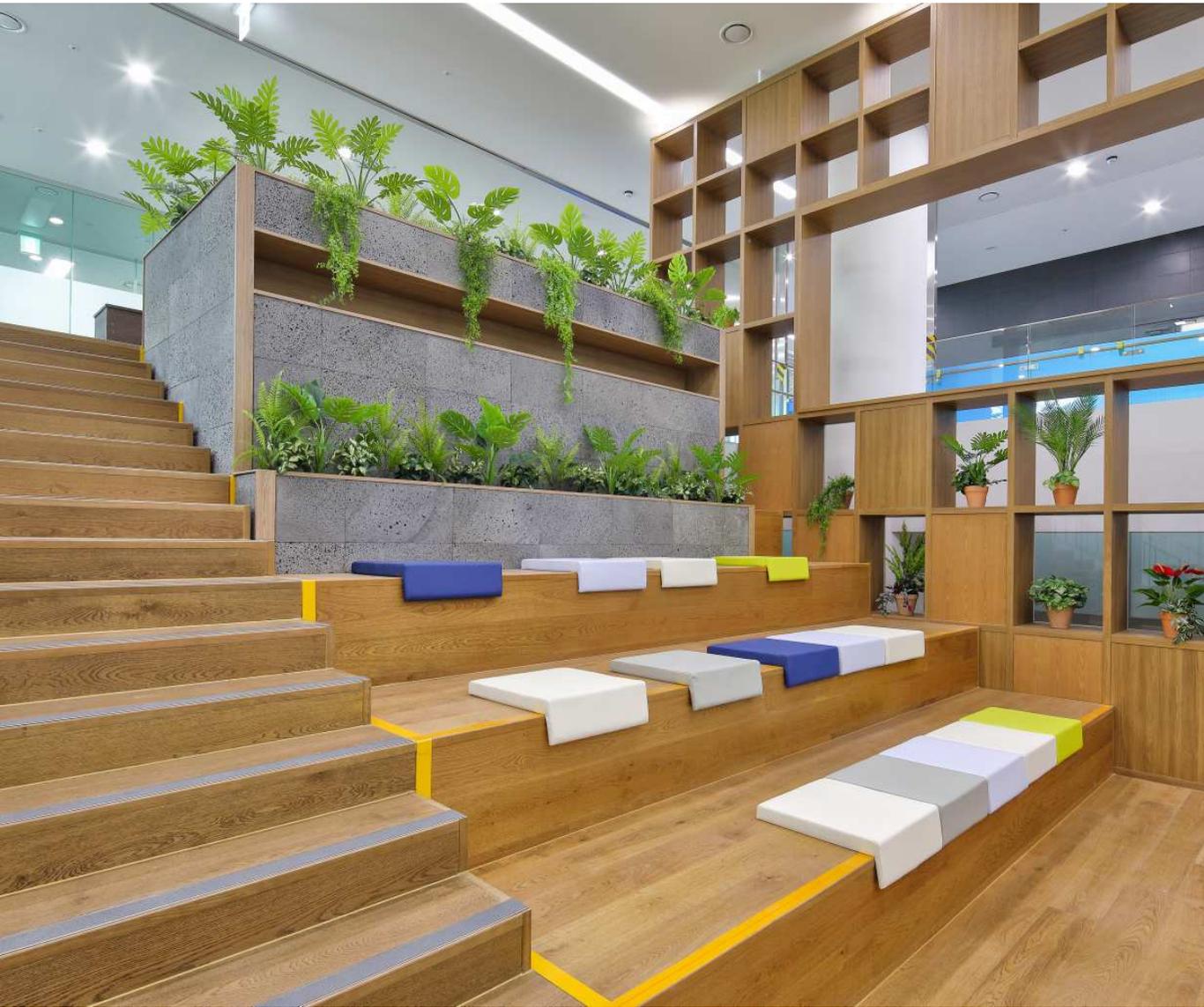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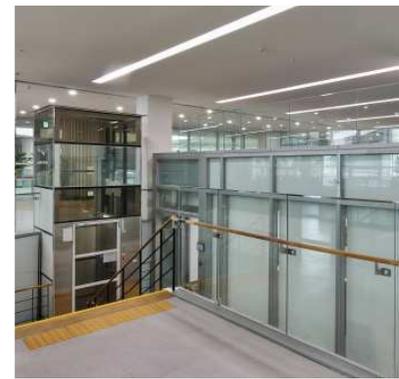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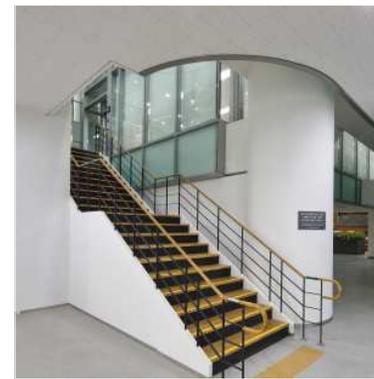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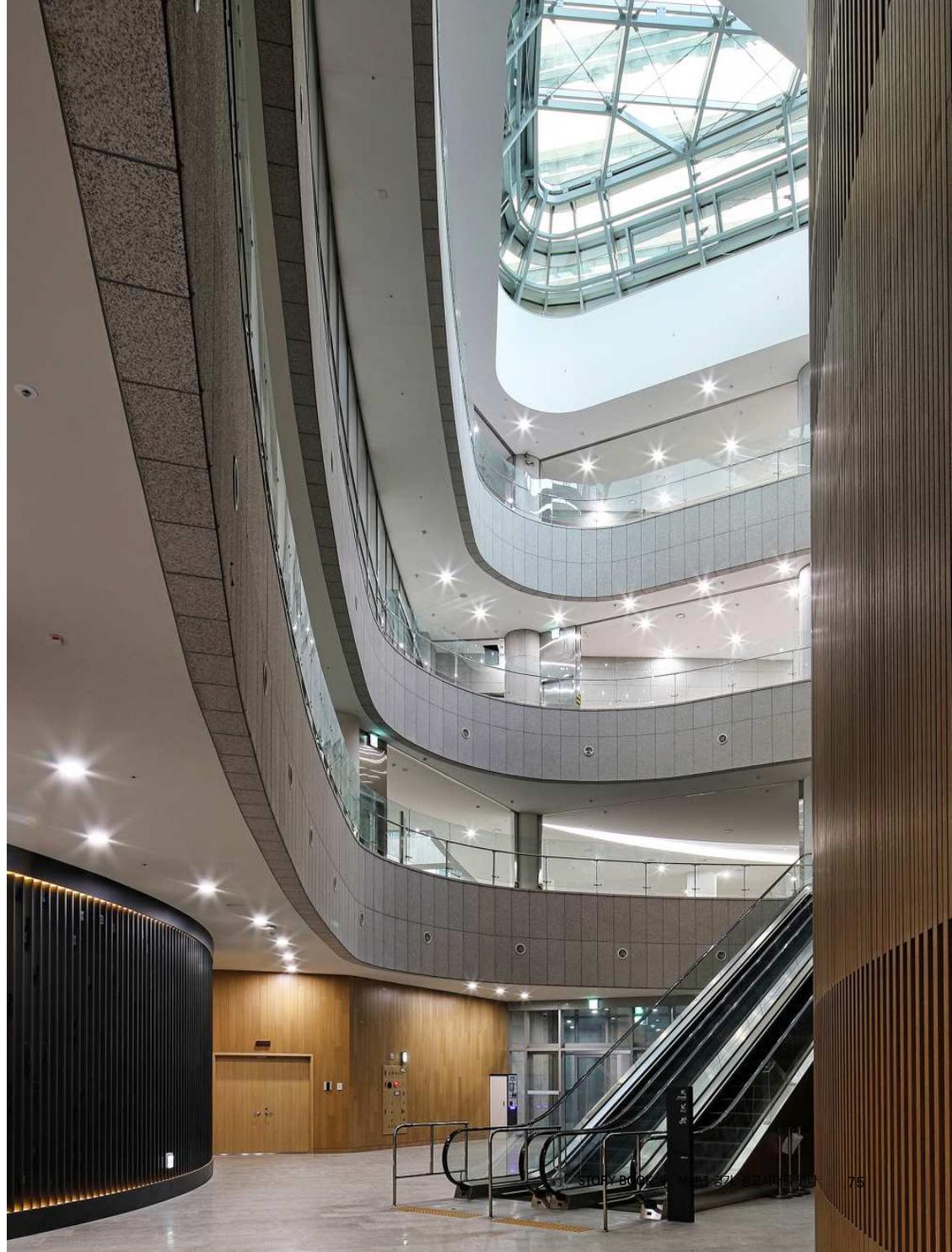


PART 1 | 1,000년 경기, 100년 시대를 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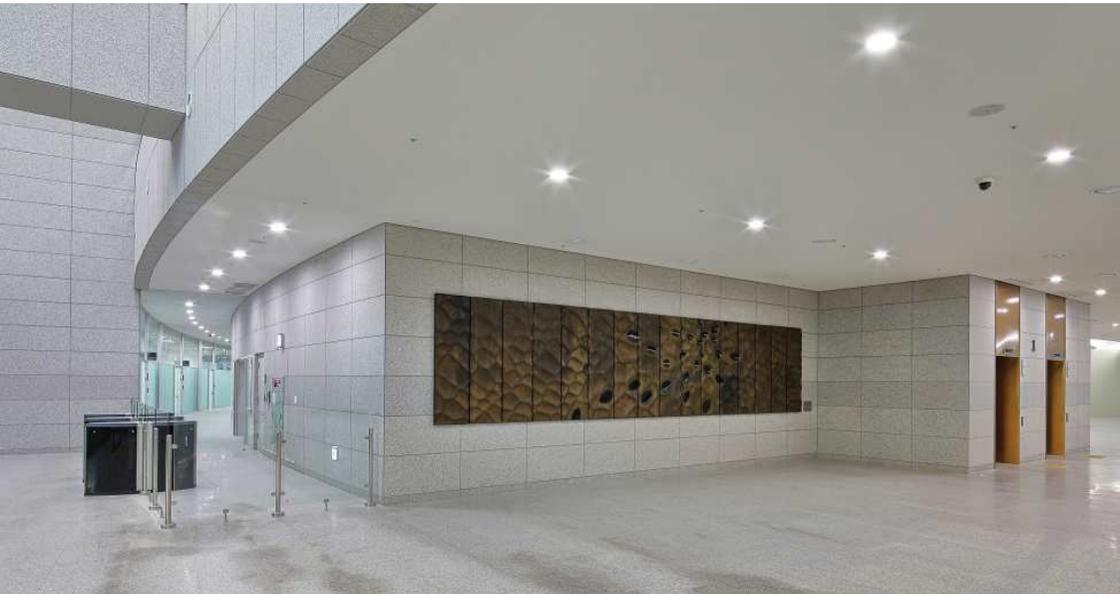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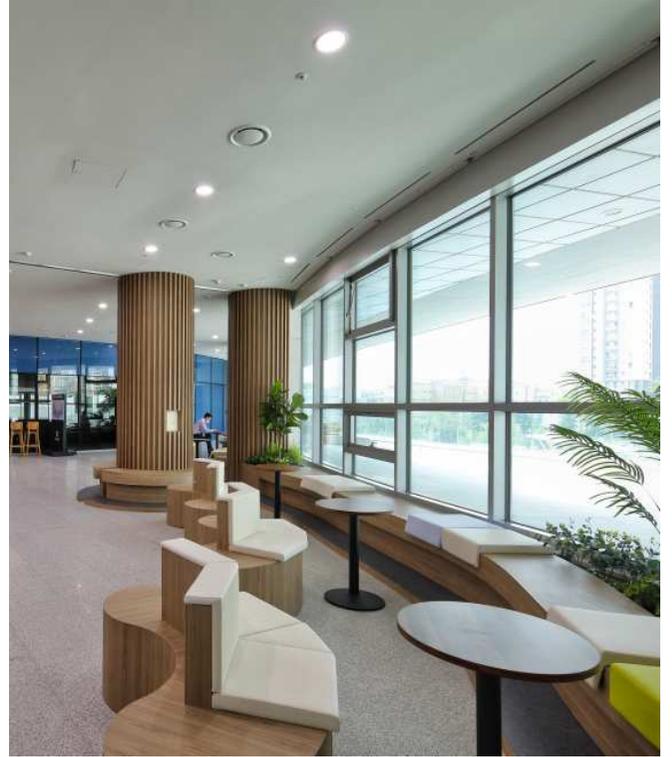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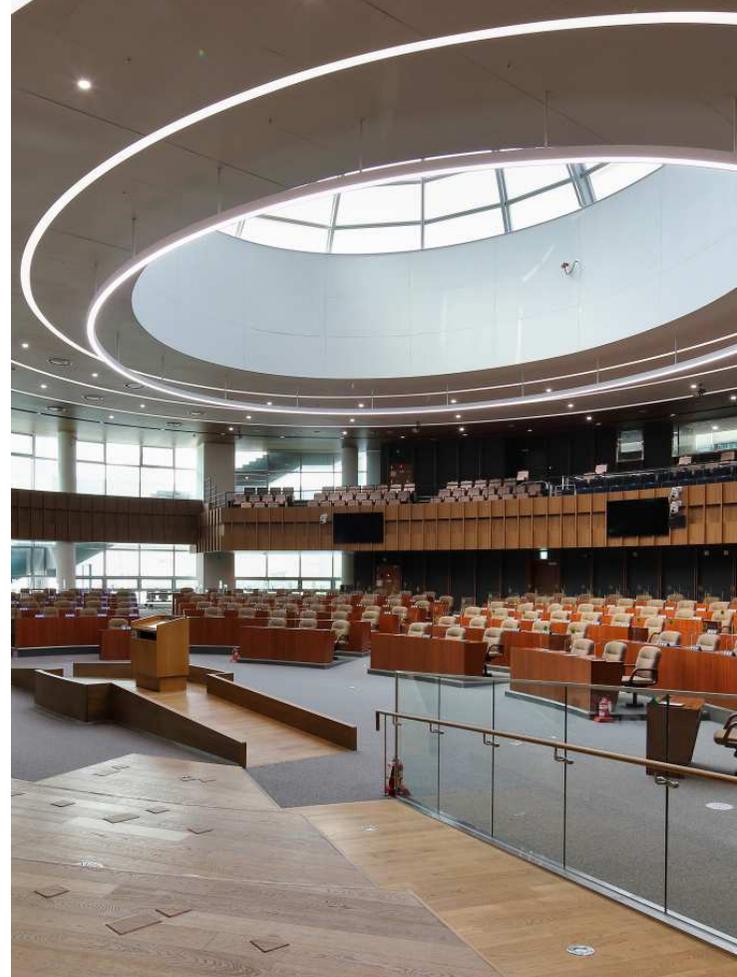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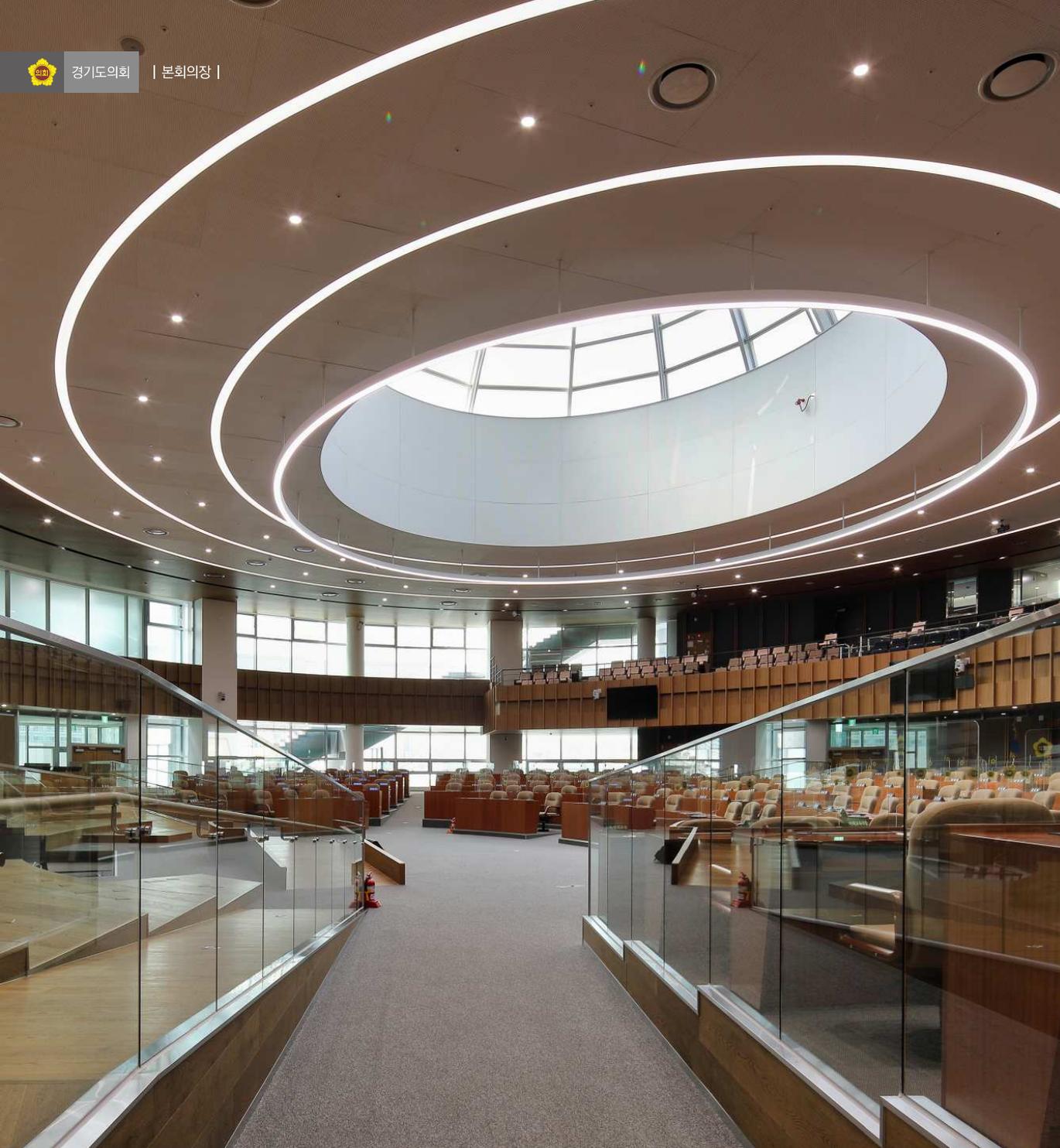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 중회의실 |







##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경기도의회의 탄생, 가치, 성과, 비전을 함께 체험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공간입니다.

### 경기마루의 의미는?

(대청)마루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에서 '도민 개방, 소통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마루'의 또 다른 뜻인 '정상'의 의미처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최고의 경기도(Paramount Gyeonggido)'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습니다.





















923  
장대석 의원

922  
유문형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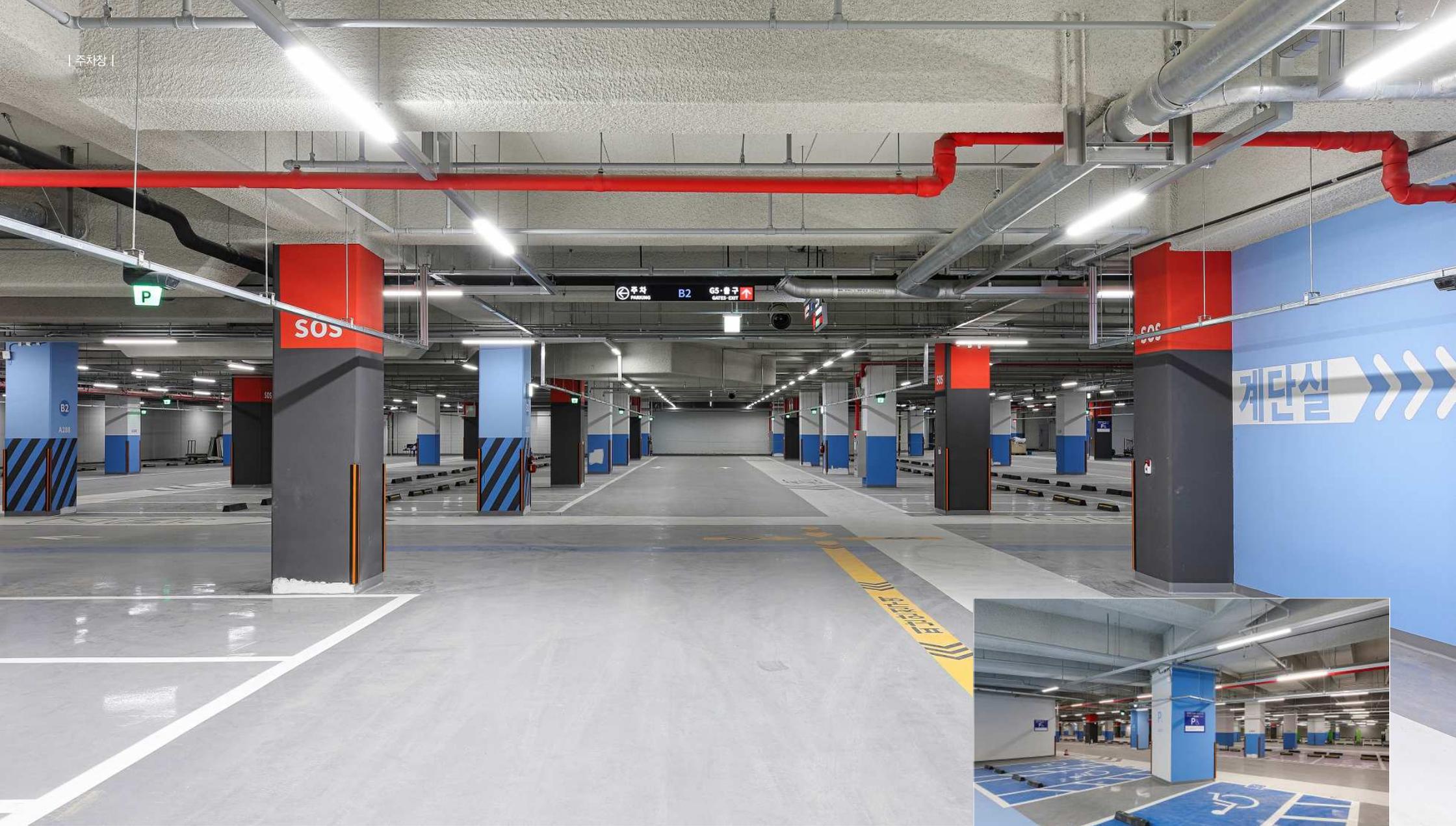


| 기계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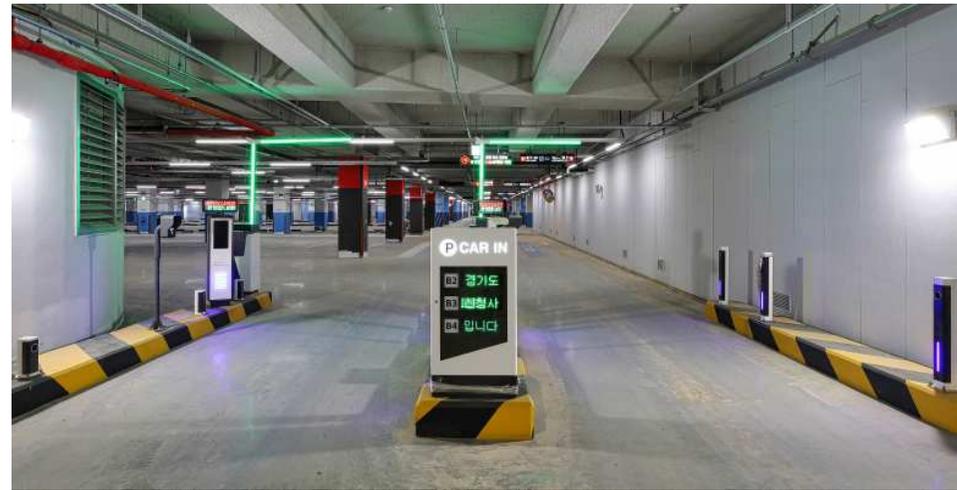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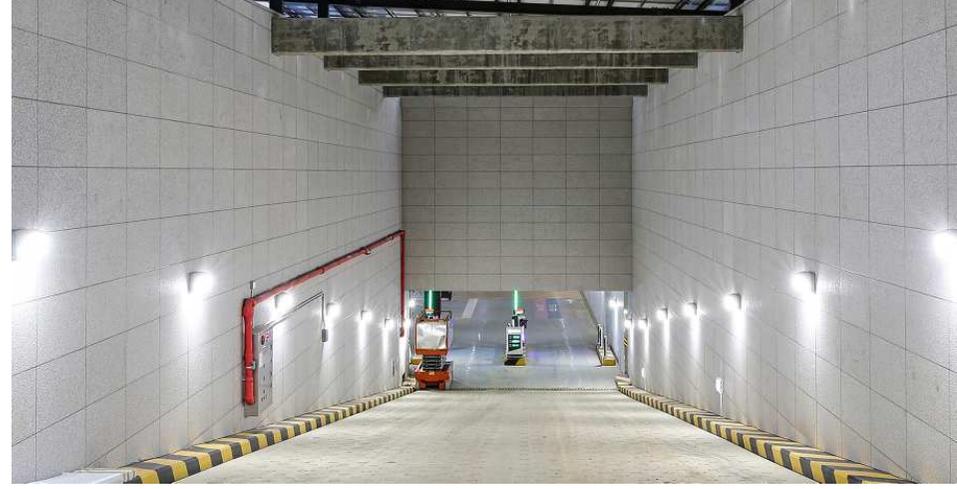








[ 주차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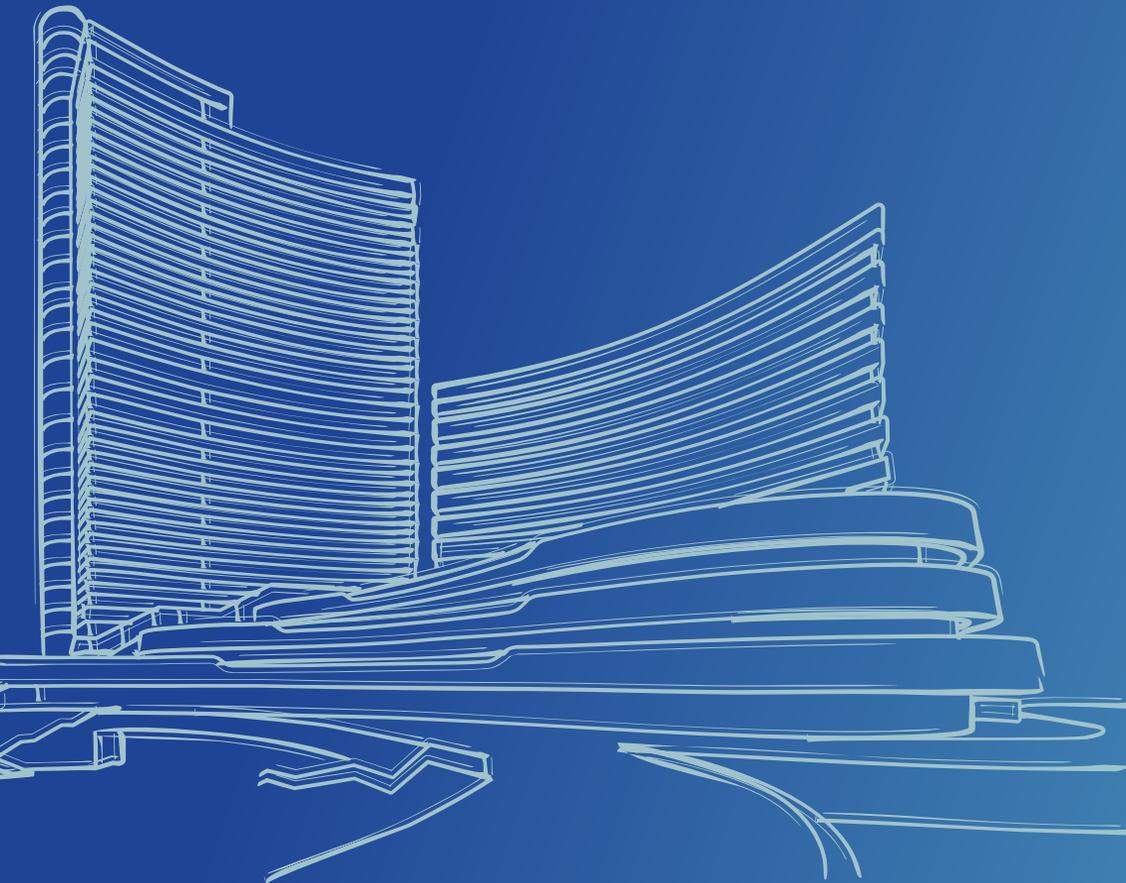


## Part II

### ‘사람’ 중심 도민 행복의 터전, 경기융합타운과 도 신청사

경기도 행정과 정책의 산실인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육의 중심인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 경제생활의 근간인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주요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도민의 주거복지 및 도시 인프라를 책임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인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이곳으로 본거지를 옮겼으며,  
경기도 내 도서관을 대표하는 ‘경기도서관’도 이곳에 세워진다.  
정치, 행정, 업무, 주거,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되어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경기융합타운의 중심에서 경기도 신청사가 새로운 1,000년의 경기도를 세워나갈 것이다.



# 1. 경기융합타운

##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186일원
- 면 적 : 115,287㎡(약 35,000평)
- 사업내용 : 광역행정 및 공공기관 등 공공업무단지 복합개발
- 입주기관 :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서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경기본부), 민간사업자(주상복합)
- 사업기간 : 2016. 01. ~ 2024. 12.(입주기관 순차적 준공 예정)
- 사업총괄 : 경기도건설본부
- 대행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 기본개념

### » 화합으로 도민이 행복해지는 공간

경기융합타운은 경기 새천년(2018~3018)의 중심으로 정치, 행정, 업무, 주거,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미래지향적인 공간이다.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융·복합 프로젝트로서 광역행정 및 공공기관 등 공공업무단지를 복합 개발하여 공공정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정조대왕의 '인인화락(人人和樂)'과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하여 화합을 통해 도민이 행복해지는 공간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경기융합타운 배치도]

### » 정조대왕의 '인인화락(人人和樂)' 정신 구현



- 여러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자유와 배려로 화합하여 도민이 행복해지는 공간 조성
- 정치, 행정, 업무, 주거,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되어 시너지 창출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조감도(2016년 Jerde사)]



[경기융합타운 조감도(2017년 태영건설)]



[경기융합타운 조감도(2020년 태영건설)]

### ■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신청사(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서관,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경기본부) 등의 여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이 같은 공간을 나누며 자유와 배려로 화합하여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행정·업무·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되어 새로운 공공서비스가 창출되는 곳이다.

#### » 경기도 신청사(경기도·경기도의회)

▷ 공간, 통합, 안전, 에너지가 융·복합된 공공건축물의 새로운 기준 제시

365일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개방과 소통의 혁신 공간, 통합과 안전, 에너지가 융·복합된 혁신청사 구현



[경기도 신청사(2017년, 태영건설)]

#### ▷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구현

- 사람(도민)을 상징하는 시옷(ㅍ)의 형상
-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세 기관은 독립적이면서도 통합
- 3개 기관이 합심하여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의 표현



» 경기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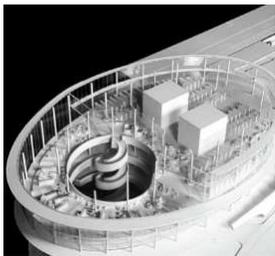
▷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및 협력·지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

타원형의 외관 형태로 경기융합타운 안에서 경기도 신청사를 비롯해 주변 건물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며,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및 협력·지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



[경기도서관(2020년, 해안종합건축)]

▷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비전 수용



- 타원의 형태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비전을 형상화
- 외부로부터 도서관 내부 공간을 연결하는 나선형의 흐름을 통해 외부와 내부의 유기적 연속성을 강조하고 중심부 나선 계단이 옥상의 하늘정원으로 도달하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보행 동선을 구현

» 경기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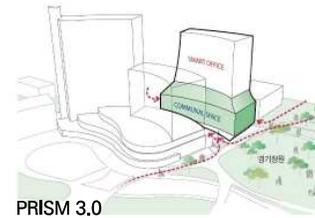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롤모델 제시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청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벽이 없는 스마트오피스 청사를 구현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롤모델로 중심적 역할을 선도



[경기도교육청(2019년, ㈜해마종합건축)]

▷ 조화·소통·창의의 경기혁신교육 3.0을 반영한 PRISM 3.0



- 공유, 개방, 전환이라는 세 가지 스펙트럼을 통해 경기융합타운을 완성하고 경기혁신 교육 3.0의 가치를 구현
- 벽이 없어 행정업무를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 청사로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조성

»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신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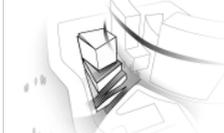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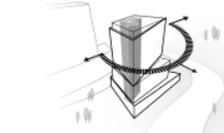
▷ 향후 50년간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의 원천

수도권과 경기도의 기능 확대에 따른 도시 기반 조성 and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데 따른 조직 및 인력의 확충 등 향후 50년간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신사옥(2019년, 행림종합건축)]

▷ 나선형 조형, 자연의 흐름을 이어가는 테라스, 3면 개방으로 소통

<p><b>  형태  </b> 경기도대표기업으로서 다양한 연결의 가치를 나선형 조형으로 상징</p> 	<p><b>  배치  </b> 자연의 흐름을 이어가는 테라스를 담은 배치로 주변환경과 조화</p> 	<p><b>  공간  </b> 3면 개방형 스마트오피스 구현으로 외부공간과 소통하는 실내공간 구현</p> 
-------------------------------------------------------------------------------------------------------------------------------------------------	------------------------------------------------------------------------------------------------------------------------------------------------	----------------------------------------------------------------------------------------------------------------------------------------------------

»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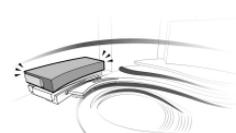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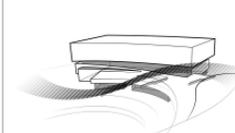
▷ 경기융합타운의 비전인, 인인화락(人人和樂)의 완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사옥과 함께 건립되며 민간을 위한 업무시설과 판매 및 운동시설 등이 입주함으로써 주로 공공청사로 구성된 경기융합타운의 기능을 보완함과 동시에 경기융합타운의 기본 가치인 '인인화락(人人和樂)'을 완성하는 의미를 지닌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2019년, 행림종합건축)]

▷ 플로팅 랜드마크, 전 방향 공유, 대면형 상가, 가변형 오피스

<p><b>  형태  </b> 경기융합타운과 조화된 플로팅 랜드마크 상징화</p> 	<p><b>  배치  </b> 전방향 보행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입체적 공유공간으로 활성화</p> 	<p><b>  공간  </b> 수익성을 극대화한 대면형 상가와 가변형 오피스</p> 
-----------------------------------------------------------------------------------------------------------------------------------------	------------------------------------------------------------------------------------------------------------------------------------------------	------------------------------------------------------------------------------------------------------------------------------------------

» 경기신용보증재단(신사옥)

▷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서비스의 다양화와 사업 기반 강화의 초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및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금융기관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설립 이후 최초의 독립된 사옥을 갖게된다. 이를 계기로 서비스의 다양화와 경기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기반 강화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사옥(2019년, 해안종합건축)]

▷ DREAM PLATFORM

원스톱 금융지원 서비스, 가변적인 스마트공간 구성,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과의 조화, 역동적 플랫폼 이미지 구현, 입체적 공간구성, 사람 도시 자연이 함께하는 경관

<p><b>저층부(1층 로비)</b> <b>WELCOMING WINDOW</b> 투명한 창을 통해 소통하는 세련 이미지 반영</p>	<p><b>중층부(포디엄)</b> <b>HARMONIOUS NETWORK</b> 수평적인 패턴을 통한 융합타운과의 조화 표현</p>	<p><b>고층부(타워)</b> <b>TRUST GRID</b> 안정감 있는 격자패턴을 통해 신뢰를 주는 신용재단 이미지</p>
-----------------------------------------------------------------------------------	-----------------------------------------------------------------------------------	---------------------------------------------------------------------------------

» 한국은행(경기본부)

▷ 도민들과 소통하는 중앙은행으로 쇄신

정부의 은행인 중앙은행으로서 도민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적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융합타운으로 행사(行畵)를 이전하면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화폐전시실을 설치하는 등 도민들과 소통하는 중앙은행으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국은행(경기본부)(2019년, 삼우건축)]

▷ 수월화성과 같이 견고하고 든든한 경기본부

<p>보안 최우선의 안정성</p>	<p>중앙은행 고유의 상징성</p>	<p>첨단 시스템의 가능성</p>
------------------------	-------------------------	------------------------

» 경기정원

▷ 경기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공간의 조성

경기도의 새 얼굴이자 그 위상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장소로서, 경기융합타운 방문객들에게 경기도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경기정원은 경기도의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지역의 상징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경기도의회·경기도서관·경기도교육청·한국은행(경기본부) 등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융합타운의 공공정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이벤트 행사 모임 소통 등 다목적 공간으로서 정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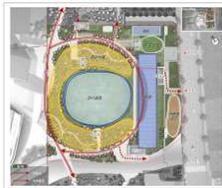
[경기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2020)]

▷ 자연과 어우러진 평화로운 문화공간,

도민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도 대표정원, 직장인, 도민의 복지 쉼터



명품+경관+휴식  
[기본계획으로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이벤트+친환경+자연



상징+수경+입구



## 2.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 면 적 : 대지 26,184㎡, 연면적 166,337㎡(신청사-어린이집 111,128㎡, 지하주차장 51,928㎡)
- 사업내용 : 경기도 신청사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
- 사업기간 : 2008. ~ 2021. 10.
- 공 사 비 : 4,007억(도급액 2,987억, 관급자재 676억, 대행수수료 149억, 기타 195억 \* '21년 12월 기준)
- 총사업비 : 4,780억(설계비 140억, 공사비 4,007억, 토지비 633억)
- 시 공 사 : ㈜태영건설 컨소시엄(입찰방법 : 실시설계 기술제안)
- 건설사업관리 : ㈜건원엔지니어링 외 3개사
- 총괄사업대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신청사(경기도청+경기도의회)]

### ■ 건립 기본방향

#### » 친환경 기술이 집약된 제로에너지빌딩 롤모델 구현

각종 친환경기술  
적용으로  
패작성 극대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구현

높은 수준의  
인증등급 확보

#### » 최상의 기술로 융합타운을 선도하는 신청사

차별화된 시공관리  
기술 적용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유지관리

최적의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 » 사람들과 소통하는 열린 신청사

다양한 이벤트의  
욕외 테라스

열린 문화예술공간  
다목적 광장

개방형 신청사의 상징  
G.G BOX



■ 주요기술 적용사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는 시공사 선정 시에 실시설계기술제안방식을 적용하여 주어진 설계조건에서 시공성, 경제성, 편의성,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제안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설계에 시공현장의 노하우를 융합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첨단 시공기술을 건축에 적극 반영하였다.

» 친환경 건축

▷ 열, 빛, 음, 공기 등 친환경 기술로 쾌적성 극대화

<b>천창 천동 개폐창 20개소 신설</b> ⇒ 상하부 온도차 저감	열환경 61.1% 향상 UP	<b>천창에 흡음보드 적용</b> ⇒ 음향의 명료도를 높임
<b>외단열공법 적용</b> ⇒ 누수 및 열교 발생 ZERO	빛환경 74.8% 향상 UP	<b>본회의장 흡음재 적용</b> ⇒ 실내 음환경 향상
<b>입면 차폐성능 개선</b> ⇒ 위치에 따른 조도차를 최소화	음환경 21.5% 향상 UP	<b>기준층에 맞통풍 구간 7개소 적용</b> ⇒ 환기성능 향상
<b>천창의 차폐성능 개선</b> ⇒ 위치에 따른 조도차를 최소화	공기환경 25.3% 향상 UP	<b>개폐창 192개소 추가 설치</b> ⇒ 환기성능 향상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제로에너지 빌딩

▷ 에너지 통합설계로 제로 에너지 5등급 청사

- 창면적비 최적화**  
창면적비 9.3% 감소
- 로이삼중유리 적용**  
창호 단열성능 33.7% 강화
- 일사제어 개선**  
평균 일사량 79.3% 감소
- PF보드 단열재 적용**  
외벽 단열성능 42.7% 강화
- 조명 밀도 최소화**  
5.53W/㎡ → 4.21W/㎡

ZEB 5등급  
에너지 효율  
1++ 등급

- 냉난방설비용량 최적화**  
12,189kW → 9,084kW
- 반송동력 최적화**  
898kW → 457kW
- 공조기 전열교환기 추가**  
2.6% → 64.0%
- 태양광 설치용량 추가**  
220kW → 986kW
- BEMS 등급 제고**  
Level 3등급 → Level 4등급

» Smart Grid 기반 통합형 BEMS

▷ 완벽한 BEMS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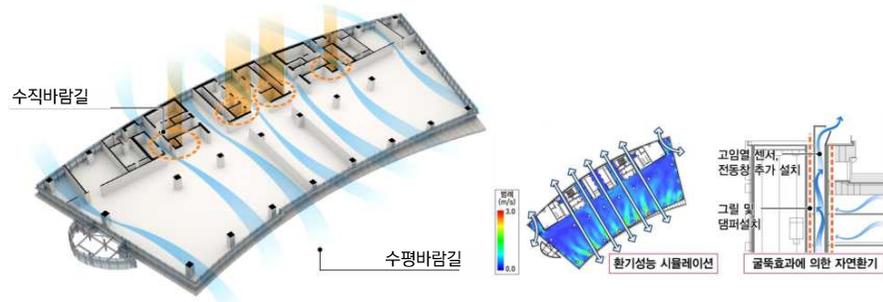


» 최적의 재난관리시스템 재난정보시스템 추가로 안전한 신청사



■ **건물의 주요 특징**

- » 합리적인 코어부 계획을 통한 업무환경 향상
- ▷ 수평, 수직 바람길 추가 확보로 업무공간의 공기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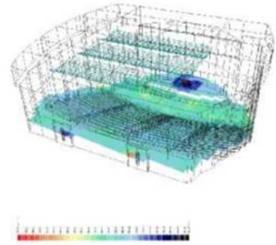


» 상징성과 기능성을 높인 실내공간 계획

- ▷ 청사의 인테리어 컨셉인 흐름, 결을 적용하여 공간과 공간, 공간속에 유기적인 선형의 흐름을 적용하여 빛이 흐르는 듯한 이미지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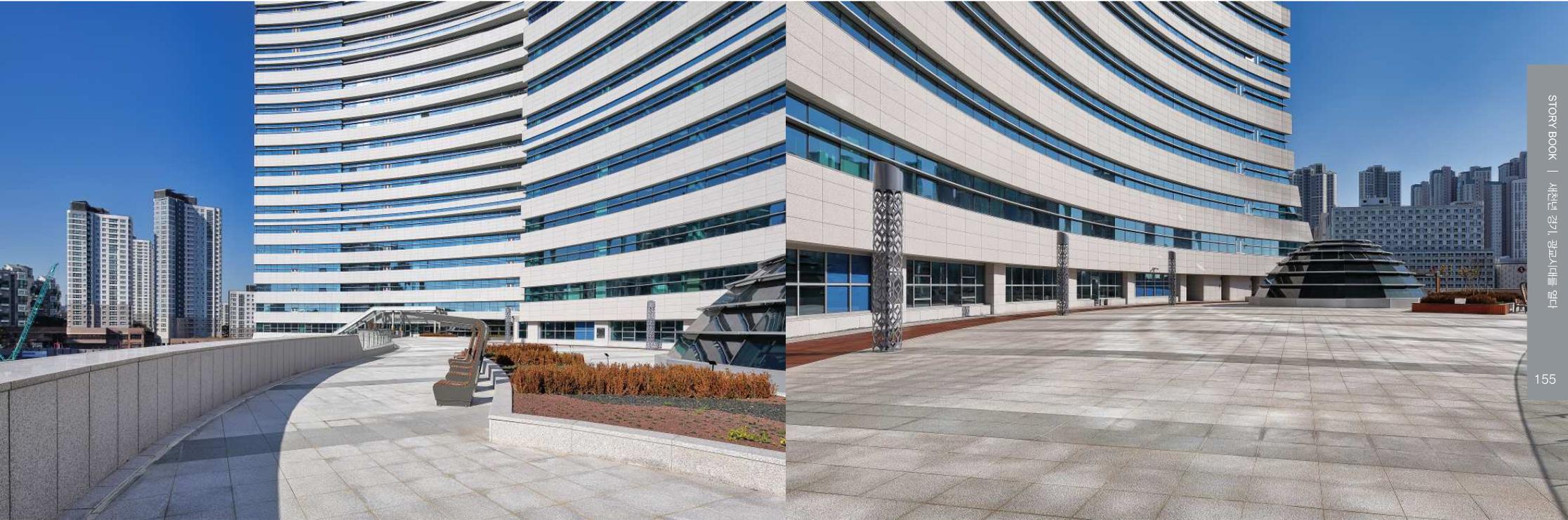
▷ 오픈천정 구조로 공간감 극대화 및 대강당 음향성능 개선



» 모두에게 열린 옥외테라스 활용

▷ 이벤트 공간 다양한 체험공간, 야외행사 등에 최적화된 인프라 구성





PART II '사람' 중심 도민 행복의 터전, 경기융합타운과 도 신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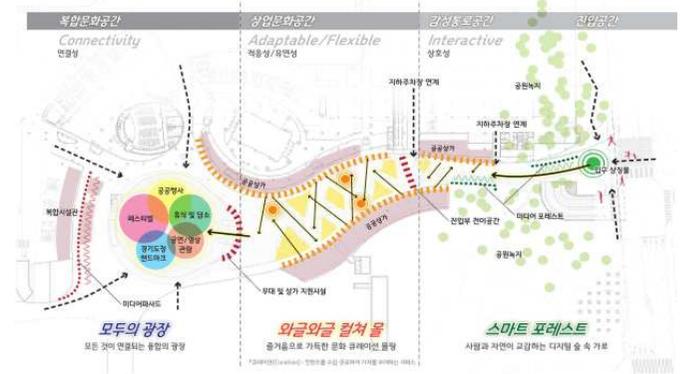
- » 상징성, 예술성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
- ▷ 주제별 공간구성과 입체적 조경공간 조성



- 휴식1** 여우벌 정원  
건물 내 외부를 연계하는 휴게공간
- 휴식2** 아람정원  
녹지와 연계된 휴게시설
- 체험** 쪽빛마당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제공
- 조망** 마루길  
동선을 따라 도민 이벤트 광장 조망



- » 광고신도시와 연결되는 보행물
- ▷ 사람, 문화, 자연으로 복직하는 Public Curation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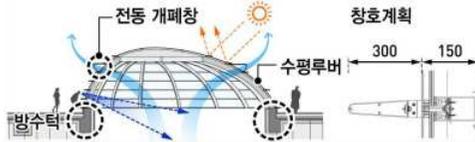


- » 이벤트 광장(모두의 광장)
- ▷ 광고중영역 환승센터, 공공청사, 보행물 등 경기융합타운 전체와 연결되는 소통공간



▷ 도민에게 열려있는 도의회

조형성 및 기능개선



- 대중이 방문하여 경험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
-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도의회의 모습 상징



■ 경기도 신청사 외부 디자인 변천



현상설계안(2009년)

- 연면적 98,000㎡
- 지하 3층 ~ 지상 36층



현상설계 조정안(2011년)

- 연면적 111,139㎡
- 지하 3층 ~ 지상 25층



복합개발 계획안(2015.7월)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2016.4월)

- 연면적 129,920㎡
- 지하 3층 ~ 지상 21층



경기도 신청사(2017.3월)

- 연면적 99,127㎡
- 지하주차장(별도) 51,666㎡
- 22층(도청), 12층(의회) / 지하 4층



경기도 신청사(2021.10월)

- 연면적 166,337㎡
- (신청사 + 어린이집 111,154㎡, 지하주차장 51,928㎡)
- 25층(도청), 12층(의회) / 지하 4층

### 3. 경기융합타운 및 신청사 추진경위

1995.11.27.

도 종합청사화 추진 기본계획 보고(민선1기 도지사)

1996.12.24.

도 종합청사 건립 설계구역 집행(道)

2001.04.24.

도청사 이전 건립 권고 의결 (도의화→道)

2002.10.24.

도청사 이전 결정(민선 3기)

2008.11.

경기도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

2009.11.27.

국제설계경기 현상 공모 당선작 선정(공간건축)

2015.09.21.

도 신청사,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 합의 (도지사, 수원시장)

2016.04.26.

도 신청사 및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2017.07.15.

경기융합타운 및 도 신청사 기공식

2017.09.15.

도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설계 준공일자 : 2017.04.23.)

2021.11.16.

도 신청사 건립공사 준공





## 경기도 신청사 건립, 그 치열한 고뇌의 여정

경기도 신청사 건립의 논의는 1995년에 시작되었다.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으로 청사를 옮긴 지 30년간 청사를  
다시 지어야 할 많은 이유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터는 미룰 수 없다고 여겨지던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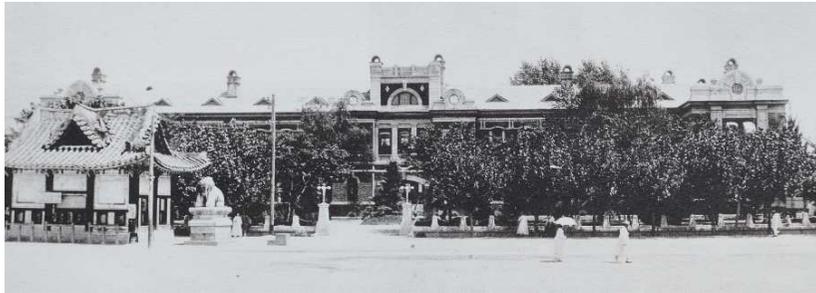
논의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부지에 재건축하려던 신청사 건립계획은  
지리적 위치, 주변환경 여건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청사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바뀌며 열띤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내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논의가 중단되고, 재원조달의 문제로 미루어지고,  
호화청사 논란으로 재검토되고, 다양한 이유들로 논의가 거듭되는 동안 2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가나긴 출산의 고통을 겪는 동안 알차게 준비하고 기초를 다진 신청사가  
경기도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있다.

# 1. 논의의 시작, 도 종합청사 건립계획

## ■ 1967년, 도청의 수원 이전으로 건립된 경기도청사

일제강점기 때에 대한제국의 수도인 한성부가 경기도 소속의 경성부로 격하되면서 수원에 있던 경기도청이 서울 광화문 육조거리(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76번지)에 신축한 대한제국 내부청사로 옮겼다가 해방 이후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에서 벗어나자 1967년에 수원에 도청사를 신축하면서 다시 수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신축한 건물이 효원로 경기도청사이다.



[1920년대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의 모습 |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조선사진첩, 조선총독부, 192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에 위치한 경기도청사는 부지면적 73,287㎡, 건물의 연면적은 56,116㎡의 규모로 1964년에 착공하여 1967년에 준공하였으며, 준공 당시에는 부지면적이 72,191㎡, 건물의 연면적은 22,368㎡였으며, 9,990㎡ 규모의 운동장과 54,542㎡ 규모의 도로 및 공지를 갖추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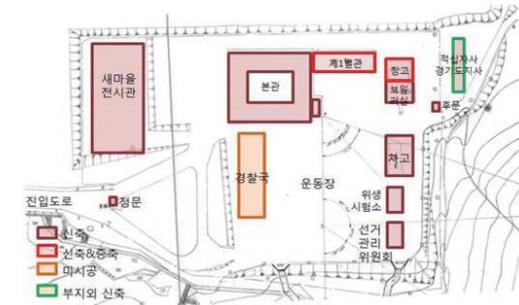
[경기도청사 기공식 장면(수원시 제공)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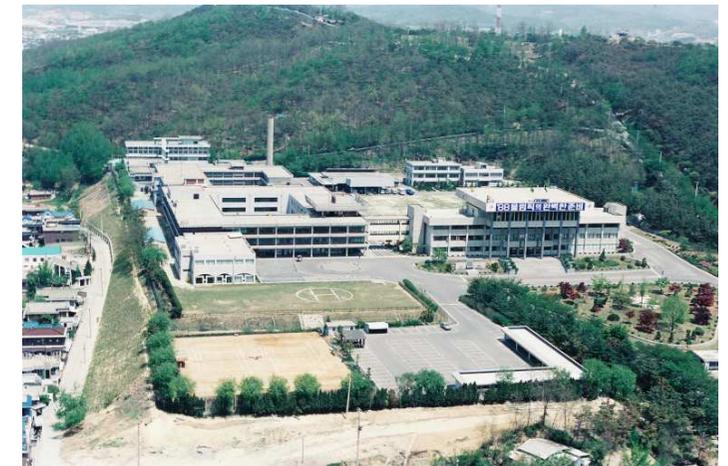
[건립 초기 경기도청 본관 및 정문(경기도 제공) 1969]

## ■ 청사의 노후와 정보화 기능 수용의 한계

기존의 청사를 신축한 1967년도로부터 30년이 가까워지자 경기도의 인구가 250여만 명에서 780여만 명으로 3배 이상 불어나고, 본청 공무원의 수는 547명에서 1,27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동안 6개 동이었던 건물의 수도 신관, 별관, 제2별관, 세계관 등의 명목으로 신축하다 보니 총 20여 개 동으로 늘어났다. 그중 지은 지 20년이 넘는 10개 건물은 수리와 보수를 거듭했고, 업무에서 사무자동화와 인터넷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장비와 설비를 증설해야 했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지어진 구관과 신관, 별관 등 오래된 건물들은 이를 수용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



[1970년대 초 경기도청 건물 배치도(추정)(경기도청사 역사문화지원연구 보고서)]



[1988년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 공간의 부족과 기능적 한계

민선자치체가 시행되면서 지방의 자치행정수요가 급증하였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공무원 수요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의회 청사와 제2별관 등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업무공간을 늘려야만 했다.



[2008년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그럼에도 청사의 수요는 물론이려니와 방문객과 직원들의 주차공간마저 부족하여 부지 내에 마지막 남은 공간인 잔디마당을 사무실과 주차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던 터였다.

» 구, 효원로 청사의 시설 현황

(1995. 12월 현재)

구분	연면적(㎡)	바닥면적(㎡)	층수(지상/지하)	건립시기
본청	36,023.51	9,768.24	-	-
신관	4,111.98	1,000.82	5/1	1978.11
구관	10,634.38	2,769.63	4	1967.6
1별관	2,690.48	816.53	4	1967.6
2별관	8,241.46	931.49	10/1	1990.12/1995.1
세계관동	1,140.00	576.00	2	1986.9
고시계동	602.29	194.04	4	1963.11
생활관동	1,660.00	420.40	4	1980~1983
총무시설	2,231.40	0	0/1	1969~1972
보일러동	1,286.00	748.00	2	1967.6
제2간국위동	573.34	293.98	3	1970.6
정문	53.96	53.96	1	1993.3
후문	28.80	8.80	1	1993.3
연금매점	1,148.21	362.25	4/1	1969.11
모터홀	734.51	734.51	1	1967.6
창고	120.96	120.96	1	1990.12
창고	129.96	129.60	1	1990.12
창고	136.80	136.80	1	1990.12
기계실	160.00	160.00	1	1979.11
소각창고	103.24	103.24	1	1995.7
외부화장실	44.75	44.75	1	1995.7
도의회	20,078.94	6,240.00	6/1	1992.12
의회후문	22.50	22.50	1	1992.12
<b>총계</b>	<b>56,124.95</b>	<b>16,030.74</b>	<b>-</b>	<b>-</b>

[경기연구원, 도 청사 이전 타당성 검토 및 후부지 선정 11쪽]

■ 종합청사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

1995년 11월, 경기도는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종합청사를 건립한다는 목표에 기존의 청사 부지 내에 연면적 15,000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신청사를 692억여 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종합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인 1996년 11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하여 무영건축이 출품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1998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신청사 건립계획은 1997년 초부터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로 내몰아 IMF 구제금융 사태에 이르게 했던 외환위기로 인하여 각 공공기관들이 긴축재정 관리상태로 돌입하면서 추진이 보류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까지 억눌려 있던 신청사 건립의 다양한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다.



[종합청사 건립계획 현상 설계 공모 당선작 | 1997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 위치 : 기존 청사 부지
- 규모 : 지상 5층, 지하 2층
- 연면적 : 58,545㎡
- 설계자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요 특징
  - 대규모 광장 조성으로 도민과 일체감 조성
  - 민원동의 후문 근접배치로 접근성 제고
  - 발달공원과 조화로운 형태 및 배치
  - 도시축과 지형축에 따른 각 공간의 위계적 구성

## 2. 청사 이전 결정

### ■ 접근성의 취약과 토지이용 및 건축 규제 문제점 대두

신청사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자 기존 청사의 위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산하기관 및 자치단체와의 조정, 협력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청사들과의 접근성이 취약하며, 문화제인 화성과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일 뿐 아니라 수원 공군기지(K-13) 관련 비행안전구역 제6구역으로서 토지이용 및 건축에 제한을 받고 있어 기존의 위치에 청사를 재건축하더라도 충분한 사무공간과 부대시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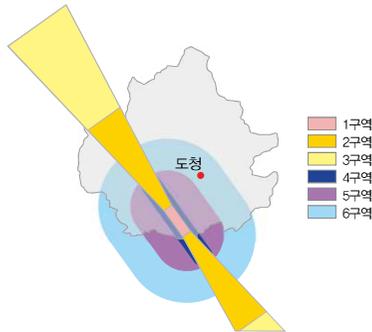
1967년 신축 당시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은 철도였으나 개인별 차량의 이용이 보편화한 요즘에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과 전철 이용의 편리성이 중요한 요소이나 기존 청사의 위치는 그러한 점에서 많은 불편이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청사의 이용자는 도 공무원(도청 및 의회 근무자), 관련 기관 및 시·군 공무원,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인 등으로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도청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업무 공간이 절대 부족하며 공무원 및 방문객의 주차장과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 구, 효일로 청사의 주변 광역교통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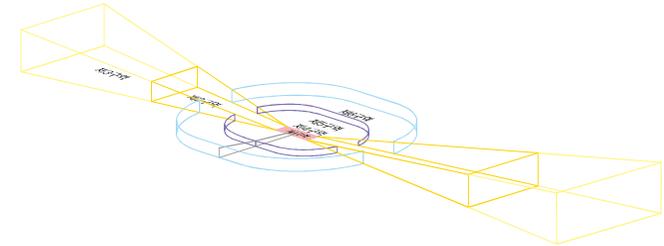


[경기개발연구원, 도 청사이전 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선정 최종보고서, 2002]

#### » 수원 공군기지(K-13) 관련 수원시 비행안전구역



#### » 수원 공군기지(K-13) 관련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고도제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 ■ 경기도의회, 도청사 이전건립 권고

청사의 문제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기존 부지 내에 신청사를 짓는 건립계획을 보고받은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01년 4월 16일, “해당 청사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기도의 위상과 경기도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적정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을 권고”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권고안은 기존의 청사부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현 청사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낮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광역 행정수요 및 국제교류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도정수행에 한계가 있다.

둘째, 현 청사는 화성과 팔달공원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문화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망 확충이 불가하여 획기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곤란하다.

셋째, 현 청사부지는 비행안전구역 제6구역에 의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기존 청사 건립계획은 업무 동선이 길어지는 건물로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청사 건립기간 중 광역행정 및 민원행정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어서 청사 건립계획 기본방향에 대한 의회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을 볼 때, 그간 소요된 예산에 집착하지 말고 신청사 건립이 경기도의 백년대계에 초석이 된다는 전제 아래 행정서비스 향상, 도민의 불편해소 등을 감안하여 종합 행정타운화하는 청사건립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 경기도, 청사 이전 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선정 평가

경기도의회가 도청사의 이전 건립을 권고하자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現 경기연구원)을 통하여 청사 이전의 타당성 및 후보지 선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 » 경기도가 처한 광역행정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 청사의 기능과 한계

#### ▷ 부지 및 청사 기능의 확장성 부족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30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중앙정부의 사무와 경기도 유입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청사의 기능 및 시설도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행정에서 지방자치의 영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사무 중 관계기관 및 산하 시·군과의 조정·협력업무도 급증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관기관 청사들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접근성이 미약하여 업무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기존 청사를 재건축하더라도 충분한 건축 연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질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 ▷ 도민 및 산하 시·군 공무원 등 이용객의 편의성 확보 곤란

철도가 광역교통체계를 주도하던 1967년에 신축된 기존의 청사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등 자동차와 전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취약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무원과 민원인 등을 위한 업무 및 휴식공간, 주차장 등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아가 시민 또는 도민의 교류 및 문화창달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미래의 행정수요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 ▷ 청사의 노후화 및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기존 청사는 신축 이후 30년 이상 지난 건물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32%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당시 가장 최근에 건축된 제2별관, 도의회 건물 등으로는 도정의 정비화, 신속화, 도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기능 수행에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청사의 노후로 인하여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었다.

### » 행정서비스와 업무 효율의 강화, 새로운 거점 형성이 기대되는 청사 이전

#### ▷ 행정서비스 향상

청사를 적절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도민의식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단순 사무공간에서 벗어나 도민의 행정, 문화, 사회생활의 중심공간이자 공공적 개방공간으로써 기여할 수 있으며, 수도권 중추적 자치단위로써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 및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청사로 자리잡을 수 있다.

#### ▷ 업무 효율성 강화

도의 집행부와 도의회, 관계기관 및 산하기관을 집중 배치할 경우,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며, 급속한 인구증가 및 주택, 산업시설 개발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공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도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 경기도의 새로운 중심거점 형성 및 공간구조 개편에 기폭제로 활용

청사 이전이 행정타운 조성방식 등을 채택할 경우에는 신도심 형성 및 신생활 거점으로 개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등 새로운 교통체계에 부응하여 도청 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재편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 ▷ 행정타운 입지 의향, 12개 기관 7,000여 명

2001년 8월에 실시한 경기개발연구원의 행정타운 입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38개 유관기관 중 행정타운 조성 시 입지 의향이 있는 기관은 11개 기관(경기도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경인지방국세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농어촌진흥공사 경기지사,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수원보훈지청, 통계청경기통계사무소)이며 해당 기관들의 근무 인원은 약 5,200명이었다. 도청 근무원이 1,8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타운 조성 시에 입지 규모는 12개 기관 7,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 광역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신청사 및 행정타운 조성

▷ 광역행정 및 정책개발센터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구현되는 광역행정서비스 기능의 강화, 자치 행정 기능의 증대에 따른 시·군 간의 이해조정 기능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중앙정부 담당부처가 관장하던 업무의 대폭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 정보처리 및 발신지

신청사의 정보화 및 인텔리전트화를 통하여 최신 정보의 처리와 관리에 따른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유도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과정을 구축하며, 첨단 행정정보의 제공 및 공유가 가능해진다.

▷ 효율적 공공서비스 공간

관련 공공기관의 입지적 인접성은 자치행정의 확대에 따라 증대되는 광역 행정기능, 보완대행기능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조정기능의 효율과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 국제교류의 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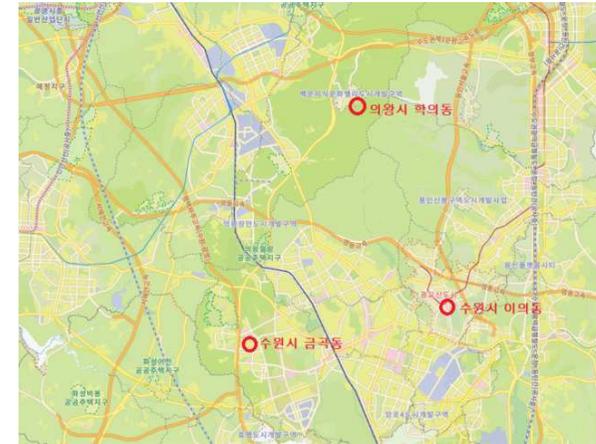
청사의 재입지와 현대화를 통해 국제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제협력 및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 담당이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다.

▷ 역사와 문화의 새로운 상징

신축 청사는 경기도의 지역 이미지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므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고 지역의 상징성을 내포하여 국내·외적으로 경기도의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인 건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시관, 문화정보센터 등의 문화예술 공간과 이벤트 공간인 도민광장 등의 공간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청사 이전 후보지 3개소(수원시 이의동, 수원시 금곡동, 의왕시 학의동) 추천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심성 및 접근성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원시와 그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 및 이용의 편의성, 신청사의 수용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물리적 경적 요건 등의 기준으로 경기도 청사 이전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제1후보지로 수원시 이의동, 제2후보지로 수원시 금곡동, 제3후보지로 의왕시 학의동 등 3개소를 추천하였다.



■ 신청사 이전 및 행정타운 입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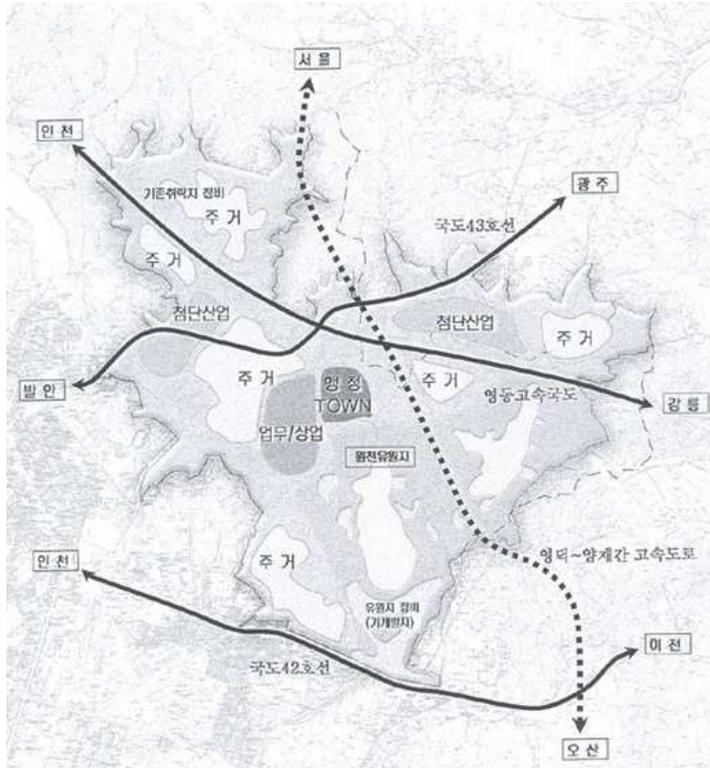
» 신청사 이전 및 행정타운 입지로 이의동 선정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의「청사 이전 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선정 평가」결과와 관계 법령, 그리고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2년 10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원에 약 11만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해당 안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수원시와 협의하였다. 이 지역은 원천유원지와 신대저수지 인근으로 자연녹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수원시 내에서 개발 1순위로 꼽히던 지역으로 당시에도 개발에 관한 논의가 종종 수면 위로 오르곤 했다. 특히, 수원시가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 및 컨벤션시티로 개발한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던 터였으므로 경기도가 이 지역을 청사 이전 및 행정타운 입지 예정지로 정한 것은 수원시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결정이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지역에 경기도 행정타운과 시 컨벤션센터 조성 등 종합발전계획을 시행하는데 큰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2002년 11월 28일에 이를 공동발표하게 되었다.

» 행정타운 주변지역을 컨벤션, 업무단지, 주택 등이 포함된 첨단 복합도시로 개발

2003년 12월에 경기도와 수원시는 경기도 청사와 행정타운 입지로 선정된 이익동과 그 인접 지역인 원천동, 하동, 우만동, 상현동과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등을 포함하는 337만 평에 행정타운, 컨벤션, 첨단업무단지, 유원지, 공공시설 택지 등을 조성하는 「경기첨단·행정신도시 수원이익택지개발지구」 지정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였다. 일부 지역을 떼어서 경기도와 수원에게 필요한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 유사성을 지닌 인근 지역 전체에 대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입주 시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개발이 개발 압력을 높여 산발적인 난개발을 부르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 경기첨단·행정신도시 수원이익택지개발지구 개발 구상도(건설교통부, 2004)



### 3. 신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사업

#### ■ 신청사와 행정타운, 그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 »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 이의지구 지정

신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가 요청한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가 2004년 4월,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에 통보되었다. 건물의 연면적은 50,000평, 사업비는 5,000억원(도비 4,282억원, 지방채 718억원)으로 하되, 「지방청사 표준 면적 기준」 등 관계 규정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신청사의 이전 신축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재정의 투자방향에 제시된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에 건설교통부는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하동, 원천동과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그리고 용인시 상현동, 기흥읍 영덕리 일원 11,071㎡에 대한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 이의지구」를 지정하였다. 이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법적적 기본절차는 완료되었다.

##### »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전절차

신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재정투자 및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자 경기도는 2004년 5월, 경기연구원의 전신인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하여 「청사 이전 타당성 및 청사 규모 검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였고, 경기개발연구원은 같은 해 8월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청사의 이전은 급증하는 광역행정 수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입지 예정지는 공간, 교통, 인구의 중심지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고, 신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첨단행정서비스를 위한 비용의 절감과 지역의 구심점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요와 기능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사의 규모는 연면적 50,000평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정타운의 전체 규모는 당초 11만 평에서 13만 평으로 늘리고, 신청사의 부지면적은 당초 계획인 50,000평을 유지하되 청사의 연면적을 50,000평에서 35,000평으로 줄여 소요 재원을 5,000억 원에서 3,950억 원으로 1,050억 원을 줄였다. 이에 따른 재원은 기존 청사와 장학관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1,140억 원 일반회계 예산에서 2,092억 원, 기채를 통하여 718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도 2004년 10월에 무난히 가결 및 승인되었으며, 2005년 12월에는 건설교통부가 광고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2003년 말경에 결정된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 이의지구」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절차는 약 2년 후인 2005년 말에 모두 완료되었다.

#### ▷ 사업계획

구분	당초	변경	증감
행정타운 부지	11만 평	13만 평	2만 평
청사 부지	5만 평	5만 평	-
청사 연면적	5만 평	3,5만 평	-1,5만 평
소요재원	5,000억 원	3,950억 원	1,050억 원

#### ▷ 자원 확보 방안

구분	당초	비고
계	3,950억 원	
공유재산 매각	1,140억 원	기존 청사, 장학관, 기타 6개소
기 채	718억 원	지방행정공채회
일반회계	2,092억 원	

##### » 도민이 원하는 신청사와 행정타운을 위하여

모든 사전절차가 완료되자 경기도는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행정타운 조성사업 관계자들이 일반 동경도청사를 시찰하는 한편, 도지사가 주재하는 도청사 입지에 관한 고위 관계자 토론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 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쳐 2007년 5월에 행정타운 건립계획 추진방향을 정하였다. 이 방침은 '공공청사와 민간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개념의 신청사 건립', '도심 축을 연결하는 데크형 보행통로 및 상징적 시민광장 등 친환경적 조성방안으로 주변특별계획구역 연계 개발', '광고신도시 중심지 마스터플랜에 따른 공공청사와 민간 상업시설 등을 포괄하는 복합용도의 통합 행정타운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행정타운 건립계획 추진방침 결정 이후에도 경기도는 2007년 12월까지 6개월 간 「경기도 행정타운 건립사업 관련 도민 아이디어 공모」, 「도 행정타운 건립 관련 공청회」, 「행정타운 건립 추진자문위원회 구성」, 「아름다운 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방식 등에 대한 회의」 등을 통하여 도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그 이듬해인 2008년에도 1월에 국내 10개 기관(용인시, 천안시, 포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진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대전광역시)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 관련 국내 사례조사」, 4월에 북미와 유럽지역 14개 기관에 대한 「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 국외 선진사례 조사·연수」, 8월에 파주 출판단지외 가평 남이섬을 대상으로 한 「도 청사 건립 관련 국내 우수 건축물 사례조사」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한편, 1월에 「행정타운 건립 도민 아이디어 공모」, 2월에 전문가와 공무원 등 29명이 참여한 「도청사 건립 워크숍」, 9월에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도 신청사 건립 관련 설문조사」 등 3회의 현지답사와 3회의 설문조사 및 워크숍을 통하여 신청사 건립에 관한 도민과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10월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도의원, 관계 전문가, 언론인 등 16명이 참여하는 「도 신청사 건립 기본 계획안 보고 및 의견 수렴회의」를 통하여 '교통·주차 수요 효율적 예측 필요', '최고가치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관리 체계 도입', '경기도의 위상이 담겨 있는 건축계획', '그간 모아진 자료를 간결 구체화하여 설계지침 방향 수립', '견실한 시공과 경제적인 건축이 될 수 있는 예산 수립', '시설운영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신청사 건립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경기도 행정타운 건립 공청회(2007.07.10)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 / 사랑뉴스]

» 소요예산의 증가, 규모를 줄여 내실을 기하다

경기도가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 이의지구」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4년간 수차례의 벤치마킹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물가상승과 건축비 증가 등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정 사업비는 3,950억원에서 5,964억 9,000만원으로 2,104억 9,000만원이 늘어났으며 2007년 10월, 도의회는 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시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 8월 도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를 통하여 경기도는 총 사업비를 5천억 원 이내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그해 10월에 이를 승인하면서 “청사 관련 정부의 방침 확정 후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 투융자심사 변경 승인내역(2008.10월)

	구분	기정(2004.10월)	변경	증감
사업량	부지	119,011㎡	89,028㎡	-29,983㎡
	건물	115,700㎡	98,000㎡	-17,700㎡
	계	3,950억원	4,983억원	1,033억원
사업비	시도비	3,232억원	4,165억원	933억원
	지방채	718억원	818억원	100억원

» 경기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 시행

경기도 행정타운과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재원조달계획이 구체화되자 경기도는 2008년 11월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설계경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2009년 5월에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와 국제설계경기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설계경기는 '국제 지명 초청 설계경기' 방식으로 2009년 7월 30일 공고하였는데, 초청 건축가는 6명으로 외국인과 한국인 각 3명씩이 지명되었다. 지명된 외국인은 일본의 후미히코 마키, 영국의 리차드 로서스, 말레이시아의 켈양 등이었으며, 한국인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정영균, 공간건축그룹의 이상립, 디자인캠프 문박 DMP의 박승홍 등이었다. 2009년 11월 12일 지명된 6명의 건축가로부터 작품을 접수한 국제설계경기관리단은 기술심사와 작품심사를 거쳐 2009년 11월 27일 공간건축그룹 이상립의 설계안을 1등으로, 디자인캠프 문박 DMP 박승홍을 2등으로 각각 선정하여 공고하였다.



[국제설계경기 공모 당선작 | 공간건축그룹 | 2009]

## ■ 호화청사 논란, 도민 중심의 검소한 청사로 극복하다.

### » 호화청사 논란,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2005년도에 신축한 용인시 청사를 보고 '호화관청'이라는 취지로 부정적 평가를 내린 사실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당시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했던 경기도로서는 발등의 불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경기도는 즉시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신청사 건립계획 상의 시설별 면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그해 7월까지 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수와 광역행정수요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기준으로 최소 면적의 건축을 추진하되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증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한편, 용인시청에 대한 대통령의 '호화관청' 지적이 있는 이후 행정안전부는 호화청사에 대한 일련의 규제책을 마련하고 법제화하였다. 지방청사의 규모 기준을 정하고, 과대 청사 신축 시에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였다. 이처럼 지방청사의 호화논란이 한창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인 2009년 말에 3,200여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지은 성남시 청사의 완공은 지방청사의 호화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시중의 모든 언론이 성남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연일 쏟아냈다. 일부 도의원과 언론들은 경기도 신청사의 예산규모 4,983억 원에 대해서도 재정형편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시작했다.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호화청사 논란의 진원지가 되어 언론을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언론매체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해당 논란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경기도 신청사 건축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일부 매체는 '신청사 건축의 연기'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앞선 데 뒀던 격으로 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위기 상황에 내몰리던 때였으므로 비교적 큰 제정이 소요되는 호화청사 논란은 쉽게 여론을 주도했다.

경기도가 신청사에 대한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고 당선작을 공고한 때는 바로 이 시기였다. 그리고, 한 공중파 방송이 '당선작의 설계공모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호화청사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낸 때는 당선작 공고 후 한 달여 지난 2010년 1월 26일이었다.

### » 광고 주민들의 청사 신속 이전 요구

거센 호화청사 논란 속에서도 경기도는 흔들리지 않고 행정타운 내에 소방청사를 입주토록 하는 방안, 신청사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이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는 방안 등을 통하여 호화청사 논란을 불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청사를 신속 이전하는 대신에 기존의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2010년 5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기도 하였다. 그해 7월, 경기개발연구원은 "기존 청사 부지의 특성상 리모델링보다는 별도의 부지로 청사를 이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보냈다. 하지만, 2010년 6월 중순경부터 "도청사의 신속한 이전"을 요구하는 광고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인터넷 민원창구인「도지사에게 바란다」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경기도청사 이전은 아직도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었지만 2007년 6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광고택지개발사업은 이미 한창 진행 중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자와 수분양자들이 경기도청사의 건립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 시작된 민원은 갈수록 조직화, 집단화되어 인터넷 민원에 그치지 않고 도지사 면담, 도청 앞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집단시위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청사 이전 방침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합동 TF를 구성 운영하여 최종 방침을 조속히 확정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실제로 2010년 11월 초,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며 5명으로 구성된 TF를 약 6주간 운영하여 청사의 이전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그 후로 민원은 잦아들었다.



[광고신도시 입주민 집회(2010)]

» 도민 중심의 검소한 청사로 새출발

경기도가 청사 이전 방침의 확정을 위하여 운영한 관련 부서 합동 TF의 보고서를 토대로 2011년 5월 4일 확정된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에는 “신청사의 기본개념을 「랜드마크」형에서 도민을 위한 「열린광장」형으로 바꾸고, 예산 절감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검소한 청사로 건축하되, 공사는 2013년 6월로 예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확정 발표 후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 마디로 줄인다면, 도민 중심의 검소한 청사를 짓겠다는 뜻이었다.

신청사 건립계획을 다시 다듬어 확정된 것이 실무진에게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새로운 건립계획에 맞추어 서울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유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경기도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11년 10월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체결하였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오랜만에 순풍을 탄 듯하였다.

[신청사 기본설계 조감도(2011)]



■ 사업추진 보류, 격랑을 헤치고 다시 달린다.

» 재원조달의 불확실, 사업추진 보류, 그리고 집단민원

2012년 4월 16일에 열린 도지사 주재 「경기도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 도지사는 “도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신청사 건립사업의 추진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5,000억 원에 가까운 건축비를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기채,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그때까지 진행되는 재원조달 실태로 볼 때 그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다 여겨졌던 것이다.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추진의 보류를 위한 실무조치가 시행되자 즉시 광고신도시 입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기 시작했다. 도지사의 지시가 있는 후 불과 사흘만인 4월 19일부터 도청과 도의회의 각종 창구를 통한 민원이 이어졌으며, 광고신도시 입주민과 수분양자 수백 명이 도청 정문 앞에 모이는 군중시위도 벌어졌다. 경기도는 수 차례에 걸친 「광고 입주민 간담회」를 열고 “조속히 재정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재개하겠다.”며 설득했지만, 당시 신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 진수는 하루 평균 30건에 달했다. 급기야 7월 26일에는 광고입주민단체가 도지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8월 27일에는 입주민 단체의 일원인 「광고신도시비상대책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도지사에 대한 고소사건은 경기도의 사업재개 발표 즉시 고소인의 취하로 일단락되었지만 당시 민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신청사 이전사업의 무게감을 실감케 하는 사례들이었다.

[광고신도시 입주민 집회(2012)]



» 사업추진 재개, 다시 속도를 내다

사업추진 보류 기간이 석 달을 넘기고 민원이 찾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무진들과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청사 이전 사업추진의 보류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경기도청사의 광고 입주가 불투명해질 경우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막대한 수입의 차질과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는 반면에, 공유재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안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며, 추후에 광고신도시지역의 토지매각 이익 분담금 수입 예상액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무진들은 이러한 취지로 도지사에게 사업추진 보류를 철회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마침내 2012년 11월 8일, 설계용역의 재개를 신호로 하여 신청사 이전 사업의 모든 부문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혁신 공간 창조

2014년 8월, 행정1부지사가 주재한 신청사 건립 관련 토론회에서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공간 마련' 관련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신청사의 기능에 도민과의 소통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설계에 휴먼·소프트웨어 개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즉, '도민 소통' 콘텐츠의 공간 설계를 추가하고 해당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소통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간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였다. 그 결과, 신청사와 경기융합타운 곳곳에는 도민 소통의 공간들이 마련되었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원거리 도민을 위한 배려, 스마트오피스 및 친환경 시스템 적용 방안 등이 설계에 반영되었다.



[소통·공감 신청사건립 토론회마당(2014.09.18, 신관4층 제1회의실)]

» '놀라운 경기도청' 공공청사의 새로운 모습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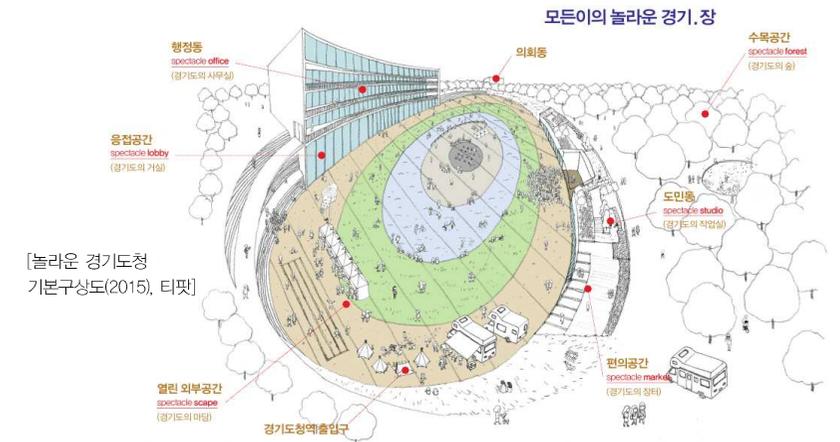
신청사와 관련한 경기도의 도민 배려는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혁신 공간 창조」에 그치지 않았다. 신청사의 성격을 지금까지의 공공청사와는 달리 도민 중심의 청사로 완전히 바꾸기로 방향을 정하고 「놀라운 경기도청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기본개념은 도청사에서 도민의 청사로, 사용 주체는 공무원에서 경기도민으로, 기능은 행정복합시설에서 주민 생활 시설로 바꾼다는 것이 주요 골격이었다. 이를 위하여 2014년 12월에는 일주일간 경기도 본청과 북부청, 그리고 도내 31개 시·군 민원실에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포스트잇 게시판을 설치하였으며, 2015년 1월에는 15일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하여 스마트오피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회에 걸친 도지사 주재 토론회와 4회에 걸친 도민 참여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2회에 걸쳐 미국과 일본의 주요 청사와 건물을 시찰하는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였다.



[도청 민원실에 설치된 포스트잇 게시판(2014)]



[놀라운 경기도청 소셜픽션 행사(여성비전센터,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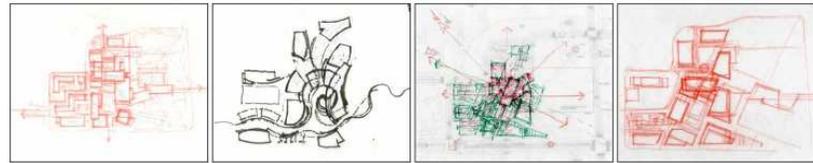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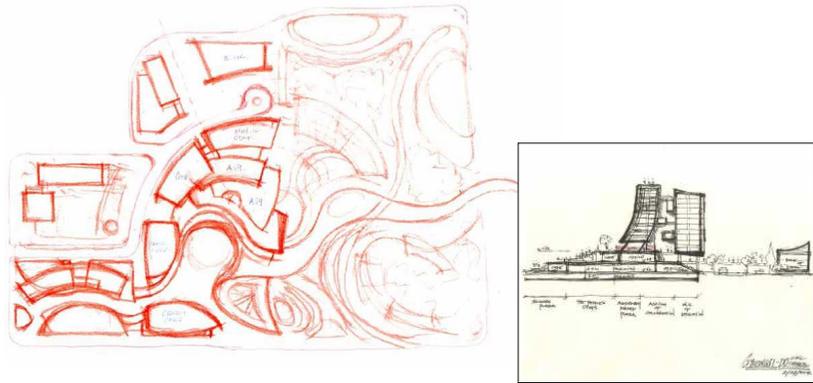


[놀라운 경기도청 기본구상도(2015, 티팻)]

■ 경기도민의 꿈을 담은 광고 청사 첫 삽을 뜨다

» 신청사, 경기융합타운으로 마지막 밑그림을 완성하다.

호화청사 논란과 재원조달의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넘고 넘어 경기도와 수원시는 2014년 9월 21일, 「경기도 신청사와 경기융합타운개발계획」에 합의하였다. 그것은 신청사와 행정타운에 대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신청사의 이의지구 이전을 결정한 지 11년 만에 맺어진 결론이었다. 그 이듬해인 2015년 7월 30일, 경기도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도 신청사 복합개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그간 몇 차례의 연구와 수많은 토론 및 여론 수렴을 거친 결과이자, 청사 신축과 관련된 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해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이어서 2016년 4월 26일에는 「경기도 신청사 및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경기도 신청사와 경기융합타운에 대한 진정한 밑그림의 완성을 의미하였다.



[경기융합타운의 비전 및 컨셉(2016년, 경기융합타운마스터플랜,Jerde)]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조감도(Jerd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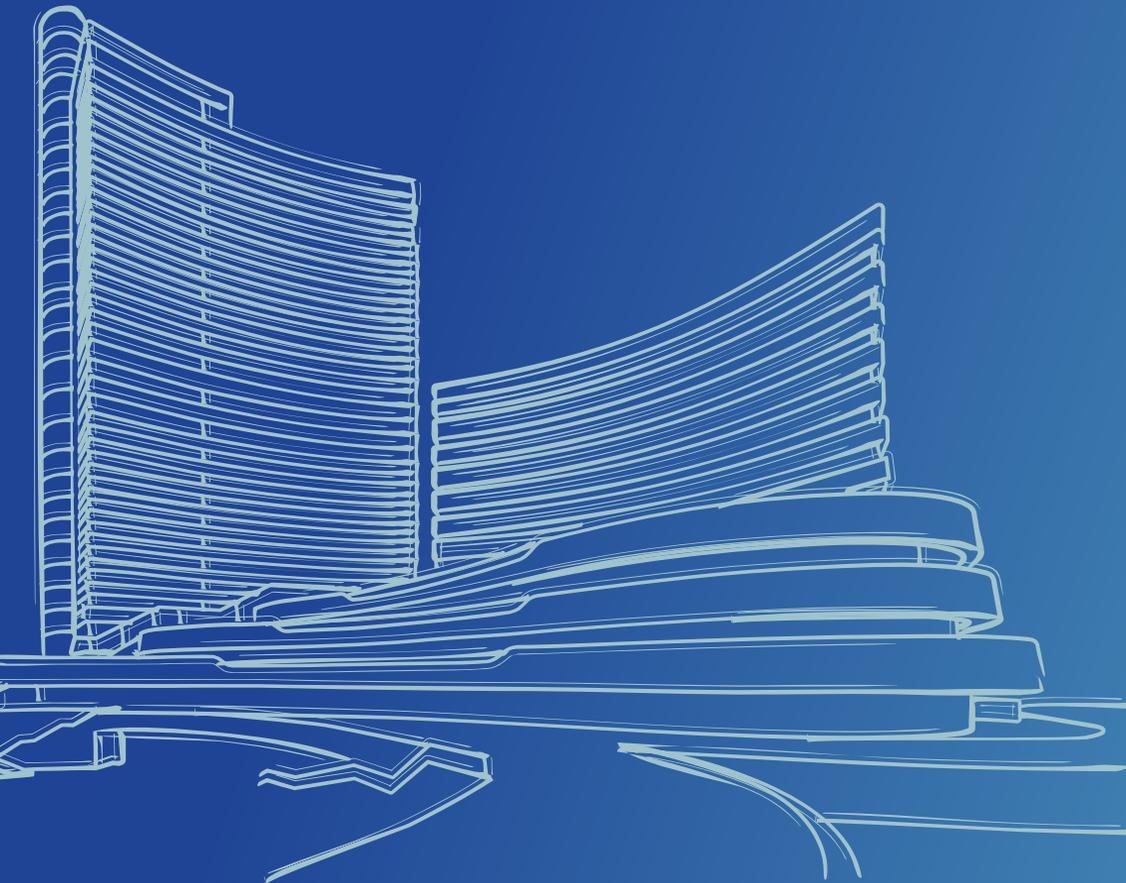


[경기융합타운 및 신청사 기공식(2017.07.15)]

» 드디어, 첫 삽을 뜨다.

2011년 10월 착수했던 기본 및 실시설계도 2017년 4월 28일에 준공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4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설계용역의 일시 정지 조치가 있었다. 전자는 '차년도 예산에 설계 관련 예산 미확보', 후자는 '사업계획 변경'이 그 이유였다. 2013년도 일시 정지에 대하여는 광고 주인의 도지사에 대한 고소도 있었으나, 이 시기에는 광고 주민들 사이에도 신청사 이전 및 경기융합타운 건설에 대한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에 대하여 신뢰와 공감대가 있었으므로 집단원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설계 준공을 목전에 둔 2017년 3월 경기도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입찰을 통하여 에너지효율등급 1++, 에너지자립률 60.2%를 제안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7년 9월 15일, 신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 경기도 청사를 통해 보는 경기도의 역사

현재 유적과 사료로 확인되는 경기도청사의 흔적은 서울 평동(현 서울적십자 병원 일대)에 있던 경기감영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초 경기도 광주와 수원에 있던 것을 세조가 도성 방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양지역으로 옮겼다고 한다. 고종 때에 수원 화성으로 옮겨갔던 경기도청사는 일제(日帝)가 왕도인 한성을 경기도 소속의 경성부로 격하하면서 광화문 앞 육조거리로 옮겨가게 되었고, 해방 후인 1964년 서울이 특별시로 승격되자 1967년에 다시 수원시 매산로 3가로 청사를 신축 이전했다. 이때까지 경기도청사의 역사에는 근대 대한민국 역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광교신도시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는 경기도 신청사는 한반도의 중심으로 도약한 경기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천년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1. 1,000년 경기 훑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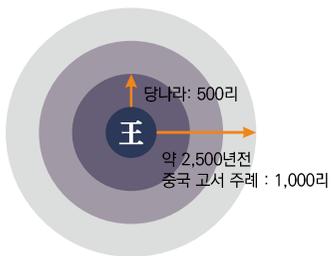
## ■ 경기의 유래

### ≫ 한반도의 중심, 대한민국의 수도권

경기도는 한반도의 젓줄인 한강을 남북으로 감싸고 있으며, 그 경계구역 안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품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함께 대한민국의 인구, 산업, 자본 및 주요 사회간접시설의 50% 이상이 집중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수도권'이라는 개념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2021년 6월 현재 인구가 1,350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0만 명을 넘는 광역자치단체이기도 한 경기도는 31개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양평, 연천, 가평을 제외한 28개 자치단체는 시(市)로서 도시화의 비중이 큰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10개 시는 인구 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기(京畿)의 유래

왕이 직접다스리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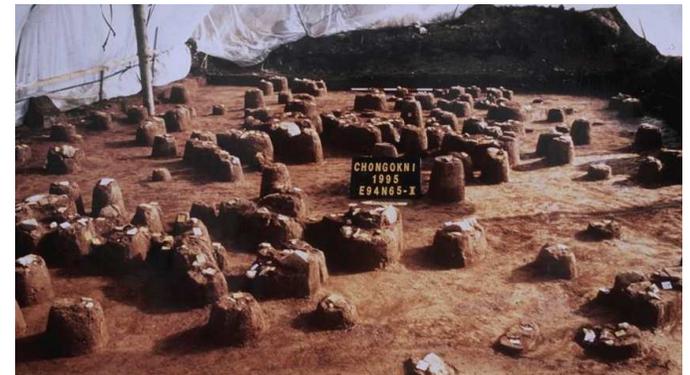
### ≫ '경기(京畿)', 예나 지금이나 '수도권'을 의미

주례(周禮)에 왕성(王成)을 중심으로 사방 1,000리 이내의 땅으로서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을 '왕기(王畿)'라고 불렀다고 한다. 당나라 때인 618년부터 907년까지는 왕도(王都)를 경현(京縣) 또는 적현(赤縣), 그 주변지역을 기현(基縣)이라 하고, 그 범위를 사방 500리로 정하였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81년부터 997년까지 재위했던 고려 성종 때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5도와 양계로 정비하면서 왕도(王都)의 주변을 '경기'로 구분하였다. 경기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1018년부터였는데, 고려 제8대 임금이 현종이 지방행정구역을 재편하면서 당시 왕도(王都)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경기도'로 명명하였으며, 이를 정식 행정구역으로 편성한 때는 1029년이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경기(京畿)'라는 이름으로 불린 곳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 시대의 중심이 되었던 곳, 오늘날의 '수도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 ■ 경기도의 탄생

### ≫ 사람 살기 좋은 곳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며,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국토의 남부와 북부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하여 일찍부터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특히 한강, 임진강 등을 끼고 있어 농사짓기와 교통이 편리하여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1978년 연천 전곡리에서 30만 년 전인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것은 경기도의 한강과 임진강 유역에 매우 오래 전부터 인류가 정착하여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한반도 역사의 중심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각축하던 삼국시대에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역사의 주도권을 차지하였다 한다. 한강 및 임진강과 이어진 서해를 통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독점할 수 있었으며, 주변에 발달한 비옥한 평야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농토와 주거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삼국은 항상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각축을 벌였으며 신라가 최초로 삼국을 통일한 때도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세계인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또한, 남북으로 분단된 지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한강 유역은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



[고구려 호로고루 성벽 유적]

» 고려의 한양 천도, 오늘날 경기도의 시작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터전으로 하는 경기도가 탄생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인 1402년이었다. 1392년 이성계에 의해 조선왕조가 개국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는 천도가 이루어지면 서 행정구역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태조의 왕위를 물려받은 태종은 재위 2년이 되던 해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경기좌도와 우도를 합쳐 경기좌우도성(京畿左右道省)이라 하였고, 1414년(태종 14)에는 명칭을 '경기'로 정했다. 지속적인 권역 조정 결과 경기도는 한양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군현이 한강과 임진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게 되었다. 8도 체계 아래 국왕과 중앙 정부가 있는 수도의 주변지역을 담당하는 도(道)로 편제된 것이다.

| 경기도 약사(略史)

- 30만년 전 ● 한강변 전곡리 등지에 인류 정착
- BC 18년 ● 백제 온조왕 위례성에 도읍
- AD 40년 ● 고구려 광개토태왕 한강변 장악
- AD 676년 ● 신라3국 통일, 신라의 영토로 귀속
- AD 1029년 ● 행정구역명으로 '경기도' 명칭 공식 사용
- AD 1402년 ● 조선 태종, 전국을 8도로 개편하며 경기도라 칭함
- AD 1894년 ● 8도제 폐지, 23부제로 개편(경기도 구역→한성부, 총부주, 공주부, 춘천부, 개성부 등)
- AD 1896년 ● 도제환원(경기감영 : 수원)
- AD 1910년 ● 서울(한성부)을 경성부로 격하하여 경기도에 편입
- AD 1945년 ● 해방과 함께 38선 기준으로 경기도 분단
- AD 1953년 ● 총선과 함께 개성, 장단 등이 북한으로 귀속
- AD 1967년 ● 도청사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



[18세기 경기도 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 2. 경기도 청사의 변천사

### ■ 경기감영(京畿監營)

지금의 서울특별시 평동 164번지 서울직접자병원 자리에 경기감영이 있었다. 경기감영은 오늘날의 도시사에 해당하는 경기관찰사가 근무하면서 예하의 지방관을 감독했던 지방관서로서 현재의 경기도청과 같은 관청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는 1395년 경기 영역을 당시의 왕도였던 개성이 아닌 지금의 서울인 한양 주변에 구축하였으며, 이어서 재위한 태종은 1402년에 전국을 8도로 개편하면서 당시의 왕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편성하였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발행한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에 따르면, 초기에는 경기감영이 수원과 광주 등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료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세조가 집권한 이후 육조직제체를 시행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성 방위의 중심인 경기감영을 도성과 가까운 곳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감영은 고종 때까지 유지되다가 고종 33년인 1896년에 수원 화성으로 이전되었다. 경기감영이 수원으로 이전된 후 이 부지와 건물은 군영과 광흥학교, 한성부 등으로 사용되었고,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고양군청 청사 및 경성감옥 분감, 서대문경찰서, 적십자병원 간호부 양성소, 일본적십자 조선본부병원 등으로 사용되면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훼손 또는 멸실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조선시대 경기감영의 설치와 이전 현황 |

태종 2년(1402)	경기감영 설치(수원)	인조 19년(1641)	경기감영 중건(한양 동의문 밖)
세종 연간	경기감영 이전(광주)	고종 33년(1896)	경기감영 이전(수원화성)
세조 연간	경기감영 이전(한양 동의문 밖)	1910년	경기감영 이전(경성 광화문 앞)
광해군 연간	경기감영 충군영 이전(영평도호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2017]



[경기감영도(삼성 리움미술관 소장, 보물 제1394호,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에서 발췌)]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하고 있는 경기감영도를 보면 경기감영은 명나라 및 청나라의 수도 북경과 연결되는 도로인 의주로의 초입에 위치하며, 의주로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 경기군영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경기감영은 수도방위의 기능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영의 정문인 포경문은 서쪽 측면에서 의주와 접하고 있으며 2층 누각의 구조이다. 감영의 중심 업무공간인 중앙의 선화당(宣化堂)을 중심으로 서쪽의 도사청은 관찰사를 보좌하는 도사(都事)의 집무처이며 동쪽으로는 관찰사의 집무처인 관풍각(觀風閣)이 있고, 그 남쪽에 행정실무 관리들의 집무처인 영리청(營吏廳)이 있으며 관풍각과의 사이에는 창고 건물인 행랑으로 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관찰사의 관저인 내아(內衙)는 관아의 출입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화당 동북쪽에 위치하며, 내아의 뒤쪽에 사당인 사우(祠宇)가 있고, 서쪽에 지역의 수호신을 모신 신당(神堂)이 있다. 또한 감영 밖 의주로를 따라 북쪽으로는 중국의 사신들을 영접하는 영은문과 모화관도 보인다.



#### [경기감영 시설배치내역]

시설번호	시설명	기능	비고
1	포경문(布政門)	감영의 정문	
2	선화당(宣化堂)	감영의 정청	
3	경기빈민교(京畿貧民館)	객사(客舍)	
4	관풍각(觀風閣)	관찰사 집무소	
5	내아(內衙)	관찰사와 가족의 생활공간	관사
6	도사청(都事廳)	도사(都事)의 집무소	도사 : 종5품, 관찰사를 보좌하는 직책
7	신당(神堂)	부군당	지역의 수호신을 모신 곳
8	사우(祠宇)	사당	
9	영리청(營吏廳)	영리의 집무소	영리 : 행정실무처
10	영은문(迎恩門)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문	감영의 외부
11	모화관(慕華館)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시설	감영의 외부
12	서지(西池)	연못	
13	경기중군영(京畿中軍營)	경기도 순영(巡營)의 본부	중군(中軍) : 지휘관

■ 광화문 시대

1910년 한일합방 직후에 시행된 지방관제 개편으로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가 경기도 소속의 경성부로 격하되자 수원 화성에 있던 경기도청은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경기도청으로 사용된 건물은 광화문 앞 육조거리(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76번지)에 있는 대한제국 내부청사였다. 대한제국 정부가 정부청사 용도로 지어 1910년에 완공한 새 건물이었지만 일제가 이를 경기도청사로 전용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서 중앙 및 지방의 재무를 총괄하던 관청인 탁지부가 작성한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1의 배치도 등을 보면 경기도 광화문청사는 벽돌조 2층 건물로, 일자형 평면 양 끝에 수직으로 날개 채가 붙는 평면 형태이다. 향은 서향으로 육조거리와 평행하게 배치되었고, 본청사 건물이 바로 거리에 면하여 정면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서양식 건물 배치방식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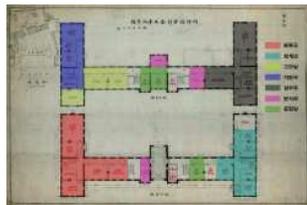
1967년 6월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자 이 터와 건물은 건설부 청사, 내무부 치안국, 서울시경 별관 등으로 사용되다가 1996년 완전히 철거되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이라는 이름의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의정부 복원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서울역사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신축 초기 경기도 광화문 청사(서울역사박물관 제공, 1911)]



[내부청사(경기도청사) 신축공사 설계도 제2호 정면도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1909~1910)]



[초창기 경기도청사 공간 이용상황(재역사기술건축연구소, 경기도청 청사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 팔달산 시대

» 서울시의 특별시 승격, 뜨거웠던 경기도청사 유치전

1964년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로부터 이탈하자 이내 경기도청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란은 바로 경기도청사의 이전 문제로 이어졌고, 이내 지역간의 경기도청사 유치전으로 비화하였다.



[건설초기 효원로 청사 전경, 1969, 경기도]

조선시대 이후 오랜기간 경기감영이 소재해왔던 수원시와 항구도시로서 경기도에서 가장 번창했던 지역 중의 하나인 인천시, 그리고 서울과 인접한 안양시까지 경기도청사 유치전에 뛰어 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1963년 12월 10일,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 통과로 모든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 대한민국 모더니즘 건축의 정수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이 결정되자 수원시는 수원역 인근의 팔달산 중턱인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번지(효원로 1)를 경기도청의 부지로 내주었고, 1963년도에 설계를 시작하여 1964년 10월에 경기도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재단법인 역사기술건축연구소의 「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진입로가 있는 남쪽을 정면으로 삼아 지상 3층 규모에 위로 돌출된 전망대 형태의 옥탑층이 있는 경기도청 본관(구관)과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계획된 일자형의 경찰국이 6m 길이의 연결다리를 사이에 두고 동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본관(구관)에서 각 층마다 외벽 밖으로 돌출된 바닥판(슬라브)과 경찰국의 낮고 긴 형상, 기둥을 기준으로 반복되는 벽체를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 수평성을 강조한 건축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본관(구관) 옥상 동쪽에서 위로 솟은 전망대 옥탑은 수평적인 건축계획과 대비되어 독특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추후 시공단계에서 경찰국 건물은 공사에서 제외되어 전체적으로 운동장의 서쪽에 남쪽을 향하여 본관이 자리잡고 북쪽에 부속건물들이 도열하는 배치 형태를 갖추었다. 1967년에 완공된 경기도 효원로 청사의 구관은 한국 건축계의 큰 흐름인 모더니즘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며,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지닌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아 2017년 8월 8일에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제688호)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건립 초기 효원로 청사 전경, 1969, 경기도]



[근대문화유산등록, 2017.8월]

» 도세 확장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효원로 청사

1964년 10월 15일 수원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경기도청사 신축 기공식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계 주요 인사들과 수원시민 등 3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부지가 팔달산 중턱에 자리잡은 탓에 팔달산의 능선을 10m 이상을 깎아 내려가면서 정지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침내 3년여 만에 경기도청사가 완공되어 1967년 준공식을 치렀다. 이후 도세가 확장함에 따라 1980년 4월에 신관이 건립되었고, 도청의 확대에 따라 1990년에 제2별관, 1992년에 의회 청사, 2008년 1월에 제3별관이 들어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청 효원로 청사(경기도, 2021.7월)]

» 북부출장소, 제2청사

의정부 경기도청사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1967년 의정부시청 별관에 북부출장소가 설치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에 따라 불편이 가중될 경기도 북부 지역만을 고려하여 경기도북부출장소를 의정부에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1967년 7월 1일, 경기도규칙 제405호(1967년 7월 1일)로 의정부시에 경기도북부출장소를 설치 개소하였고 총무과와 산업개발과를 두었다. 총무과에는 총무계, 행정계, 사회계, 보건계를, 산업개발과에는 농산계, 산업계, 건설계를 배치하였다. 북부출장소는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고양·양주·파주·연천·포천 등 5개군을 관장하고 경미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1970년 의정부시 호원동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고 이후 2000년 2월 16일 '경기도 제2청사'로 발족하였다. 2001년 12월 28일 현재의 신곡동 청사로 이전하였는데 제2청사의 명칭은 2011년 8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경기도 북부청사는 부지면적 66,116㎡, 연면적 18,585㎡로서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행정기능을 지원하고 있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1967)(의정부시 제공)]



[경기도 북부청사(2001)(경기도)]

■ 광고 시대

» 수도권의 주요 개발축인 경부축 상의 행정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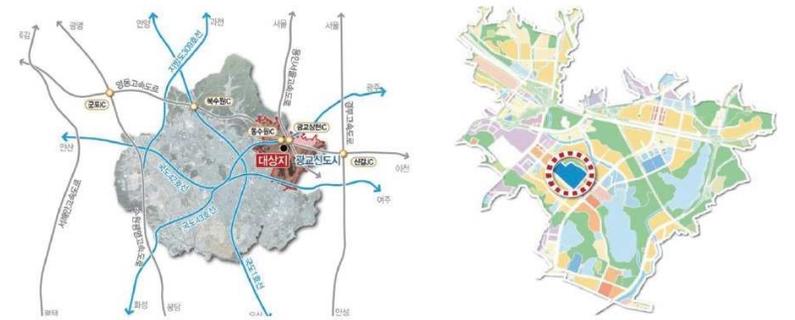
경기도 신청사가 들어선 광고택지개발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35km, 강남지역에서 2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로 수원시의 동북부이면서 용인시의 서북부와 접하고 있다. 신도시 북측으로 영동고속도로, 국도 43호선이 통과하고, 동측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측으로 국도 1호선 및 남측으로 국도 42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인접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신청사가 들어선 광고택지개발지역 인근에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밀집한 동북지역의 한 가운데 위치하여 도청사 신축만으로도 자연적인 행정타운 조성이 가능한 여건이다.



[광고택지개발지구 내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도(경기도 자료)]

» 도시의 구성요소로서 핵심적 역할 수행

경기도 신청사의 입지와 도시계획적인 위상을 살펴보면,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남부 광역행정업무 내에서 중심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산업·학교·연구·교육·행정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교통 및 환경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하철 역사 및 환승센터와의 원활한 보행동선 연계와 교통이용자들에게 랜드마크적 방향성 제시 및 도시 경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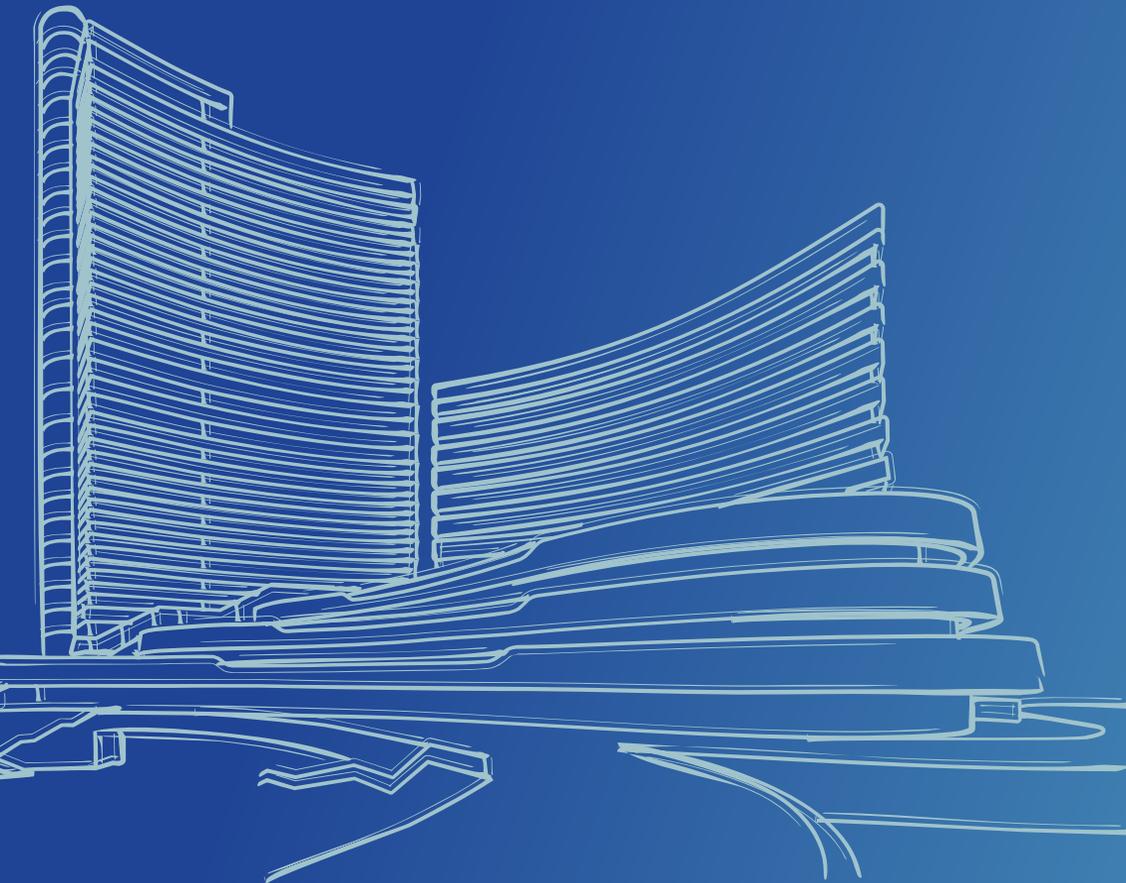
[광고택지개발지구 내 행정타운 위치도]

» 기능성, 지역적 상징성과 국제적 이미지

경기도 광고 신청사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사람의 'Λ' 형태를 건축물의 형태에 접목하여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높이고, 기존 도시와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함과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비전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수요와 사업구현에 적합한 필요 기능이 집적화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주변 커뮤니티 및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의 통합을 통해 정조대왕의 '인인화락(人人和樂)'의 정신을 보여주는 융·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였다.





## 4반세기 여정을 함께 한 사람들

경기도 청사가 광교신도시로 이전 신축된 건 1967년 광화문에서 수원 팔달산으로 옮겨온 지 54년 만의 일이다. 신축 논의가 시작된 1995년부터 보면 22년 후인 2017년에 신축공사를 시작했고, 착공 4년 후인 2021년에 완공했다. 요즘 건물 하나 짓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경기도 신청사를 옮겨 짓는 일에 4반세기를 넘겼다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하게 된다. 어떤 역사나 인간의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 흔히 항해에 비유하곤 한다. 변화무쌍한 주변 환경에 맞서며 정해진 항로를 가야 하는 배와 같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도 신청사 이전 신축이라는 길고 어려운 항해에서도 감판 밑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끝내 정해진 항로를 지켜낸 선원들이 있었음을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 경기도 신청사, 광교신도시 그리고, 경기융합타운

###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前 경기도건설본부장 / 2015.01.05.~2018.01.01.)

#### 1. 시작하며

경기도 신청사는 수많은 사연과 우여곡절 끝에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오후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상황에서 착공하였다. 그때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역대 손학규 지사가 참석하였으며, 임창열 지사, 이인제 지사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착공식이 기쁘게 진행된 이유는 20년이 넘게 지지부진 표류하던 신청사 프로젝트가 천신만고 끝에 일단락 짓게 되었으며, 광교신도시 지역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이 해소되었기 때문이었다.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남경필 지사께 감사패를 주었다. 이때 참석한 이재울 부지사 등 도청의 많은 간부는 비가 그아말로 억수로 내리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드디어 수십 년 된 도청사 이전사업이 혼돈의 종지부를 찍고 공사에 착공한다는 후련함이 있었다. 그리고 4년 반 후에 경기도 신청사는 경기도의회 신청사와 함께 지금의 모습으로 2021년 말 완성되었다. 경기도 신청사 이야기는 광교신도시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한다.

#### 2. 광교신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내가 광교신도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2002년 하반기쯤이었다.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계획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이의지구 신도시 사업을 경기도가 빼앗아 간다고 투덜대는 분이 있었다. 그분은 바로 대학교 선배님이기도 했던 당시 주택공사(지금은 LH) 박만수 부장이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50이 넘는 관료로서 이해가 잘 된다. 당시 주택공사에서는 수원의 원천호수 주변을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조사 및 기본구상을 해놓은 상태였다. 이것을 경기도 정부부지사로 취임한 한현규 부지사가 알고서, 그 자료를 기초로 경기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한편, 수원시 심재덕 시장은 1995년경부터 원천호수 위쪽에 컨벤션센터와 높은 전망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1997년 경제위기가 닥치고, 재정이 어려워지자, 수원시는 현대건설과의 협약을 통해, 일부 부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하고, 그 이익금으로 전망대와 컨벤션센터를 지어주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해결사였던 기재부 장관 출신의 임창열 도지사(임기 : 1998.7.1. ~ 2002.6.30.)는 심재덕 시장과의 이견으로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본계획 변경을 허락하지 않아, 컨벤션센터와 전망대 건립사업은 표류하게 된다. 임창열 지사는 팔달산 자락의 도청사는 확장성이 없으므로, 좋은 땅을 찾아 옮겨야 하며, 원천저수지 수변의 물이 들어오는 수구(水口)(지금의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를 적당한 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손학규 지사(임기 : 2002.7.1. ~ 2006.6.30.)와 한현규 정부부지사는 경기도 신청사, 수원 컨벤션센터, 전망대 등을 짓는 계획을 반영하여 이의지구 신도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수원시에 제안하여 합의를 끌어 냈다. 그때가 2002년 말경이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끌탕을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 동안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는 정책학석사를 따고, 미국 Rutgers 대학에서는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를 취득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경기도청에서 중요한 도시계획 결정이나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다.

2004년 말이 되어, 귀국 시점에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 모셨던 박명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건설과에 와서 도로 업무를 함께 해볼 것을 제안받았다. 곧 과장급으로 승진해야 하는데,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로 업무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승진을 위해 보직 관리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하는 시점이므로, 2004년 6월에 신도시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광교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신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도 경기도입니다. 지금까지의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신도시가 베드타운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정성을 다해 제대로 된 신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에, 박명원 과장님은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추천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2005년 1월에 신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광교신도시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당돌한 젊은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박명원 선배님께 감사드린다.

#### 3. 광교신도시 프로젝트의 씨앗 : 경기도 신청사와 수원 컨벤션센터

광교신도시 사업을 맡고 보니, 그 안에는 경기도 신청사와 수원 컨벤션센터가 있었다. 그것은 조개 속의 진주와 같았다. 신도시 사업에는 참으로 부담되는 애נד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신청사와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재원을 감당해줄 법적 메커니즘이 없었다. 수원시는 현대건설과의 협약을 유지하며, 컨벤션센터와 전망대를 짓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부지를 원형지로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택촉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으며,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가 커서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수원시와의 갈등이 촉발되어 사업추진은 난항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김문수 지사(임기 : 2006.7.1.~ 2014.6.30.)는 당선된 인수위 시절부터 경기도 신청사를 광교로 이전 건립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혈세로 도청사를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신청사 건립사업은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사 설득이 어려워지자, 주거대책본부 신도시개발과(박성권 과장)에서 이 사안을 담당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안은 도시 정책적 설명이 필요하므로 자치행정국이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부서에서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도시사와 정책특보(3명 정도),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주거대책본부장 등 실·국장, MP 위원(이우종 교수, 김철홍 교수, 이승일 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날짜가 잡혔다. 2006년 7월 21일이었다. 결전의 날이 잡힌 것이었다. 경기도의 최고의 명재상이라고 칭송받는 정창섭 부지사는 지사 선거가 있기 전부터 신청사 이전사업이 쟁점이 되리라는 것을 헤아렸는지, 일본 동경도청사를 미리 방문하는 등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너무나 낡고 협소한 도청사, 커지는 경기도정 등을 생각하면서, 일본의 도쿄의 신청사를 보면서 신청사 이전사업을 힘차게 추진해도 될 것인지 힌트를 얻기 위해 방문했던 것 같다. 그런데, 결국 쟁점이 되었다. 토론회에서 무너지면 광고신도시도 혼란을 맞이하게 되고, 경기도 행정의 집이 성장의 한계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뱀이나 게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 성장을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신임 김문수 지사의 브레인이라고 알려진 특별 보좌관 이한준 박사과 좌승희 경기연구원장을 방문하여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우려되는 사항과 반대하는 이유를 여쭙었다. 반론을 하기보다는 일단 적군의 의견을 염담한 것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지출, 호화청사, 과전정부중합청사 이용가능성, 팔달산 청사 이용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이유였다. 반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파워포인트 자료 뒤에 붙였다. 발표 자료는 30페이지, 반론자료는 70페이지 정도나 되었다.

결전의 회의 시간이 되었다. 김문수 지사는 회의 시작 인사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광고신도시에 경기도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도민들의 생활이 궁핍하고 힘든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공무원을 위한 청사에 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듣고 다시 판단해보겠습니다"

관료들은 상사의 의견에 반하여 말하지 않는 것을 기본 도리로 생각한다. 그래서 부지사, 기조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본부장 등 실·국장 간부들은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 일단, 담당 팀장으로서 발표를 진행했다. 수원시와의 협약을 기본으로 하여 도청사와 수원컨벤션센터가 광고신도시 사업계획의 근간이라는 점, 도청사가 이전하지 않으면 광고신도시 계획이 무너진다는 점, 도청이 수도권 남부의 업무 핵으로 작동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곧이어 이한준 특보, 좌승희 원장의 반론과 공격이 이어졌지만, 미리 준비된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반론 PPT 자료 페이지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방어를 잘 해냈다.

이것에 힘입어서, 광고신도시 계획의 입안자였던 고(故) 운영태 교수는 "광고신도시에 경기도 신청사는 광고신도시 사업의 근간이며 경기도 남부의 비즈니스 거점을 형성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광고신도시 MP(Master Planner)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우종 교수는 "광고신도시의 구상 초기부터 경기도 신청사는 계획의 핵심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에 와서 도청사 이전 계획 결정을 철회한다면 광고신도시의 모든 계획은 붕괴하고 무너질 것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철회한다면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나는 더 이상 광고신도시 MP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입을 열었다.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 추진하기로 하자. 기왕 할 것이라면 제대로 하고, 서둘러서 하자"고 했다. 그제야 근심이 가득했던 정창섭 부지사, 황준기 기획조정실장, 박명원 주거대책본부장의 표정에 화색이 돌았다. 역사의 고비를 넘는 순간이었다. 광고신도시의 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2006년 10월에는 신도시개발과에서 독립된 광고개발사업단 부서가 신설되었다. 광고신도시 사업과 함께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도 함께 담당하는 부서였으며, 나는 이를 담당하는 단장(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1994년에 기술고시에 합격하고 처음 승진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2006년 2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광고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연화장 순화원에 아버지를 모셨는데, 아버지를 찾아뵙고 승진 소식을 전하였다. 벅찬 순간이었다.

하지만,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고비는 계속 찾아왔다. 2007년 성남시와 용인시 신청사가 호화청사로 언론의 질타를 당하고, 국가 경제가 침체되자, 김문수 지사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철회는 하지 않았지만, 보류하는 입장을 취했다. 국민을 최고의 어른이며, 당신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김문수 지사는 "국민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머슴들이 어떻게 주인의 돈으로 머슴 집을 짓는단 말인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 따라서, 도청직원들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광고신도시 사업이 휘청였다. 사업추진은 더욱 아득해졌다. 김문수 지사는 광고신도시 사람들로부터 사기 분양이라는 고소를 당하면서도, 경기도청 이전사업을 퇴직하는 2014년 6월까지 보류하였다.

#### 4. 경기도 신청사 프로젝트의 재시작

남경필 지사가 2014년 7월 1일 취임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청 이전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기에 이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었다. 당시 박수영 부지사는 2014년 말에 의왕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필자에게 "광고신도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 당신이 도 신청사 건립사업을 해결하면 어떻겠느냐"며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나는 광고신도시의 경기도 신청사 프로젝트를 좀 무서웠다. 2008년 말경에, 도 신청사 프로젝트 보고를 앞두고, 심근경색증상으로 아주대학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다. 또한 신청사 건립업무를 담당하던 이목영 행정타운팀장이 2009년 초에 현직에 있을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는 내가 세상에서 만난 일만 고시 출신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수원공고 건축과 출신이었지만, 그의 성과는 대단했다. 그토록 복잡했고, 모두가 두려워했던 판교테크노밸리 공모사업 심사기준을 만들고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판교테크노밸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다니. 어떠한 저주가 있는 것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2013년경에 뛰어나고 열정적인 모 팀장이 특명을 받고 신청사 건립프로젝트를 맡아서 열성적으로 추진하다가, 또 쓰러졌다는 소식도 들었다. 땅의 기운이

경기도 신청사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러한 와중에 신청사 프로젝트를 맡는 것은, 호랑이 굴에 스스로 기어 들어 가는 바보처럼 느껴졌다. 내 아들이라면 말렸을 것이다. 하지만,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다. 광고의 매듭을 꼬이게 만들었다면, 도 신청사 건립이라는 꼬여있는 매듭을 푸는 것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도 청사만을 남겨놓고 광고신도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마당에 '눈알이 없는 모나리자' 그림을 그대로 남겨놓을 수는 없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일 잘 아는 내가 경기도 신청사 사업을 맡는 것이 맞다. 사리사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지신(地神)이 알아줄 것이므로, 어느 정도 용서될 것이다. 내 욕심은 거두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도 신청사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2008년 말 광고신도시 사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경기도시공사로 파견요청이 있을 때도 과감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정이었다. 1)

1) 2008년에 리먼 사태로 광고신도시 사업이 재무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한준 사장이 '사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시공사로 파견을 나와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함께 풀어가자'라고 제안하여, 광고사업본부장으로 나갈 때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나아가 사업에 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이재물 실장이나 조청식 과장은 현장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결사반대의 입장이었다. 고시 선배의 애정이 여린 충고였다. 하지만 나는 "내가 현장에 나가 공사발주하고, 사업계획을 다루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도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겠는가? 당당하게 일하면, 파면당하는 죽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실수로 팔다리라는 일은 정계는 있을 수 있다. 과거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의 운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것에 비하면, 이러한 리스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책임을 담담하게 다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에 두 선배는 "그 정도의 각오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잘 다녀와라."라고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실제로 18개월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고사업본부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은 힘들었지만, 하나의 정계도 없이 도시공사 직원들과 많은 일을 처리하며 광고신도시의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 5. 경기도의회의 의미 있는 반대

도지사가 신청사를 강하게 추진한다 해도 도의회의 동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도청 일이다.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에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변수였다. 당시 남경필 지사(새누리당)와는 반대 당인 민주당이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이 어려웠다. 2014년 11월 27일 박용수, 김지환, 김상돈, 김종석, 최재백, 민경선 등 경기도의회 건교위 의원 6명은 신청사 건립비 재원 조달을 위한 210억 원 지방채 발행 요청에 대해 '빛을 내서 도청사를 짓는 방식은 반



[경기도의회 건교위 '빛내서 호화청사 짓는 것은 안 된다'라는 성명 발표(출처 : 오마이뉴스 기사, 사진 이민선)]

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광고신도시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하고, 도지사는 짓겠다고 하고, 도의회는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채 활용을 반대하고 있었으며, 도청직원들도 이전 반대가 더 많았다. 예산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은 미국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나를 2015년 1월 1일자로 건설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도 신청사 이전사업'을 맡겼다. 원래 건설본부는 사업계획과 예산이 이미 확정된 도로, 하천, 박물관, 소방서, 미술관 등의 공공 건설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경기도 유사 이래 가장 민감하고 사업비가 가장 큰 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설계, 공사발주, 공사감독 등 모든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의견도 다르고, 돈도 없는 상황이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다.

## 6. 네모를 동그랗게 그려라. 해답은? '복합청사'

사업비와 관련하여 다수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2014년도의 사업비(약 4천억 원) 조달 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기본적으로 도유재산을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되, 당장 팔기는 어려우므로, 이미 금고(통장)에 들어있는 지역개발기금 2(당시 1조 6천억 원 정도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연리 약 2%를 지불하고 있음)을 우선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2014년 11월에 이미 김종석, 민경선 등 경기도의회 건교위 의원 6명은 신청사 비용을 빛(지방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빛내서 짓는다면, 생색은 현지사가 내고, 부담은 후임 지사와 후손이 갖게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반예산을 활용한다면, 지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도민을 위한 다른 일을 못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이었다. 호화청사 논란이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의 청사를 일반예산으로 짓는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래서, 공공청사 건립프로젝트는 '정치인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일본의 동경도청사도, 서울시 신청사도 40여 년 표류하였다. 정부에서는 '지방청사면적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래서 항상 낡고 작은 것이 지방의 공공청사이다. 행정이 통하지 못하고 임대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며, 짓자마자 사무실이 부족하다. 엄청난 임대료를 매년 지불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아끼는 척하다가, 뒤로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2) 지역개발기금이란 시·도지시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자동차 등록, 토지형질변경 및 골프장 인허가 등록, 공사도급 계약 등에서 지역개발 채권(6년 거치 일시 상환, 연리 2%)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그 판매대금을 기금(Fund)형식으로 적립하고 도로, 철도, 도시개발 등 지역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제도)이다. 경기도의 경우 그 규모가 당시에 1조6천억 정도 되었다. 이것이 채무이기 때문에, 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활용하기를 꺼렸다. 그냥 이지만 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활용하지는 것은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합리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매도되기 쉬운 구조였다.



[네모를 동그랗게 그려라. 압제적 사고가 필요하다.]

네모를 동그랗게 그려라. 이런 경우가 세상에 많다. 네모의 귀퉁이를 동그랗게 하면, 이것은 원도 네모도 아니다. 하지만, 원기둥을 생각해보자. 원기둥은 위에서 보면 원이고, 옆에서 보면 네모이다. 입체적으로 사고하면 모순적인 요구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시간까지 고려하면 4차원 발상이 나오기도 한다.

도청사를 짓는데, 돈 들이지 말고 짓는 방안이 필요했다. 네모의 귀를 동그랗게 하듯이, 돈을 아껴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3차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나에게서는 10여 년 전부터 생각해보던 복안이 있었다. 그것은 도청과 도의회뿐만 아니라, 민간의 주거, 상업, 업무 시설 등을 도입하여 수익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거나 재무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2007년에 '공기업 특별회계 조례'까지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서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호화청사가 우려된다며 금지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복합개발 전략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게 되었으며, 신청사 사업도 표류하게 되었다. 2009년 1월에 나는 리먼 사태로 어려워진 도청에서 경기도시공사 광고사업 본부장으로 파견 나가서 광고신도시 사업 위기 극복과 사업 개선에 전력하였던 것이었다.

2015년에 6년 만에, 도 신청사 건립 미션을 다시 받으면서 복합청사 전략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2014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재정 절감 방안을 장려하는 사회가 된 것이었다. 신문에서도 복합청사로 재정부담을 경감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일본 사례를 칭찬하는 기사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다. 15년 1월 1일자로 건설본부장이 된 나는 남경필 지사에게 이러한 방식을 통해 대한민국 공공청사 건립사업의 신기원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조선일보(2014.11.25.)에서 취재한 민관 복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일본의 사례 기사도 보여주었다.

지사에게 이러한 사업방안을 보고하였을 때, 남경필 지사도 민관 복합청사에 대하여 매우 반겼다. 당시 남경필 지사는 업무를 잘 해내는 부서를 선정해서 피자를 돌렸는데, '이 복합청사 프로젝트는 정말 멋진 프로젝트이다. 전임 본부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임 본부장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제안해주니 너무나 반갑고 기쁘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건설본부는 피자에서 해임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며 매우 기뻐하였다. 남경필 지사가 복합청사 건립방식에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이전부터 이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쁘고 다행이었다. 이러한 복합청사 방식은 세금을 아낄 뿐만 아니라 도시와 시민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후행하는 신청사 프로젝트에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한 역사적인 사명감이 들기도 했다.

일본의 자치단체의 예산 절감형 신청사		
방식: 패고 부지 등 구청 보유 토지 장기임대	패점 백화점 무상 임대	패점 백화점 무상 임대
예산: 평균 포함 신축 예산 400억엔 절감	개보수 비용 29억엔, 신축 공사비 절반 수준	개보수 비용 30억엔, 신축 공사비 절반 수준
운영: 1~2층 주민편의시설, 3~9층 구청, 11~49층 임대오피스	1층에 백화점 유치해 임대수익	영화관을 시의회 회의실 등으로 개조, 1층에 수퍼·미용실 등 임대 수익

[일본의 예산 절감형 신청사(출처: 조선일보 2014.11.25., 차학봉 기자)]



[남경필 지사(재임 2014.7.1.~2018.6.30.)]



[경기도 신청사 부지(2014년, 12만㎡)]

## 7. 경기도의회의 지지 : 권고안과 조례

도의회에서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엘리트 도의원에는 양근서 의원(당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과 김종석 의원(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있었다. 이들의 특징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정치와 행정의 발전을 꾀하는 소위 도의회의 급발진 브레인이었다. 그만큼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에게는 까칠한 인사로 통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복합청사 건립방식을 제안하였더니, 가능성을 공감하면서 민주당과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2015년도 3월 18일에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경기도청 이전사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통해서, 지방채를 활용하기보다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 청사보다는 복합청사 방식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신청사 건립 자원 조달 방안 대책 토론회(예산결산위원회, 2015.3.18.)]



[경기도 신청사 자원 조달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준 김종석의원(좌)과 양근서의원(우)]

이를 이어서, 2015년 4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건설교통위원회소속 김종석 도의원(새정치, 부천6)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자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경기도지사에게 도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 첫째) 특별회계, 기금,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신청사 자원 조달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 둘째) 복합개발, 민간자본 유치, 매각 대상 공유재산의 공공개발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자원 다원화를 검토할 것
- 셋째) 건설본부는 사업을, 기획조정실은 자원 조달을 담당하는 신청사 추진 조직을 정비할 것. 등이었다.

또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하여 15년 6월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고 운용하는 체제를 규정하였다. 사업비의 재원은 일반적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뿐만 아니라, 복합개발에 따른 수익금과 도유재산의 토지보상금(손실보상금)도 포함하여 자원 확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신청사 건립비를 차곡차곡 적립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난 진전이었다.

비록 지방채를 활용하여 신청사 건립에는 결사반대하였으나,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복합개발방식을 앞장서서 권고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조례까지 발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고안과 조례안은 소관 건설교통위원회와 본회의를 원만하게 통과하여 의결되었다. 큰 틀에서 돌이켜보면, 김종석의원과 양근서의원의 진보적인 지원이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경기도 신청사 프로젝트의 돌파구(Breakthrough)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복합개발 사업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게 되었다.



[복합개발 권고안과 조례가 통과된 이후, 경기융합타운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되었다. 남경필 지사와 관계자들의 논의가 경쾌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회의 분위기가 좋았다. 벽이 없고 진지하고 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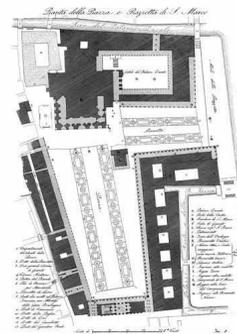
이에 따라,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복합개발 사업방식으로 급선회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얻게 된다. 과거에 안양시 신청사를 100층 규모의 복합청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언론으로부터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고, 당시 이필운 시장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였던 선례가 있었다. 그래서 복합청사 방식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서 추진하기 어려웠는데, 도의회에서 재정 절감을 위해서 복합청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조례까지 발의해 줌에 따라, 정치적 부담도 없고, 재원을 쌓아나갈 행정적인 길도 열어준 것이었다.

결국, 도의회 김종석의원은 여야의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역사적인 진전을 위하여 선진적인 복합청사 개발방식으로서의 정치적인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입법부(정치)는 행정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역사의 진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된다.

## 8. 경기융합타운의 의미 : 정보결절점(거버넌스의 길, 지식사회의 경쟁력)

복합개발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광장이 가장 중요하다. 유럽 도시발전의 중심은 현지의 상징인 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고 경기도 신청사 광장은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을 모델로 하였다. 여객터미널을 향하여 열린 기역자(ㄱ) 모양의 광장 주변으로는 성당과 궁전, 도서관, 상공회의소 등이 밀집하여 도시를 함께 다스리는 협치 중심(Governance Center)을 형성화한 유럽광장의 진수였기 때문이었다.

최근 도시이론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정보 결절점(Information Node)이라고 본다. 이곳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많이 만나게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이 생겨나며, 이것들이 비즈니스, 행정, 정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사회의 경쟁력을 높인다. 산업사회에서도 광장의 역할은 중요했지만, 지식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정보 결절점은 산속에서는 효율이 낮고, 역, 항구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교통의 결절점이 유리하다. 산마르코 광장이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다. 광고중앙역도 거버넌스의 중심이며, 정보 결절점이 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판단되었다. 반면에 수원 팔달산 자락의 경기도 신청사는 사람들의 접근이 불편한 곳이라서 정보의 결절점이 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되어 도청사 이전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경기도 신청사가 과거와 같이 산자락이나 경치 좋은 물가에 배치하지 않고 역 중심에 입지한 이유이다. 도 신청사의 입지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검토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논거를 받아들여 기존의 공공청사와는 달리 역 중심에 입지하게 된 것이었다.



[산마르코 광장의 모습과 평면도 : 광장은 성당, 궁전, 상공회의소,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좁은 광장 귀퉁이에 서서 겸손하게 상징성을 부여하고, 교통의 결절점(여객터미널)을 향하여 열려있다.]

정보결절점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회발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항상 모이고 가능한 한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기관이 모여들고, 술과 밥을 판매하는 상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복합이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2004년 미국 럿거스대학 도시계획 석사과정에서 'Sustainability and Cities(지속가능성과 도시), 저자 : Peter Newman & Jeffrey Kenworthy' 라는 책을 통해 배운 감동적인 이론이었다. 금상첨화로, 복합개발방식을 도입하면, 개발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었다.

만약에 경기도 신청사 부지를 단순 청사로 건립한다면, 정보의 결절점 기능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정보 소통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도청이 없이, 상업에게 도청사 부지 공간을 제공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정보결절점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곳에 상업을 기본으로 깔고, 정치(도의회), 행정(도청), 교육(교육청), 문화(도서관), 경제(신보, 도시공사) 등을 보탠다면 민간 상업 정보결절점보다 훨씬 강한 소통의 광장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도청사를 역세권에 입지시킨 것이었다. 2007년부터 복합개발 방식을 강하게 추진하였으나, 보수적인 정책이론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과에서 불허하여, 재정적인 장애물에 부딪혀서 추진을 못하였던 것이다. 단순 청사로 진행되었다면 엉망이 되었을 것을, 다행히 추진이 못 되다가, 리먼 사태 이후에 비로소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모멘텀이 정책적인 변화를 일으켜 복합개발방식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역사적인 행운인 것 같기도 하고, 운명인 것 같기도 하다.

## 9. 경기융합타운 계획 발표와 반대 의견

어렵게 어렵게 역사적인 운명을 지나 복합청사 방식으로 경기도청과 도의회가 합의했다.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7월 30일 남경필 지사는 복합개발을 통해 빛내지 않고 건립 재원을 마련하여, 도민과 함께 신청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도 함께 이전하는 방안도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고 시민들이 강한 반대를 하였다. 도청이 복합개발 방식으로 들어오면, 주상복합, 오피스텔, 호텔 등으로 신도시가 망가진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이냐?"라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토록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어 어렵게 어렵게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광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매우 극단적으로. 마치 어떠한 대국(賣國)처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원시에서도 복합개발수익금으로 도청사를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개발이익금에 대한 깊은 혐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물리학에서 마찰력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생기지 않지만, 움직이면 생긴다. 방향은 상관없다.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면 마찰력이 생긴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이끄는 리더는 고달프다. 그것은 숙명이다. 그래도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 고생을 해서 마찰력을 극복하고 일을 해내야 한다. 그때는 그러한 고생이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일꾼으로 선택된 것 자체가

행운이다.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영광은 덤이다. 또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반대와 마찰력은 나와 프로젝트를 성장시키는 영양분과 같은 고마운 요소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15년 7월 30일 강북구 도의회 의장, 김원찬 경기도 부교육감, 광고주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뒷 배경은 일본 도쿄의 미드타운으로서, 당시 복합개발 사업 방향의 롤모델이었다. 개략적으로 만들 어낸 조감도는 오른쪽과 같았다.]

광고주인들에게 '복합청사 방식이 불가피하며, 더 나아가 단순 청사 방식보다 더 좋은 것'을 이해시키야 했다. 주민 대표들은 대화가 어려웠다. 이때 주민들을 설명해주고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생각이 들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고객에게 설명할 수 없어 답답했는데, 설명회를 개최한다니 매우 반가워했다. 15년 8월 13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홀에서 대략 100여 명의 중개사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별히 박수영 부지사가 참석하여 복합개발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이계삼 건설본부장이 직접 급하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고, 설명하고, 질문답변을 하였다. 2005년에 광고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경기도 신청사 부지는 복합용도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2007~8년 사이에 복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조례'까지 제정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과에서 반대하여 허가받지 못하여 중단하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광고중앙역에 광장을 중심으로 여러 관청과 상업시설이 혼재하여 거버넌스센터를 형성하고, 정보결절점의 역할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공학적인 전략과 이론도 밝혔다. 재무적인 안정성과 정치적인 합의를 위해서도 재원을 염출하는 복합개발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상황도 설명하였다. 끝날 때쯤 솔직한 감회를 밝혔다. "아젯밤에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노래 한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 소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수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가지'라는 노래입니다." 박수받으며 서투른 노래를 불렀다.

경기도 신청사가 단순 청사로 지어질 바에는 다음 세대에 기회를 남겨주기 위하여 지어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단순 청사는 지어지지 않았으며, 기다리고 기다려서,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드디어 복합청사로 짓게 되었다는 기쁨이 있었다. 그것은 광고신도시와 경기도 신청사의 운명이며 사명이기도 했다.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안 울지 몰라,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결~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날~ 만났다는 건~ 외롭던 날들의 보상이니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공인중개사협회 강연]

이것을 우리는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감정을 노래한 것이었다. 진심이였다. 진심이 통해서인지 90% 이상의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은 설문에 복합청사개발 방식에 공감하여 주었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광고 입주인 연합회는 복합개발 방안에 대하여 동의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단지별로 설명해야 했다. 경기도건설본부 융합타운추진단에서 30여 개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 "찾아뵙고 도청 이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했다. 자연&힐스테이트, 광고마을 40단지 등 4곳 정도의 아파트가 설명을 듣겠다고 화신해 왔다. 대부분 발표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매국노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으나, 40분 정도의 PPT 설명을 듣고 나면 공감과 신뢰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진심은 통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네이버 밴드 광고마을 카페에 건설본부장이 직접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하였다. 댓글 질문에 답을 달며 신뢰를 얻어갔다. 상황설명을 한번 올리면 댓글 질문이 100여 개씩 올라왔는데, 고마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드렸다. 주민들이 안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복합개발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어 갔다.

수원시에서 광고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도 신청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신도시 공동사업자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의 합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개발이익금에 대한 분배도 심도 있게 재논의 되었다.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각고 끝에 다행히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합의 후에 15년 9월 21일 핵심 2기관의 장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이 '경기도 신청사 및 광고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공동발표 하였다. 이때, 경기도에서는 박수영 부지사와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이, 수원시에서는 이재준 부시장과 곽호필 도시주택실장이 매우 수고했다. 도와 수원시는 신청사 예정 부지 11만8,218㎡ 가운데 복합개발 부지 2만6,500㎡ 중 1만7,000㎡를 용·복합단지로 개발하되 주거 기능을 최소화하고 업무기능은 최대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약 1만㎡는 공공업무단지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이것으로 인해, 경기도시공사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입자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도, 수원시, 용인시는 광고신도시의 명품화를 실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복지, 체육, 전시시설 등 공공기능에 균형 있게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

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광고지구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이 '경기도 신청사 및 광고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공동발표 하였다. 수고한 이재준 수원 부시장과 박수영 경기도 부지사도 참석하여 함께 기념 촬영하였다.]

### 10. 시민과 함께 계획하다 : 100인의 시민위원회

시민들과 함께 건립 방향을 잡아나갈겠다는 남경필 도지사의 뜻에 따라, 당시 박수영 부지사는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만들고, 경기도청 이전계획을 논의하며 의견을 모아나갔다. 시민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수원시와 용인시에서 추천받은 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집한 후 광고 거주자 70명, 그 외 거주자 30명을 무작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15년 12월 23일 위촉하였다. 박수영 부지사는 경기도 광고 신청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영감, 아이디어, 조직보강, 인사, 예산, 후생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의왕 부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에게 2~3번이나 방문하여 오찬을 대접하면서 경기도 신청사 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고, 건설본부장으로 임명해주었다. 세계적인 멋진 도청사, 도서관, 잔디광장을 만들도록 선진국의 많은 사례와 영감을 불러 넣어 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성으로 로드맵을 짜고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신청사 프로젝트가 돌파될 수 있도록 도와준 히든히어로(Hidden Hero)이다.

시민위원회는 박수영 부지사의 애정 덕분에 15년 해를 넘기지 않고 서둘러 위촉하여 열렸다. 100인의 견해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외에서 봐오던 멋진 건물이나 문화유산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공간을 가꿔보자는 것이었다. 도청사, 도의회, 도 교육청, 대표도서관 등등이 거론되었지만, 확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도 하였다.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과 건축계획은 병행하며 진행되었다. 16년에 취임한 이재율 부지사는 시민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공무원스럽지 않게 하겠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청사를 구상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며 특별한 감화와 큰 포부를 밝혔다. 시민위원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역사발전의 동반자가 되었다.



[오른쪽 사진은 광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사 건립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100인의 시민위원회 개최 모습(2016.4.26.) 경기도청사의 과거, 현재, 미래 등 역사와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며 함께 꿈꾸는 자리가 되었다.]

2015년 가을에는 수년째 신청사 부지를 둘러싼 흉물스럽던 펜스를 허물고, 잔초를 걷어내고, 청보리 씨앗을 뿌렸다(15.10.16). 신평초등학교는 수원행궁 신평문 옆에 있던 초등학교로 개교가 1896년이다. 경기도 최초의 신식학교였으나, 구도시의 취학생 부족으로 폐교하게 되어, 광고신도시로 옮겨온 유서 깊은 학교이다. 화성이 완성된 1796년 정조대왕의 신평루는 개혁으로 새로운 풍요를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이 100년 후 초등학교 이름에도 그 뜻을 이어 왔으며, 광고신청사의 미래를 기약하는 어린이들이 씨앗을 뿌려 더 크고 새로운 풍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평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청보리 파종 행사를 하였다. 선조의 마음을 이어 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겨울부터 보리씨가 올라오더니 도심 속의 평화로운 청보리밭이 펼쳐졌다. 시민들이 보리밭을 거닐 때, 윙윙하 작곡 보리밭 노랫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보리밭에 울려 퍼졌다.



[청보리 씨앗 파종]



[인근 신평초등학교 학생 파종 행사. 오른쪽에 현수막을 잡은 사람은 장현국 도의원이다. 경기도의회 의장(2020~2022)이 되었다.]



[개혁을 통해 새로운 풍요를 가져오겠다는 정초대왕의 마음을 담은 신풍루(新豐樓)]

시민들이 감격했다. 갈등과 소송이 난무하던 식발과 분통의 공간이 기적과 같은 화합과 축제의 공간으로 바뀐 것이었다. 그곳에서 경기도 신청사 100인의 시민위원회가 열렸다. 시민위원들은 신청사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축제의 보리밭을 보면서 기쁨에 넘쳤다. 16년 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입체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한 복합개발 계획이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에 대한 반론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그 우려를 잠재울 수 있었다. 시민과의 화합은 참 힘이 세다.

16년 6월에는 청보리 베기 행사를 신풍초등학교 학생들과 했다. 유시유종(有始有終). 어린이들은 청보리의 씨뿌리기, 수확을 통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쉬운 이치를 깨닫길 바랐다. '경기도 신청사 건설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16년 봄, 이재율 행정1부지사(가운데)가 주재하는 100인 시민위원회가 보리밭에서 열렸다(뒷줄 왼쪽 7번째가 부지사이며 그 오른쪽이 오원석 도의원이다). 사진의 오른쪽 첫 번째가 윤성진 융합타운추진단장(후에 건설본부장이 됨)이며, 왼쪽 첫 번째가 김남기 팀장(후에 하남시 부시장)이 됨이다. 왼쪽에서 세 번째는 이오수 단장(후에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됨이며 왼쪽 끝 열한 번째는 이덕재 회장이다. 김사를 표하고 싶은 경기도 신청사 사업의 시민 주역들이다.]



[16년 6월 청보리 베기 행사(굿모닝 행복 산책로)]

2016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코스모스 씨앗을 뿌렸다. 코스모스가 너무 늦어 지나 걱정했는데, 코스모스는 더욱 크고 진하고 향기롭게 그 자태를 드러냈다. 축구장 18개에 달하는 넓은 면적 12만이 코스모스 벌판이 된 것이었다. 시민들이 환호했다. 17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공간이기 때문에, 15~16년을 마지막으로 이 공간이 청보리밭과 코스모스밭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사진 공모 대회도 개최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도심 속의 코스모스 꽃밭이 그동안 늦어진 신청사 건립프로젝트를 위로하고 축복을 선사했다.]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 신청사 관련 기관장들도 현장을 방문하였다. 신청사 부지에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을 것 같다. 남경필 지사는 꽃밭에서 도심 속 여유를 즐기는 도민들과 손잡고 반기며 매우 흡족해 하였다. 주민들도 그동안 같고 불만해하던 신청사 프로젝트가 안정되고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을 보며 도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왼쪽부터 오인석 도의원, 도태호 수원부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금식 경기도시공사사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계삼 건설본부장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2016년 가을).]

경기도건설본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프로젝트를 위하여 만들어진 한시적인 조직이었다. 신청사 프로젝트는 소위 두려운 프로젝트였다. 대부분의 직원이 기피하는 부서였다. 특히, 건축직은 이 프로젝트에 초기에 팀장 이상은 없었다. 매우 애타게 유능한 사무관급에게 부탁하였으나, 대답은 완곡한 거절이었다. 그만큼 사업이 복잡하고, 가망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건축팀장도 토목직으로 채워지는 상황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물어 들어가며 사업은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김중준 건축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윤성진 융합타운추진단장, 안치문 기획팀장 권기석 개발팀장]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민위원회, 청보리 축제, 코스모스축제, 국제회의, 의회 보고회 등 수많은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 기획사 같은 다이나믹한 부서였다. 이렇듯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특히, 윤성진 단장은 15년 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돌아왔을 때, 남경필 도지사와 박수영 부지사에게 필자의 뒤를 챙기고 이어갈 사람이라고 부탁하여 데려왔다. 그는 경기도의 어려운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만4년 단장 업무를 수행하고, 20년에는 건설본부장으로 승진하여 총괄 업무까지 수행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업무를 민선 6기~7기를 아우르며 맡아서 이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개방과 공유를 모토로 했던 남경필 지사는 스마트오피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도청직원들은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유목민처럼 떠돌아야 하는 스마트오피스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영업직 사원은 스마트오피스가 편하겠지만, 팀, 과, 국, 실, 부지사, 도지사 등 위계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청 체계에서는 상하 간의 소통과 지휘체계가 중요하여 관리자 입장에서 부정적이었으며, 말단 직원 입장에서 사무용품을 책상에 둘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부정적이었다. 사무실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수요를 가장 잘 아는 고객(공무원)을 위한 고객위원회(Client Committee)를 구성하여 수요를 수렴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꿈을 키워나갔다. 스마트오피스에 대해서는 불안과 걱정이 많아서,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자제하고, 추후라도 스마트오피스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를 과별 칸막이벽은 없게 추진되었다. 그 이외에도 수면실, 사무실 내 세면대, 출장자 스마트오피스, 바닥 냉난방 등등 많은 진화를 찾아내었다.



[도청과 도의회 공무원 고객위원회 활동 : 스마트오피스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탐구하고 논의하기위하여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본사에 방문하여 둘러보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장면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절차를 통해, 경기도, 도의회,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광고주인, 공무원 등 경기도 신청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재정적으로는 신청사를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여 재정부담을 절감하고, 기능적으로는 여러 기능 융복합방식으로 건립하여 도시의 활력을 높이며, 내부적으로는 스마트오피스 등 진화된 사무공간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완성되어갔다.

### 11. 경기융합타운의 동반자들 구하기

이제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남았다.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도 교육청은 들어올 것인가? 추가의 부지 매입자는 있을까? 여기에 부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짓고 입주할 공공기관은 있을까? 이것들이 정해져야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었다. 기관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아젠다였다.

도 교육청 쪽에 입주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입주 여부 결정은 재정 소요가 크므로 교육부, 기재부,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중요하고 복잡하므로 즉답을 주지는 못하였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재정 교육감을 도의회가 열리는 날에 대가실로 방문하여 경기융합타운 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때, 이재정 교육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공감하였다.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확정할 수는 없으며 함께 노력해보자는 입장이었다. 부담은 우리 몫이었다.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도청, 도의회, 도 교육청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믿고, 통합청사의 길을 가기로 했다. 교육청의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면, 기다리면 되고, 최악의 경우, 그 공간 수요는 늘어날 것이므로, 도청이 건물을 지어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과도하게 대범한 생각이었지만, 옳았던 것 같다.



[이재정 교육감과 남경필 도지사]

경기융합타운의 완성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은 민간이나 공공의 기업이 필요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혼합이 최선이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휘하에서는 가장 큰 공공기관이었다. 협의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고신도시의 주역으로서 처음부터 입주를 희망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기융합타운 입주를 협의했더니 부정적이었다. 포기했다. 말 못 한 속사정이 보였기 때문에 설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에서 경기신보가 사옥을 동수원C쪽에 부지를 매입하여 짓겠다는 계획을 보고할 때, 지사는 주변의 간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나는 경기신보와 경기융합타운의 미래를 위해서

잠자코 있을 수 없었다. "가능한 한 공공기관의 자유에 맡기고 싶지만, 사안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역에서 먼 곳에 위치한 사옥의 가치도, 사옥에서의 임대 소득도 현저하게 하락할 것이다. 반면에 좁고 불편하더라도 광고중앙역에 위치한 경기융합타운에 입주한다면 두 가지 모두 유리할 것입니다. 부지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의로 분양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신보가 경기융합타운에 입주하게 된다면, 경기융합타운의 발전과 효과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기융합타운으로 입주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도지사는 "나도 공감입니다.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에 경기신보 이사장님은 당초 입장을 꺾지 않고 고집을 피웠다. 이에 지사는 당시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에게 "이거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지요?"라고 질문하자, 기초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경기융합타운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면, 사옥 건립사업은 보류하도록 하시죠"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도 경기융합타운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확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경기도의회의 동의도 필요했고, 투자심사도 거쳐야 했다. 그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남경필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갔으며, 새로 취임한 이재명 도지사의 재기도 필요했다. 두 기관의 이전 확정까지 대략 3~4년 정도 걸린 것 같다.



[남경필 지사와 이주열 총재의 오찬 미팅 (왼쪽부터 최은주 경기미술관장, 남경필 도지사, 이계삼 건설본부장 김태서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처음부터 한류를 원했으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파트너였다. 그 이유는 막대한 현금 보안(security) 때문에 지하주차장 등의 공간을 공유하는 콘센트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간곡히 입주를 원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한국은행에 화폐박물관, 미술관 기능을 포함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최은주 경기도 미술관장은 한국은행에는 근대한국화 및 화폐화를 소장하고 있으며 화폐적 가치도 높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서울 한국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소장하는 미술품과 화폐박물관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이에 따른,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남경필 지사와 이주열 총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경기융합타운에 한국은행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융합타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태생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설계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마치 진주조개가 모래알을 품은 것처럼 한국은행은 우리 건설본부에 큰 고통을 유발하는 유별난 파트너였다. 공유와 소통보다는 독립과 보안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었다. 과연 앞으로 진주처럼 빛나는 어떠한 공간적 역할을 할지 궁금하다.

상기와 같은 협의가 진행되며, 입주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었지만, 100% 확실한 것은 없었다. 공적인 기관의 이전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자원조달계획 등 법으로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사유로 중단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사한 사유로 도 신청사 건립계획도 20년 넘게 표류하게 된 것이다. 도 교육청, 경기도 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의 입지 여부를 100% 확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건축계획을 진행해야 했다. 수년이나 걸리는 결정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만약에 상기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도 교육청 부지는 경기도청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기타의 부지는 타 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축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 12.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경기융합타운의 건축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나?”가 이슈가 되었다. 넓은 땅에, 많은 기관, 전철 역세권 등 여러 면에서 이것은 세기의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미 도 신청사 설계권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회사 중의 하나인 공간건축이 확보하고 있었다. 2008년에 열린 국제지명설계 현상공모에서 우승하여 설계자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입주 기관도 확대되고 청사의 규모도 바뀐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바뀌어야 했다. 당시의 당선작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공간건축 설계 회사 입장에서는 설계권만 확보된 상황이었다.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대표도서관, 주상복합아파트, 민간오피스, 한국은행, 경기정원, 중앙광장 등 전체 12만㎡ 규모(축구장 18개 규모)의 경기융합타운의 설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경기도 신청사였으며, 새로운 건축가를 찾을 것인지도 고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의 건축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미켈란젤로와 같은 위대한 조각가도 웅장하며 빛깔이 아름다운 대리석을 만나면,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위대한 대리석을 만나면 설레는 마음으로 수년간 작업을 함부로 시작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심정이었다.

15년 11월쯤에 일본 출장이 잦았다. 남경필 지사의 정책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디렉터(MD : Master Directors) 5~6명 정도가 함께하는 일본 출장이었다. 당시 남경필 도지사는 도시, 건축, 미술, 음악, 경제, 금융, 철학 등 각 분야의 거장들을 마스터디렉터(MD : Master Directors)로 초청하고 실·국장들로 하여금 이분들과 상의하며 도 정책 중 중요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문받으며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도지사의 분야별 본신과 같았다. 당시 건설본부장이었던 나는 건축디자인, 금융, 비즈니스 분야의 거장인



[남경필 지사의 특별 도정 자문 멤버 마스터디렉터(Master Directors)와 함께]

김희수 대표로부터 큰 도움과 자문을 받았다.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목표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설계자와 사유 방식을 소개해주었다. 사유의 지평을 넓히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그 출장에 필자도 동행하게 되었다. 그 출장은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먼 시각에서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였다. 경기융합타운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필자도 동행시킨 것이었다. 롯폰기 힐스와 구내에 있는 미술관, 미드타운 등을 시찰하였다. 도청 전반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경기융합타운에 대한 많은 꿈을 이야기하였다. 세계적인 음악당, 미술관, 도서관 등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남경필 지사는 MD 일본 출장을 통해, 경기융합타운의 콘텐츠와 건축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폭넓고 깊게 논의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남경필 지사, 김희수, 김찬중, 이지윤 MD(Master Directors) 등의 여러 차례 논의가 지속되었다. 건축설계를 누구에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가장 우선 논의된 사항은 공간건축에서 설계권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설계 공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찌할 것이냐? 등이 최우선 관건이 되었다.

새로운 설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자를 찾자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필자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설계자 변경은 곤란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설계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것이며, 지금까지 공간건축 설계회사에는 잘못이 없으며, 설계 절차가 7년 정도 지연된 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요구도 없는 선량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 만약, 설계권을 박탈한다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이것은 사업 지연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



[일본 출장에서 MD 그룹은 경기융합타운을 건축, 음악, 미술, 경제, 경영, 문화, 철학 등의 넓은 시각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했다.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왼쪽에서 2번째가 남경필 도지사이고, 3번째가 가장 큰 도움을 준 김희수 MD이다. 오른쪽 두 번째가 정재훈 문화의전당 사장이다.]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건설본부장(필자) 휘하의 모든 직원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대안이 모색되었다. 경기융합타운 부지는 광고신도시 전체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이란 일반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용적과 용도뿐만 아니라, 색채, 모형, 높이, 입면 등 건축 외관적인 사항도 규정하는 계획으로서, 신도시, 산업단지 등에 적용하는 도시계획기법)에서 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우선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추후에 현상공모나 기타 절차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특별하게 수립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경기융합타운의 비전에 맞게 가능한 한 상세히 수립하고, 공간건축이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하자는 대안이 나왔다. 이러한 방안이 모두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 시게루반(茂坂, 1957~, 오른쪽 두번째)도 초청하여 토론에 참여하였다. 오른쪽 첫 번째가 하버드 출신 건축가 김산중이고, 왼쪽 첫 번째는 미술가 이지윤이다.]

광고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용역을 맡은 도화엔지니어링에서는, 상기의 맥락을 이해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를 탐색하여, 세계적인 건축회사 저드(The Jerde Partnership)의 공동 CEO이며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Phil Kim으로 방향을 잡고, Phil Kim에게 마스터플래너의 역할을 부탁하였다. 저드사는 '미국 쇼핑물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저디(John Jerde, 1940~2015)가 1971년에 설립한 건축설계 회사로서 LA 유니버설 시티워크,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도쿄 롯폰기힐스, 후쿠오카 캐널시티, 오사카 난바파크 등을 설계한 세계 최고 건축설계 회사 중의 하나이다. Phil Kim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2000년대 일본 쇼핑물 건축설계를 맡았던 주역이었으며, 아시아 시장 전체를 관장하는 CEO 역할을 하고 있었다.

Phil Kim은 고국의 공공청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공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저렴한 설계비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수락하였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러한 경위에서 미국의 저명한 설계회사인 저드(The Jerde Partnership)사가 경기융합타운(12만㎡) 특별계획구역의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를 수립하게 되었다. 이 설계를 위해서, 건축설계는 홍콩지사에서 담당하고, 조경설계는 LA 본사에서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하며 최고 인력을 투입하여 정성껏 설계를 추진해주었다. Phil Kim은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하여 2022년에는 저드사의 Shareholder로서 이사회 의장(Board Chair)이 되었다.

건축주인 건설본부장(필자)은 매주 홍콩, LA와 화상회의를 통해 설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은 후에, 이것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 정리하여 Jerde사에 보내주는 과정을 4개월을 진행했다. 참으로 길고도 어려운 시간이었다. 이때, 김희수 MD는 서울에서 수원 호매실 건설본부로 내려와 항상



국제화상회의를 함께하며, 디자인의 디테일한 감각, 큰 전략 등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해주었다. 세계적 건축디자인과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 것이었다. 다국적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융합타운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과 지혜를 지속해서 보태준 것이었다. 김희수 MD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기융합타운의 마스터플랜 디자인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Phil Kim(왼쪽)과 김희수 MD(오른쪽)]

건설본부장,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등 공무원은 시간이 지나면 보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건축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 과정에서 철학과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마스터 아키텍트(MA: Master Architect)도 위촉하기로 했다. 음악으로 비유한다면, 마스터플랜은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과 같으며, MA는 오케스트라를 지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할 수 있다.

MA 대상으로 조성룡 교수, 제해성 교수 등 정상급 원로 건축가가 거론되었다. 남경필 지사는 직접 만나고 MA를 알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원로 건축가는 MA를 사양하며, 젊은 교수에게 맡길 것을 제안했다. 제해성 교수는 천의영 교수를 추천했다. 결국, 젊고 유능하며 근거리에서 협력하기 좋은 경기대학교 천의영 교수가 선정되었다. 천의영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디자인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건축학 박사를 취득하고 서울디자인올림픽 총감독(2009), 광주폴리 총감독(2013~2017) 등을 담당한 젊은 거장이었다. 그는 공공분야가 건축발전에 역할을 많이 해야한다는 소신을 갖고있는 건축가이다. 2022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차세대 건축리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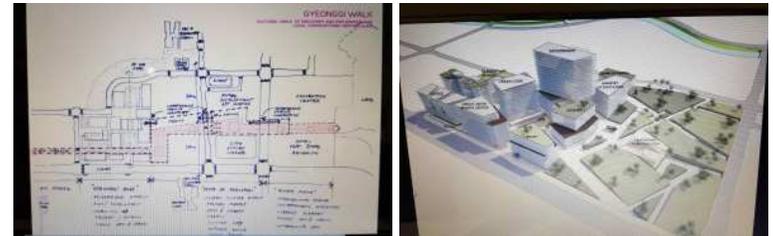
[MA를 맡아준 천의영 교수]

건설본부장, 김희수 MD, 천의영 교수, 윤성진 단장은 거의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건물들의 배치를 논의하였다. 건설본부장은 회의 결과를 의회, 도청 등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구상을 발전시켜나갔다. 이렇게 팀이 형성된 후 본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건축가와의 논의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문화도 다르고, 일반적인 인간의 건축이 아닌, 계약 절차도 복잡한 공공건축 입장에서 매우 낯선 파트너였다. 그때에는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각 기관의 규모(연면적, 부지면적), 진출입로, 본회회장, 주차 규모, 증축계획, 용도, 형식 등 주요 스펙이 그렇게 복잡하지 못했다. 수요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공부와 논의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항을 결정해내야 할 사항도 많았다. 기관별 연면적, CBD 초기 구상 등 기초자료가 제공되고, 저드사에서는 디자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가 구체화 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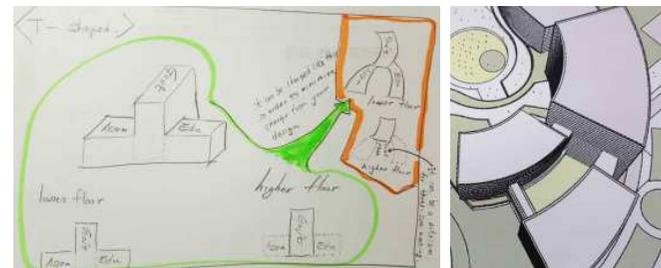
[Jerde Phil Kim(오른쪽 사진, 오른쪽 두 번째)과 마스터플랜을 논의 초기 단계 모습]

하지만, 큰 난관이 발생했다. 도청, 도의회, 교육청 세 기관의 관계를 건축적으로 푸는 것이었다. 저드사의 초기 디자인에 대한 도의회와 교육청의 견해는 싸늘했다. 그 이유는 도청에 비하여 규모는 1/3수준이며, 두 기관이 종속적인 건축계획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도의회와 교육청의 불만을 낚은 초기단계의 디자인 컨셉]

도청은 도의회와 도 교육청에 비하여 대략 3배의 연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건축구조를 원했다. 새로운 콘셉트가 필요했다. 설계사와 도청, 도의회를 오가며 건설본부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양근서 도의원은 3개 기관이 협력하는 것을 상정화 하기 위하여 삼발이(TRI-pod) 모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주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의 건설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대신에, 평면에서 사람인(人) 자 모형으로 하고,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도 교육청은 나중에 추가로 건설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도의회도 공감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저드사측에 제공하였다. 저드사 측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융합타운 선큰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부러진 디자인으로 발전시켜서 가져왔다. 경기융합타운 핵심인 도청사, 도의회, 도 교육청의 건축구조가 가닥 잡히는 순간이었다.



[사람인(人) 디자인 제안 요약도]

[대자인 개선]

하지만,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상징 건축물을 중국 글자 사람인(人) 자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왼쪽으로 꼬부라진 시숫자 형국을 보며,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을 검색해보았다. 애민정신의 핵심인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라는 문구 중에서

사람의 시옷(人) 글자는 중국 글자 사람인(人) 글자에 비해서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음을 확인했다. 세 건물의 배치는 사람인(人) 글자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 언해본 서문의 애민정신을 담은 '사람'의 시옷(人) 글자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세 기관이 협력하여 도민(사람)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하기로 했다. 참 아름다운 해석이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력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이 설명에 감동하였다.



[경기도청, 도의회, 도 교육청 세 기관 배치의 상징적 의미 : 세 건물의 배치는 세종대왕 언해본 서문의 애민정신을 담은 '사람'의 시옷(人) 글자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세 기관이 협력하여 도민(사람)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것이다. 중국 글자 사람인(人)을 형상화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경기융합타운의 주제 : 인인화락(人人和樂)]

또한, 12만㎡에 달하는 융합타운 전체의 주제도 설명이 필요했다. 그것은 정조대왕이 1796년 수원화성을 완성하고 사람들이 화합하여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한자로는 人人和樂(인인화락)이라 쓰여있다. 이것은 경기융합타운의 전략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경기융합타운의 주제를 인인화락으로 잡고 설명하였다. 모두 흐뭇해하였다.

그 이후에도 진출임로, 주차장, 증축 부지, VIP 진입로 등 수많은 사안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2016년 4월 그 도시설계(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를 완성하여 도지사 주재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그리고, 언론과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보고하여 확정의 위계를 높였다. 다시 뒤집히지 않게 하겠다는 포석이었다.



[저디사와 국제화상회의 모습]

[도지사 신청사 회의]



[마스터플랜을 언론 브리핑(왼쪽)하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오른쪽)하는 모습]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또 다른 고비였다. 디자인 내용이 너무 화려해서 호화청사로 오해받는지 걱정되기도 하였다. 복합청사로 언론의 질타를 당해서 정치적인 큰 어려움을 당했던 안양시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필은 안양시장에게 발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전화로 물었다. 당시 복합청사 계획이 언론의 오해로 좌초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사전에 언론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래서, 당시 친분이 있고, 언론내외부에서 신뢰가 두터운 연합뉴스 김인유 부장에게 오프더레코드로 의견을 물었다.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우리창으로 외벽을 마무리하는 커튼월은 건축가에게는 아름다워 자랑스럽겠지만, 국민은 호화청사로 생각하고, 직원들은 더위와 추위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안다. 가능하면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참으로 현명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발표를 1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저디사에 요청해서 파사드(Facade) 스킨(Skin)을 석조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마스터플랜 조감도가 아래와 같다. 2016년 4월 16일 언론에 브리핑하고 도의회에도 보고하여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다.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겸손하게 여쭙고 받아들이는 것이 큰 프로젝트의 성공비결인 것 같다.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조감도]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평면도]

### 13. 도청사와 도의회 건축설계

마스터플랜은 정치적이고 재정적인 틀을 잡는 과정이었다. 이제는 실질적인 법적, 행정적, 공학적 사업추진이 필요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승인, 건축허가, 공사,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그것이다. 필지 간의 협력도 필요했다. 파란색의 도청사, 도의회, 도 교육청 부지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서 맹지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합 건축, 건축협정이 필요했다. 더 나아가, 건축허가, 공사, 유지관리를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 교육청, 경기도시공사, 경기신보, 한국은행 등이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공동 협약의 내용은 경기융합타운 전체의 체계적인 계획, 설계, 공사,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마스터플랜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MA와 협의하여 경기융합타운 협의체 회의에 상정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 경기신보, 한국은행 등의 개별 건축물은 마스터플랜에 부합하는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합리적인지를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승인)을 받은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시공사가 개발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되, 그 비용은 건물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하였다. 경기신보, 한국은행, 도 교육청은 개발 사업 전문기관인 경기도시공사와 개별 대형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업무를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하도록 유도하였다. 경기융합타운내 모든 토지소유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토록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영미권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전략으로 널리 이용되는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전략을 조그만 단지에 적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건축협정 및 결합 건축 제도가 2014년에 도입되지 않았다면, 경기융합타운과 같은 압축적인 개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건축협정 제도를 도입한 국토부 관계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공사발주와 시공관리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진행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설계는 공간건축을 통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도 공무원



[경기융합타운의 필지 구분]



[사업추진체계도]

들은 도청사는 당연히 건설본부에서 직영해야 한다고 했으나 3가지 이유로 인하여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하기로 한 것이었다. 첫째, 한 기관이 융합타운 전체를 총괄 공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기도의 재원 지출이 비탄력적이므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선 지출하고 후 정산하는 방식이 편리하다. 셋째, 추후에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유지할 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공사를 담당하여 구조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결정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 지사, 부지사, 기조실장 등 도의 핵심 인사들이 타당성을 인정하여 그렇게 추진되도록 결정되었다.



[공간건축의 이상림 대표(좌), 김광식 소장(중), 이해욱 교수(우)]

설계에 대해서는 공간건축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본설계,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되었다.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도의회의 본회의장 위치와 형식이었다. 남경필 지사는 탈권위적이며 시민에게 개방적인 청사를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의 위치는 광장의 바닥 아래나 포디움(Podium) 아래에 설치하는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에서는 우호친선을 맺고 있는 독일 의회 의사당의 개방적인 모습에 지지를 보였다. 설계를 맡은 공간건축의 이상림 대표와 김광식 소장은 건물 전체의 설계 프로젝트를 총괄하

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이상림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로서 중요 구조물이 될 경기도 신청사 설계에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다. 김광식 소장은 설계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설계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가장 고생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설계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원에 사무실을 열어 집중적으로 설계를 진행할 정도로 고생하였다. 감사드린다. 중요한 건축부의 설계를 리드한 건축가는 이해욱 건축가였다. 이해욱 교수는 MA인 천의영 교수의 부탁으로 설계의 구원투수로 투입 요청된 건축가였다. 이해욱 교수는 교수이며 건축가 활동을 하면서도 뮤지컬에 대한 애정이 깊어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형사를 맡은 실력파 배우이기도 했다. 그는 의사당 설계에 정성을 가장 많이 쏟으며, 지금의 의사당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감사드린다. 이해욱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의사당은 옆면이 유리창으로 투명하게 개방되며, 포디움 부로 솟은 유리 돔을 통해 자연채광이 들어와 의사당을 밝히는 구조였다. 또한 돔이 유리 돔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포디움 부에서 쉬면서 돔 유리창을 통해 의사당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너무나도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의사당의 설계에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에서 매우 환영하였다.



[벽이 유리창으로 되어있어서 개방성이 뛰어난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과 경기도의회 의사당]



[관광객이나 국민이 의사당 돔 위로 걸어 올라가서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든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돔(좌)과 포디움 부가 유리로 되어있어 도민이 의회를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든 경기도의회 의사당 돔(우)]



[경기도의회 의사당 돔과 포디움 부의 손님들]

설계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시공사 광고사업단 옆 사무실을 활용하여 경기도 신청사 실시설계 합동사무실을 열었다. 공간건축 직원들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출퇴근하는 고통을 감내했다. 노고에 감사 드린다. 이곳에서 경기도건설본부, MA, 저디코리아 등등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여 설계를 진행하여 속도가 빨라지고 설계도 정교해졌다.

이렇게 설계를 마무리하고, 수원시와 경기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허가받는 과정 또한 매우 어려웠다. 건축협정, 결합 건축, 교통계획 등이 매우 복잡하고 생소했기 때문에 수원시,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은 많은 공부를 해가며, 보완도 해가며, 어렵게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주었다. 인허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실시설계 합동사무실 개소식. 왼쪽부터 Jerde Korea 안상현 대표, 윤성진 단장, 천의영 MA, 이계삼 본부장, 이해욱 교수, 최성진 도시공사 광고국장 등이다.]

#### 14. 공사발주와 착공식

이제는 설계도서를 갖고,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발주하는 단계가 되었다. 경기도시공사의 몫이지만, 턴키방식인지 일반방식인지를 정하는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를 통해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턴키공사가 발주되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되어 건설공사를 맡게 되었다.

드디어, 2017년 7월 15일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착공식에 역대 도지사를 초청하여, 손학규 전 지사가 참석하였으며, 이인제 지사와 임창열 지사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착공식에 31개 시·군의 시장들이 각 시·군의 의미 있는 지역의 흙과 물을 담아와서 도목인 은행나무에 흙과 물을 덮고 부리는 행사를 하였다. 31개 시·군의 애정과 신뢰를 받는 경기도정이 펼쳐지길 기도해본다.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과 도지사가 함께 시·군에서 가져온 흙과 물로 경기도목인 은행나무 기림식수하며 경기도의 화합과 번영을 축원했다.]



[경기도 신청사 기공식 축포를 터트렸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 15. 입주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본다.

이렇게 추진된 경기도청 광고 신청사는 2021년 11월 준공하고, 시운전 기간을 거쳐 도의회는 22년 1월에 도청은 22년 5월에 입주하였다. 경기도 신청사로 이전하는 운명적인 시기에 필자는 2급으로 승진하여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아, 이사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운명적이게도 광고 신청사 첫 입주자가 되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관공서를 이렇게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민간 복합으로 지은 곳은 없는 것 같다.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남경필 지사, 이재명 지사, 박수영 부지사, 이재울 부지사, 김희경 부지사, 오병권 부지사, 황성태 실장, 임종철 실장, 이재철 부시장, 윤성진 본부장, 김남근 부시장, 김중준 과장, 정종국 과장, 안치문 과장, 권기석 과장, 이은선 과장, 김희수 대표(MD), Phil Kim, 천의영 교수(MA) 시민위원회 이덕재 회장, 이오수 단장, 염태영 시장, 곽호필 실장, 이상림대표, 김광식 소장, 이해욱 교수, 백승우 주무관 등 이루 나열할 수 없는 많은분들의 노고와 지원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더 나아가, 물리적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시민 등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도시와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최우선이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은 그것을 돕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합하는 마음이 가족, 회사, 도시, 국가를 번영하게 할 것이다. 정조대왕의 뜻대로 인인화락(人人和樂)하고 세종대왕의 뜻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폭죽처럼 넘치는 공간이 되길 기도해본다.

## 도민 중심의 융합청사로 거듭난 경기도 신청사

김철중

(前 경기도건설본부장 / 2018.01.02.~2019.06.30.)

현대인의 삶은 건축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렵과 농사 등 외부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현대인의 외부 활동은 여가와 취미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계획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도 업무의 내용이나 형태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퇴근 후 취미·자기 개발·친목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장소도 어느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하루의 최종 목적지인 가정도 집이라는 건축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서 있는 위치가 환경적으로 열악하거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건축물이 기능적으로 편의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는 곧 사용자의 업무 효율을 저하하고, 심리 및 건강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록 업무나 주거 공간뿐 아니라 여가를 위한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듯 건축물은 그 내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몸담았던 경기도청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경기도청은 수원에 있었으나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가 경기도 소속의 경성부로 격하되면서 1910년 서울 광화문으로 옮기게 되고, 1964년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벗어나자 1967년 다시 수원 팔달산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5월 30일 수원시 광교로 청사가 이전하게 됩니다.

과거 수원에서 서울, 다시 서울에서 수원으로의 청사 이전에는 지방 관제의 개편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원 내 광교로의 청사 이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청사로서 구상(말발 청사) 건축물은 부족한 청사 면적, 노후화된 시설, 협소한 주차 공간 및 수요자(도민) 접근성의 제약 등 기능과 효율성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신청사는 지금까지의 공공청사 계획과는 차별화되는 많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중에도 청사 기능 단독으로 계획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입주 기관이 함께하는 융합타운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히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애초 광고인도시 내 경기도청만 홀로 위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및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함께 자리하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원과 광장 및 보행물 등 각종 시설을 융합타운 내에 계획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공공청사가 관청의 위엄과 권위 정립이라는 이유로 혹은 청사의 보안과 방호라는 기능적 이유로 폐쇄적인 입지와 평면계획을 고수하였고, 현재에도 공공청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어느 정도 유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환경은 너무나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ICT 기술의 발달로 업무 여건도 유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공공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과 요구사항도 민간참여 확대와 민관 협치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폐쇄적인 청사에서 개방과 소통의 청사, 융합 청사로의 계획 변경은 필연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2021년 준공된 경기도 신청사의 경우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업무 여건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종 첨단 장비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최종 준공 예정인 경기융합타운도 융합타운 내 각 입주 기관과 방문자들이 자유롭고 손쉽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결 통로를 계획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 방문]



[도 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당시]

지금까지 제시된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청사와 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건설본부와 융합타운 입주 기관의 많은 관계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고, 최종 완성을 위해 현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초기 계획, 설계, 시공, 사업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건축물을 짓는 과정 자체를 소통과 융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융합타운을 계획하고 추진하기까지는 기존의 단일 건축물보다 몇 배 더 큰 노력이 들어갔고, 이제 그 결과를 안에서 우리 경기도청 식구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며 함께 생활해 나갈 것입니다.

서두에 건축물은 그 내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신청사가 개방과 소통이 필요한 급변하는 시대에 해당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한 건축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뿐 아니라 청사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스토리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면 경기도 신청사의 위상은 더욱 빛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광고 융합타운 신청사에서 이 글을 읽는 많은 분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짧은 소회를 마칩니다.

## 새천년 경기도의 상징, 경기도 신청사

안용봉

(前 경기도건설본부장 / 2019.07.01.~2019.12.31.)

### 프롤로그

얼마 전 한 통의 전화가 왔다. 퇴직 전 근무했던 경기도건설본부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과정을 담은 건설지(건설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전임 본부장들의 소회를 담고자 한다는 내용이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회상에 잠겼다. 재직 당시는 골조 공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어느덧 도 신청사 건립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전하여 새로운 곳에서 도정을 수행하고 있구나... 가슴 한편이 뭉클하면서 예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 튼튼한 기초위에 효율적인 공간을 만든다.

내가 부임했던 시기에는 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이미 반 이상의 골조가 올라간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기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안전사고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 도 신청사 건립공사를 총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시공사에 부실 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빈틈없이 해주기를 요청하는 한편,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보완을 요청함으로써 도 신청사 건립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임 당시, 도 신청사 건립 현장 모습]



[이화순 행정2부지사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도시환경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함께 현장을 돌아보며 문제없이 신청사 건립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도에서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기도의 백년 대계를 상징하는 도 신청사 건립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자문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건축 분야 전문가, 신청사 주민참여감독관을 초빙하여 부실시공 제로화를 위한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 현장 방문]



[도시환경위원회 현장 방문]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함과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이 최우선인 현장이 되도록 도 신청사 건립공사 총괄 대행인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하여금 안전 모의훈련(협착 사고 발생 및 화재 대비 훈련) 등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여 임기 내 큰 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청사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3개 층 증축을 공사 중에 사전 검토하여 시공함으로써 준공 후 추가 시공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예산 절감 효과와 향후 사무실 공간확보에 이바지한 바 있다. 또한 도 신청사 내부 공간은 소통과 협업, 수평과 공유의 스마트오피스로 추진하기 위한 이전 추진 부서(자산관리과)와의 협업을 통해 경기도청만의 콘셉트를 가진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사례 검토 및 자문을 통해 청사 내 사무공간 전체를 스마트오피스로 추진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 도민과 함께하는 도 신청사를 꿈꾸다.

도 신청사 미술작품 선정 시 공모를 통한 미술품 설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설치하고, 도정 실현과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제를 활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경기융합타운 입주 기관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미술작품을 공모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기준을 만들었으며, 도내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를 도 신청사 현장에 먼저 적용하여 관내 우수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임기 막바지에 경기융합타운 내 C6(주상복합) 부지매각으로 약 2,100억 원의 복합개발수익을 확보하여 민선 7기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민환원제' 취지에 따라 복합개발수익 전액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도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약 6개월) 몸담았지만, 경기도 백년대계의 초석인 경기도 신청사의 뼈대를 만들고, 복합개발을 통해 그 수익을 도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경험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기억될 것이다. 도 신청사 공사가 준공되어 현재는 이전 완료까지 끝났다고 하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경기도 공직자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기회가 되어 신청사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본다. 함께 고생했던 경기도건설본부 모든 분의 앞날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 새로운 시작, 긍정의 힘을 믿다.

윤성진

경기도청 부이사관(前 경기도건설본부장 / 2020.01.01.~2020.06.30.)

공정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27년 차 공직생활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경험과 지식이 더 부족했었던 그 당시 마다 맡게 된 업무들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다 보니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무난히 해결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더해 공직 사회를 잠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공무원 입직 후 군 복무를 위해 공군 장교 근무, 영국 버밍엄대 유학, 민간 근무 휴직 제도를 통한 삼성전자 근무, 미국 미시간주립대 직무교육 등)을 했던 부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문제의 해법을 끌어내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직생활 중 맡았던 새로운 업무에 대해 잠시 언급하면 토목직으로서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하였지만, 그중에서도 경기도 광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복합개발업무를 단장으로, 또 건설본부장으로서 4년 6개월간 맡았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결론론적으로 보면 공무원으로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큰 경험을 했다는 점과 반백 년을 사용할 경기도의 역사에 제가 일정부분 이바지했다는 점은 제 공직 인생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업무는 2016년 1월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담당국장님도 외달라고 했던 토목직 자리인 광역도시철도 과장을 건축직을 보내고 제가 고사했던 건축직이 맡아야 하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후에 경기융합추진단으로 조직개편)으로 보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공직자가 인사발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자리를 기본 적이 거의 없지만 직렬과 상관없는 신청사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는 심적으로 힘들고 불만도 있었지만, 발령이 난 직후부터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10년 특별휴가를 하루도 못 쓰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산적한 현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청사 업무를 맡게 된 기간 내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중에서도 첫째 인 2016년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고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겹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단지형 복합개발로 돈을 벌어 짓는 청사 콘셉트를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법과 제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은 수많은 걸림돌과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 생각으로 업무를 대하는 장점이 있어서인지 또 어차피 맡게 된 업무가 나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성격이라 개인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선진국의 새로운 도시계획 트렌드를 접했던 터라 공공청사 복합개발이라는 콘셉트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하셨던 분들과 다르게, 전혀 생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익숙하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특히 기존의 신청사 설계는 일본 도쿄도 청사처럼 36층 이상의 고층빌딩에 광고신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려는 콘셉트였지만 도의회 일부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도청사와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도의회 의원님들 절반 정도 반대하여 제가 발령 받기 전 6개월간 설계 콘셉트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복합개발로 바뀌면서 의회의 강력한 권고로 새로운 청사를 계획하고 있던 도 교육청도 도청사 부지로 옮겨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도 교육청도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발령받자마자 떠난게 된 이 현안을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이 문제에만 매달려 심사숙고하였고 거기에 더해 크리스천인 저는 하나님께 현명한 해결책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발령받고 이틀간 그렇게 심사숙고하다 보니 갑자기 머릿속에 그간 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보아온 영국과 미국의 시티카운실(City Council) 즉 시청사와 시의회 건물, 그리고 유럽의 성당, 영국의 국회의사당 건물의 디자인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대략 중앙의 높은 건물과 양 날개처럼 붙은 건물 모양으로 압축되는 디자인 콘셉트가 떠올랐습니다. 아! 도청, 도의회, 도 교육청이 한 건물에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건물을 갖는 것 같은 디자인을 위해 위에 언급한 선진국의 건물 형태를 따르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부장님께 이 콘셉트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 공공청사나 성당, 의회 등 건물들이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의 필지에 중앙에 가장 높은 건물 하나 그리고 양 측면에 같은 층수의 건물 하나씩 날개 모양으로 배치해 세 개의 건물을 짓고 만약 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 건물들을 붙여서 건설하고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 건물들을 한 필지에 띄어서 짓고 건물 간 이동을 위해 필요하다면 브리지 등으로 연결하면 어떤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본부장님은 정말 좋은 의견인데 일단 도의회에 설명을 해봐야겠다고 하시고 바로 다음 날 의회에 설명하고 오시고선 설명을 들으신 모든 의원님이 찬성하셨다고 해서 6개월간 답보 상태였던 청사 디자인 콘셉트가 해결되었고 지금의 청사 디자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정말 부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 가수의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라는 노래 가사가 유행이었는데 이것을 차용해 "통합인 듯 통합 아닌 통합 같은 청사"란 기본 콘셉트로 저드(Jerde)사에서 지금과 같은 곡선형의 청사로 마스터플랜을 잡고 기존 청사 현상설계 권을 가진 공간건축에서 설계를 변경하여 현재의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다만, 도 교육청은 마스터플랜 상으로는 도의회와 같은 층수였지만 별도 발주하는 과정에서 도의회보다 층수를 높게 설계하여 지금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모르는 일부 현재의 디자인에 부정적인 분들은 지금도 도쿄도 청사처럼 하나의 건물로 높게 랜드마크처럼 기존 설계대로 짓지 이게 무슨 디자인이냐고 반문하시지만, 민의 반영인 정치의 힘이 큰 우리나라에서 6개월간 답보상태였던 청사 콘셉트에 대해 합의를 끌어낸 아이디어였고 이렇게 하지 않았

으면 도청사는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의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흘러 2022년 1월 도의회가 먼저 이전을 하고 5월에는 도청사도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 4년 6개월 정도 말았던 경기융합타운(도청사 복합개발) 업무에서 2020년 7월 1일부로 국토교통부 국장급 인사교류를 1년간 가게 되어 해방되었을 때는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아쉬움도 교차하는 시원스럽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청사, 도의회가 벌써 준공이 되어 입주까지 마쳤나더 개인적으로는 참 감개무량합니다.

MA(Master Architect)를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설계단계부터 도시락 회의, 마라톤회의 등 수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인증, BF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법정외무 이상의 각종 기록을 세우면서도 다른 공공청사 대비 가성비 있게 짓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완벽한 계획은 있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었던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새로 지은 청사가 좁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경기도 권한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권한으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경기도의 청사 기준면적이 공무원 수, 주민 수 대비 불합리하게 작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과 같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신청사 착공 이후 정부 정책에 따른 갑작스러운 공무원 수 급증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경기도 공무원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변수가 생겼고 이에 대한 반영도 행정안전부에서 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문만 검색해 봐도 아쉬웠지만, 서울시 신청사도 준공 후 2년 만에 공간이 부족해 임대건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기융합타운은 복합개발로 다른 공공기관도 같은 부지에 위치하게 계획되어 상대적으로 면적에 여유를 가지고 설계를 한 각 공공기관 건물들이 준공되면 도청의 모자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융합과 공유의 청사로 계획하였기에 도청사와 도의회가 좁아서 불편한 것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준공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지금 같이 준공해서 지금처럼 공사편에 도청사와 도의회가 입주하는 일도, 청사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들 처음에 경기도와 각 기관이 합의했던 내용대로만 진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심지어 기관의 의견과 다르게 개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 때문에 기관별로 적게는 1년 6개월 많게는 3년까지 시간을 허비한 것이 또 하나의 정말 아쉬운 대목이었고 이 업무를 맡으면서 조직에서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큰 바위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기존의 조직간 합의도 무시하고 개인 의견을 고집했던 사람 때문에 기관별로 소모된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로 인해 본인이 소속된 각 기관이 얼마나 많은 물적, 시간적 손해를 보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경기융합타운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대안 없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안타까운생각만 들 뿐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이 완성되는 날 유공자들을 불러서 그 노력을 치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반대만 했던 사람들도 초청해서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지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그 아쉬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각 기관에서 인사발령으로 바뀌고 처음에 말았던 분들이 승진해서 다시 담당자들로 오고 나서야 모든 입주 기관들의 타임스케줄이 원래 계획대로 정상화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 해도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존 발달산 청사에서 주차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신 도청 공무원들과 도민들을 위해 새로 짓는 청사에서는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지만, 교통영향평가 상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현재의 4,300여 대였고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은 주변의 롯데아울렛, 아비뉴프랑, 컨벤션센터의 주차장과 공유하면 가용주차대수가 11,000여 대가 되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시설은 주중에 비고 주말에 피크이고 공공청사는 반대로 주중에 피크이고 주말이 비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고, 계획 초기에 각 상업시설 담당자들과 회의했을 때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본사에 보고한 후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그 이후 워낙 현안이 많고 경기융합타운 전체 준공 시까지는 당시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후 순위로 밀렸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물리적인 통합되지 않은 주차장도 하나의 주차장처럼 운영할 수 있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위탁운영 하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해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광고신도시는 아직 준공 전이라 승인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내용검토도 없이 승인 불가를 외쳤지만, 다행히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돈 벌어 짓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콘셉트에 관해 설명을 들으시고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 공공청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어렵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다음 해에 이전 정부에서 공공청사는 복합개발로 돈 벌어 짓는 청사 개념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을 보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을 또 하나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청, 대구시청, 제주 서귀포시청, 부산시청 등 수많은 기관이 경기도 신청사 복합개발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매주 저드사의 홍콩 및 LA 담당자들과 건설본부를 연결한 실시간 영어 화상회의와 담당자들 카톡방을 개설해 수시로 영어 카톡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던 일, 복합개발 합의 후 한참 도청사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던 단계에 용인시에서 갑자기 도청사를 용인으로 이전하자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일방적 제안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해 수월

시장님의 배려로 도청사 건축협의 기간이 2개월 가까이 단축되어 광고 주민들과의 2017년 6월 착공 약속을, 7월에 착공했으나, 거의 지킬 수 있었던 간중할 만한 기막힌 비하인드 스토리,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소통해 가면서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세워나갔던 것, 도청사 착공 전에 비어 있던 도청사 부지에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직원들과 도시공사 담당자들이 생고생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청보리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를 열어 불신에 차 있던 광고 주민들과 심리적 소통을 했던 것, 예상했던 복합개발 수익보다 1,000억 정도 주상복합 부지 입찰에서 더 들어와 약 2,100억의 수익을 낸 것 등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찬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면상의 한계로 자세히 소개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1년간의 인사교류를 마치고 도시정책관으로 복귀하였는데 그간 경기도와 건축 인허가권자인 수원시의 이견으로 경기융합타운의 대표도서관 건축허가와 교통영향평가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던 문제도, 이제는 담당자가 아니지만, 그간의 업무 스토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종재해서 경기융합타운에 입주하는 건물 중 마지막인 대표도서관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결한 부분도 어느 자리에 있던 융합타운 업무에서는 속명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너무 긴 기간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 두서없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신 수많은 분이 계셔서 세계 최초의 단지형 공공청사 복합개발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분이 계셔서 한정된 지면상에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 없어 혹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 서운해하실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부득이 모든 분의 실명을 언급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자리를 가든 항상 직원들에게 착하게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모든 일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아 4년 그리고 승진해서 본부장으로 6개월 총 4년 6개월간 맡으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착하게 살자는 마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어느덧 청사 입주의 날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 수많은 제약 속에서 각종 기록을 경신하면서도 다른 공공청사들과는 다르게 성과는 최고로 단위 면적당 비용은 최소로 가성비 있게 짓고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초로 단지형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그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을 거쳐 간 수많은 직원분과 아직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추진단 직원분들의 노고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확신합니다. "항상 착하게 살자. 우리는 경기도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는 제 말을 믿고 묵묵히 같이 일해 준 동료 직원분들과 수많은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사무실 벽면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하나입니다.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CNN 창립자 테드 터너)

## 소통과 노력의 산실, 경기도 신청사

송해충

(前 경기도건설본부장 / 2020.07.01.~2021.06.30.)

건축이란 그 건축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창조해 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이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던가요? 특히 공공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이용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과 더불어 공익성과 공공성 그리고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역사성도 필요한 건축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도청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가 1967년 수원 팔달산 자락으로 옮겨왔으며 이후 공간 수요 증가에 따라 여러 차례 증축을 거듭하였으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90년대부터 팔달산 구청사 부지에 신축 또는 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다가 1996년 구청사 부지에 건축 현상설계를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광역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라 도청사 부지를 마련하였으나 이후에도 이전 여부, 이전 시기 등 많은 진통과 논란이 이어지다가 2014년 남경필 지사가 청사 부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단지형 융복합 행정타운으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22년 5월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그 대단원의 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 현장 전경]



[도 신청사 건립 현장 점검 당시]

경기도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여, 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끝조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부터 완공 직전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건축물을 사용할 내·외부 고객의 요구사항을 지속해서 수렴 및 반영하고 도청사 부지와 인접되어 건축되는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융합타운 입주기관의 건축 시기 및 공사의 기술적 문제에 따른 공정간섭을 최소화하고 조율하기 위해 참모로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완공 이후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공유와 협조를 통해 직원들과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수많은 토론과 협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융합타운 입주기관 건축공사와 관계되고 참여하는 많은 조직체와 사람들에 대한 설득과 협조가 가장 중요했던 과제였으며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이기에 정기적으로 경기융합타운 입주협의회체 논의와 수시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보 현장 방문 당시]



[이용철 행정1부지사 현장 방문 당시]

수많은 협의와 회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신청사가 광고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새로운 천년 경기도의 상징인 경기도 신청사의 광고 시대를 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부듯한 보람을 느끼며 부족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경기도 신청사 건립, 그 치열했던 고뇌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다.

한대희

(前 경기도건설본부장 / 2021.07.01.~2022.10.20.)

2021년, 경기도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완수하고, 경기도의 역사와 발전에 큰 의미가 있는 광고 청사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청사 노후화에 따른 행정능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종합청사 기본계획'을 수립 하면서 논의되어온 신청사 건립이 1997년 IMF 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지자체 재정위기 등 험난하고 변화무쌍했던 큰 파고를 넘어...

'건물보다는 사람(이용자)을 먼저 생각하며,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소통 공간 조성'이라는 가치를 걸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2017년 9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 50개월의 험난했던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많은 분의 노력과 도민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이전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 해주신 공공기관 등 입주기관 여러분,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써 주신 설계·시공·감리 등 현장 근무자 등 모든 분의 도움으로 경기도 신청사를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도건설본부장의 자리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마무리한 사람으로서 지나간 시간의 흔적과 노고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 지나가면서 가슴이 뿌듯하고 벅차옵니다.



[도 신청사 건립 준공 현장]



[도민 편익을 위한 공간 조성]

경기도청 신청사의 개청은 행정적인 차원의 도청 이전을 넘어서,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인 '대한민국 변화를 선도하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경기도 신청사를 도민을 위한 청사로 도민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의회 의정단 현장 점검 당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현장 방문 당시]

이를 위해 경기도 신청사에서는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정,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 가치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도정'을 위해 2,500여 명의 공무원이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경기도청 신청사가 '변화의 중심이 되고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의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경기도청 신청사는 민선 8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어느 시대, 어느 미래의 도전도 힘있게 응전하여 항상 도민을 위한 소통과 혁신의 공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백서 발간은 경기도가 그동안 도민의 편에서 도정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백서에는 그동안의 건립 과정, 어려웠던 순간, 그것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짜내었던 지혜 등이 꼼꼼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기록과 유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신청사의 건립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도민을 위한 신청사임을 후대에 알리는 백서가 되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융합타운 신청사를 돌아보며

### 천의영

경기도대학교 교수(경기융합타운 MA(Master Architect))

### 프로로그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이계삼 사무처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경기도의회 디자인 개선 기본계획과 관련된 상의를 하고자 함이었다. 이미 경기도의회는 올해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신청사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소 불편한 점들과 애초에 기획했던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함께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연락이었다. 반갑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지난 6년의 세월과 함께 처음 만났던 2016년 1월을 떠올렸다.

맨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기록을 보면 그는 젊은 경기도 건설본부장으로 '맨해튼 타임스퀘어와 같은 광고 중앙에 경기도의 공공청사를 추진하는 핵심 인물로 적혀 있다. 물론 당시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많은 어드 바이저 그룹들의 비전과 아이디어들이 결합한 것이다. 소위 시민들이 주말에 찾는 코엑스 쇼핑몰과 공공청사가 만나는 새로운 유형의 '와글와글한 공공청사'가 이 시기에 고안된 것이다.

### 마스터플랜의 추진

이 당시 경기도 판교밸리의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다양한 토론과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경기융합타운의 핵심 정신은 "말랑말랑한 융합청사"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 화학적 생물학적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융복합 청사였다.

이후로도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가 ICT 혁명의 진원지였다면 경기도 판교와 광고가 '융복합 산업과 행정의 메카'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가 되자는 생각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원에는 물론 광고 신도시를 이해하고 경기융합타운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했고, 상업 공간 전문가인 저드 파트너십(이하 저드)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아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저드는 도시적 맥락의 연결과 공공 민간의 융복합 청사에 관한 생각을 월드마크, 아브뉴프랑, 롯데아울렛, 갤러리아 백화점 등 주변의 거대상권과 수원컨벤션센터, 광고호수공원 등을 경기융합타운과 연결하면서 이벤트 광장, 도서관, 상업시설이 공공청사와 연결되는 배움의 정원(The Learning Gardens)과 이벤트 플라자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주변의 아이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등의 주거단지와 함께 연계하여 주말에도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복합청사의 개념도 함께 구상하였다. 이어 여러 마스터플랜 대안들이 회의를 통해 논의되었고, 최종 광장을 중심으로 아크 형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1차 대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6년 2월 사전 보고에 이어, 3월에는 도지사, 도의장, 수원시장 등 관계자들과 제해성 교수를 비롯한 도시 건축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마스터플랜 중간 보고가 이루어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대안이 만들어졌다.



[경기융합타운 도청사, 도의회 초기 모형]

### 경기도청사의 이전과 경기융합타운

원래 경기도청사는 1910년 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 의정부 터에 건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6년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청사의 위치는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1953년부터 등장한 경기도청 이전 논란에 따라 마침내 1964년 수원공설운동장 터에 신축 기공식이 이루어졌고, 1967년 청사가 준공되면서 경기도청사는 수원 팔달구로 이전하였다. 이후 1980년의 신관을 필두로 제2별관, 의회 청사, 제3별관 등이 준공되었으나, 급증하는 공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1995년 이인제 지사 시절 '경기도 종합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새로운 청사를 건축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96년 11월 경기도청사 매산동 1-1, 현 도청사 부지에 건축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무영건축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1997년 IMF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신청사 건립 계획은 보류되었고, 2001년 경기도의회 이전 건립 권고 결의로 불씨가 살아나면서, 2004년 손학규 지사는 도청사를 포함한 광고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여 도청사 이전의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9년 김문수 지사 시기에는 국제지명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2011년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보류와 추진이 반복되다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14년 남경필 지사가 '광고행정타운'을 새롭게 복합신청사로 추진하면서 오늘의 '광고융합타운'이 가능해졌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였다. 경기도가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위기를 맞이하며 어려움이 커졌고, 도청 이전을 전제로 입주한 광고신도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법정공방에까지 이르자, 남경필 지사가 도청사 광고 이전을 약속하며 탄력을 받았고 도의 재정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일부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신청사 재정계획이 마련되면서 제 궤도에 들어섰다.



2015년 7월 남 지사는 도청사와 도의회만 있는 '단순 공공청사'가 아닌 '단지형 복합청사'로 개발 방향을 바꾸었고, 이때 기존 신청사의 규모를 줄이고, 도의회는 물론 다목적 공연장, 대형광장 등을 함께 건립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저지의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서 신청사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 지사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방향 구상을 위해 일문을 방문하면서 '자유롭고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구상을 밝혔고, 이를 통해 '외곽

외곽 도서관'과 '바글바글한 도청사'로의 경기융합타운의 방향이 명확해졌다.

2018년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며, 청사 이전과 관련된 전체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신청사 융합타운에 입주 예정이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산하기관의 도내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향후 경기융합타운의 추진 방향의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적어도 경기도 신청사와 도의회의 이전계획은 큰 이변이 없는 한 1995년 신축기획부터 2022년까지 27년의 준비를 거쳐 올 7월 입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청사의 건축설계

2016년 저지의 마스터플랜 안을 기본으로 원래 공간건축의 현상설계 안을 다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공간건축, 건설본부,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수십 차례의 주간 MA 회의가 개최되었고,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모든 구성원의 형태에 대한 바람을 담은 최대공약수를 만든다는 생각과 실용적이고 수평적인 시대상을 반영한 수평성 강조의 원칙 등 경기융합타운의 형태와 입면 디자인에 대한 기본 원칙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의사당 동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을 만든다는 열린 청사에 관한 생각도 정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머론(Herzog & de Meuron)과 네덜란드 건축가 휴 마스칸트(Hugh Maaskant)의 건축작업 등을 참조하며 오늘의 형태가 최종 완성되었다. 이후 100인 경기융합타운 시민위원회와의 보리밭 간담회 등 시민 의견수렴 과정과 수원시장 보고 등을 거쳐 2017년 2월 수원 시로부터 분청 22층 도의회 12층으로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이즈음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경기도청·도의회·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돼, 행정 효율성,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청 900석 강당의 처리와 의회 건물과의 거리, VIP의 진·출입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도청사, 도의회, 교육청의 아크형 볼륨 형태의 기본을

유지해야 한다는 마스터플랜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며 이재정 교육감님의 전폭적 지원으로 현재 형태의 전체 윤곽이 결정되었다.

2017년 9월 착공된 경기도 신청사 기공식의 핵심 아젠다 3가지는 새로운 청사가 경기 새천년의 중심이 된다는 것과 자유와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인인화락(人人和樂)을 융합타운의 비전으로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신청사의 비전으로 설정하며 도민 중심의 공공청사 문화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기술 제안을 거쳐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0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청사는, 2019년 공무원 인력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3개 층 증축을 결정하여 총 25층으로 변경되어 2021년 11월 준공하였다. 이미 구조설계 등은 장래 증축을 대비해 미리 반영하여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별다른 무리 없이 이를 수용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2018년, 2019년을 거치며 도청사 내외부의 석재 선정, 청사 코어부 마감재 선정, 그리고 경기정원의 태양광 패널 설치와 같은 현안 이슈들이 시공사인 태영건설, 경기도시주택공사, 그리고 김리단과 함께 계속적으로 논의되었고 어느 정도 이를 반영한 마감이 이루어지며 현재의 모습을 찾았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며 석재 공사를 작업한 업체의 마감 능력이 탁월하였다고 생각되며 아마 이것이 도청사와 도의회의 수려한 외관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 하도급 및 지역상생 협약식 후 기념 촬영]

## 에필로그

경기도 신청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돌이켜 볼 때 좋았던 점은 공공청사 최초로 융·복합 타운을 형성하면서 공공청사를 가능한 한 개방하겠다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던 점이다. 그간 정부 청사나 여러 지자체 등이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보안' 등의 문제로 번번이 실패하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최대한 가능한 부분에서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또 하나는 공공청사 최초로 입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부 상업 시설과 상부 공공청사를 분리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청사 저층부가 행사가 있을 때 시민들에게 개방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물론 시범 운영과정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프로그램과 안전 등을 점검해야 하지만 열린 청사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대로 경기도청사 터에 있다 광고역사공원에 이식된 나무의 모습]

아쉬운 점은 25층으로 층축이 결정되면서 경기도와의 회의도 많이 줄었고 당시 조금 커지며 기능이 바뀐 최상층부의 형태가 덜 정리 된 아쉬움이 있다. 이는 원래 시민개방의 전망기능이 사라지면서, 당초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발코니로 전환한 것과도 맞물려 있다. 전망 엘리베이터를 없애려던 경기도의 계획을 발코니로 존속시키기는 했으나 최상층부가 다소 커지면서 전체형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최상층부의 형태감이 좀 더 강하게 두드러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애초에 계획되었던 공공 스타트업 기업이 만나는 거점 스마트 오피스 등이 공무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모두 사라진 점이다. 기회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새롭게 자리하기를 기대해 본다.

기억에 남는 점은 세종대로의 옛 의정부 경기도청사 터에 있던 오래된 나무에 대한 기억이다. 새로운 개발 계획에 따라 이 나무는 이식할 필요성이 생겼고 광고 신청사 이전을 계획하던 도 건설본부에서 이를 경기도 광고역사공원 내로 이전하여 옮겨 심었고, 이 나무는 다시 청사 이전이 마무리되면 경기융합타운 내로 옮겨 질 예정이다. 지난 역사를 기억하는 광화문 앞 청사 나무가 다시 새로운 광고 청사 시대를 목도하며 앞으로의 천년을 기억해 줄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경기융합타운 초기부터 묵묵히 열심히 작업했던 무수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사실은 이 융합타운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면서 애태우던 이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다. 모두가 가끔은 흔들리며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회의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작업을 하는 당신이 주인공이라 말하며 함께한 이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싶다.

## 디자인 철학과 전략

Phil Kim

Jerde Partnership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사회 의장(설계 당시 공동 대표이사)

저희 저드(Jerde)는 사람과 장소 사이의 상호 분리할 수 없는 현상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상호 결합을 형성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도시의 한 부분이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워지고, 변화하도록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경험 융합은 뭘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철나의 생각입니다. 격동의 현대 생활, 코로나, 물리적 세계와 기술이 우리와 우리의 세계를 초연결로 분열시키고 개혁합니다. 더 단순한 현실이 있습니다. 회사로서 40년 동안 저희의 노력은 인간과 환경의 결합이며 변화를 예상하고 포착하며 더 빠르고 더 격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는 일관성과 연결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관과 정부 관할의 절고 가족 중심적인 도민들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 저희는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제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유산과 역사에 대한 깊은 문화와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 나라에서 성장하고 훈련받은 생활 학습을 통합하는 것은 저에게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문화적으로 발전된 역동적인 미래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열망에 내재한 지식을 융합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적용할 기회였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에게는 선제적인 출발이 있었습니다. 디큐브시티와 메세나폴리스에서의 작업을 통해 현대 한국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롯폰기힐스라는 도쿄의 또 다른 획기적인 프로젝트의 중심점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시작되어 2020년을 넘은 한국으로 향하는 궤도가 분명히 저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진화를 위해서는 저희는 움직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열망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듣고, 관찰하고, 추측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좋은 비즈니스를 유지해서 복합 커뮤니티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드를 만드는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정부 기관이 위치한 장소로써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시드니의 프로젝트와 비교하며 학습하였는데, 시드니 프로젝트는 Quay Quarter의 주요 변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였고, 사람들의 행동과 이해를 고려하여 12시간 이용하는 도시를 18시간 이용하는 도시로 전환하는 진화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그램 달랠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솔루션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팬데믹을 받아들이고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집단적 경험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훌륭하게 헌신적인 사람들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 시민의 역할을 고려했습니다. 개인과 통치하고 교육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는 점점 더 통합된 방식으로 함께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장소가 커뮤니티의 집단적 이익을 나타내며, 통신, 교통 및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서울

주위의 위성도시들을 엮어서 새로운 도시 센터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자체의 역사와 미래를 나타 내고 경기도의 관문으로 가장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갑니다.

전체 경험 중에서 열정적인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형제와 같은 친분을 형성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작은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었고, 새로운 도시를 위대하게 만드는 데 같이 헌신하는, 오래 지속되는 평생 친구를 만들 수 있었고, 지치기도 했었지만 회의 후 즐거운 식사 대화를 통해 우리 전체 팀 모두에게 경기도의 풍요로운 역사를 소개하고 심야와 이른 아침에도 자주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다짐했던 것과 달리 32가지 스타일의 수원갈비를 다 맛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시도 할 시간은 아직 있으며 열정적인 관심을 두고, 진화하는 장소를 지켜보며,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디자인 설명

Kenneth Ho

Jerde Partnership / 수석 디자인 책임자

### 배움의 정원(The Learning Gardens)

경기도 배움의 정원은 미래의 도민센터인 동시에 “명품 뉴타운”으로 알려진 광고 뉴타운에 있는 최초의 정부 복합 프로젝트로서, 우거진 녹지 위에 편리한 교육시설, 교통, 문화 등을 제공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다양한 상업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 가능한 도청 센터로서의 광고 지역 커뮤니티뿐 아니라 서울 지역 커뮤니티 또한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 대지 주변 환경(Site Context)

본 프로젝트는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새로 건설된 지하철, 공공버스 정류장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인하여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배움의 정원은 이 지역 하천의 유기적인 흐름과 주변 산등성이의 자연적인 경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또한, 유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커뮤니티가 놀이와 학습을 향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는 프로젝트의 골격을 형성하는 데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본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은 북측 주거지역, 미래의 컨벤션센터, 저수지를 연결하는 녹지 축에 맞춰서 조성됩니다.

경기도 배움의 정원은 이웃 주민들의 모임의 공간이 되어, 주민들은 다양한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 뉴타운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 프로그램 간의 관계(Programs Relationships)

경기도 배움의 정원은 도청 센터 내에서 머물고, 살고, 쇼핑하고, 먹고, 놀고, 일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주요 앵커 시설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것의 프로그램적인 다양성은 그 프로젝트를 단지 복합용도 프로젝트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장소이자 가족, 학생, 근로자, 장년층들이 함께 어울리고, 제공되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듭니다. 또한, 배움의 정원의 다양한 영역 간의 시너지는 일 년 내내 볼거리를 보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시설적 가치를 유도하여 미래 컨벤션센터와의 두드러진 연결성과 함께, 지역 경제와 국제적인 목적지로서 브랜드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 디자인 구역(Design Districts)

경기도 배움의 정원은 주거 공간의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과 어우러져 상호 빈틈없이 연결된 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 복합시설구역(Mixed-use districts) :

복합시설지구에는 상업, 엔터테인먼트 및 업무 용도가 포함되며 주 동선인 배움의 길을 통해 이웃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누릴 수 있는 지역의 시설로써 리테일이나 식음시설과 같은 시설을 제공합니다. 복합시설 구역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을 위해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 재방문할 목적을 만들어 줍니다.
- 풍부한 부대시설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을 창출합니다.
- 회의, 학회 또는 공식 모임 등의 개최를 장려합니다.
- 축하 행사 및 특별 이벤트 등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 레크리에이션과 웰빙 등 보다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합니다.

### 학교구역(School district)

복합시설 구역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거주민들을 통합하는 데 유리하며, 이웃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 도청 구역(Civic Districts)

도청 센터는 본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정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민들과 연결해줍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스포츠센터, 썬큰 광장, 야외 공연장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시설들은 정부청사와 커뮤니티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합니다. 더욱이, 복합기능의 의사당은 정부 기관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벤트, 콘서트 및 결혼식과 같은 인간의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로 맞물린 형태의 도청사와 의회 빌딩에 대한 디자인적 영감은 세종대왕 언해본 서문의 애민정신을 담은 '사람'의 시위(人)에서 기인합니다. 개발의 방향은 도민들을 모아서 커뮤니티가 결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아트 랜턴 유산 공원(Art Lantern Heritage Village Park)

대지(진북 기준)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임시 구조물과 문화유산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도자기 빌리지, 아트랜턴 워크, 계절별 정원과 쌀을 재배하는 테라스와 같은 액티비티 등은 모든 연령대가 즐길 뿐 아니라,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에 기여하고 오락적 요소를 제공해 줍니다. 다른 활동을 통해 문화적 지식 공유의 개념은 학습 과정과 지역민의 호기심과 방문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어린이 놀이 및 학습공원(Children Play and Learn Park)

대지(진북 기준)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아이들의 놀이 및 배움의 공원이 한국 문화와 현대적인 기술 개발의 결합을 추구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도서관과 놀이터가 근거리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아이들의 놀이뿐만 아니라 배움의 공간으로써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 프로젝트는 먼저 배움을 위한 핵심 "놀이터"를 제공하면서 도청의 구성 요소와 이웃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져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기도 배움의 정원은 교육기관, 미디어센터, 업무시설을 도청과 연중 내내 지역사회를 위한 매력적인 활동과 연결하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 프로젝트의 진행, 협업과 조율

### 안상현

Jerde Partnership / 한국사무소 대표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국가에 있는 지사들 사이에 강도 높은 협업을 진행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중단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와 개발 전략은 홍콩 사무실에서, 디자인은 로스앤젤레스 사무실에서 발전시켰고 협력 컨설턴트들과 발주처와의 현지 조율은 서울 사무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시간대에 있는 여러 사무실 간의 협업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사무실에 있는 팀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종종 늦은 시각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시차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각이든지 저의 사무실 중 적어도 한 곳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아이디어에도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사무실의 누군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무실은 하루 전체를 놓치며 다음 주기가 돌아올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업무 사이클이 손실 없이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 서울에 모여 함께 진행자료를 검토하기도 하였는데, Phil, Ken과 함께 코엑스의 호텔 카페 라운지에서 발표 자료에 대해 몇 시간씩 토론하다 발생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자리에 몇 시간씩 오래 머물러 있자, 라운지의 웨이트리스가 우리를 쫓아내려고 빈 유리잔에 물을 반복해서 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어쩌면, 내일 아침 신문에 5성급 호텔 로비에서 남자 세 명이 익사하다”라고 기사가 나올지도 모른 다며 서로 농담을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국내 발주처 및 컨설턴트들과 해외 디자인팀, 매니지먼트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주 서울에서 국내 건축가들과 다른 컨설턴트들,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경기도건설본부의 담당자분들과 집중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경기도청의 본 장소를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유용한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잠재적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정부 공무원을 위한 효율적인 근무 환경, 경기도민을 위한 쾌적한 나들이 장소,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성공적인 플랫폼 모두를 이 새로운 센터에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간 프로젝트 회의는 종종 열띤 토론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룹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도 했지만, 그 모든 의견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중요한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각기 다른 그룹과 회사들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끝이 날 때는 견고한 하나의 팀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었고, 전장을 함께 거처온 듯한 공동된 마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많은 멤버들이 가까워져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가 노력하여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을 위한 이 공간이 경기도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 광고 신도시의 리더, 경기도 신청사

### 김광식

건축사사무소 OAK 대표(前 공간건축 소장 / 경기도신청사 기본설계)

### 프로로그

경기도 신청사 설계를 위해 처음 경기도청에 방문했을 때가 기억난다.

팔달산을 배경으로 가지런히 자리 잡은 건물과 단지 중심에 펼쳐진 잔디광장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관공서의 모범적인 모습이었다. 1967년 광화문에서 이전한 팔달 청사는 이후 경기도의 발전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차례의 증축을 거치며 반세기 이상 경기도민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이 팔달 청사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역할은 광고신도시에 새롭게 완성된 신청사가 넘겨받는다.

지난 5월의 마지막 날, 모든 이전을 마친 경기도청이 광고의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광고신도시의 중심에 어깨동무하듯 나란히 자리 잡은 도본청과 도의회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수십 번을 고쳐가며 그린 설계도면과 완성된 건물이 중첩되어 눈앞에 아른 거린다. 신청사의 설계를 위해 수년간 도청을 드나들며 디자인을 구상하던 나에게는 무척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보람과 자부심이 건축설계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효원로 청사(1969)]



[경기도 광고 신청사(2022)]

[경기도 신청사 디자인 변천과정]



[Flowing Market]

광고신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도시의 중심인 상업지역 내에 공공청사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상업시설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흐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신청사 부지 양쪽에 있는 상업시설을 연결하는 보행자의 축(軸)을 만들어 보행자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수많은 고민 끝에 신청사의 저층부를 상업시설처럼 보행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Flowing Market이란 개념을 만들어냈다. 공공청사의 기능과 마켓의 기능이 공존하며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청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수년간 다양한 계획을 만들었고, Master Plan을 새로 수립하여 대지의 형태도 달라지는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보행환경의 개념은 계속 유지하면서 설계를 진행하였다.

저층부를 보행자 공간으로 개방하자 열린 청사가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신청사의 저층부에 보행자 공간과 연계하여 주민 센터, 열린 도서관, 전시관 등 주민편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도청 고유의 행정업무, 대민업무, 의회 업무 외 문화지원 기능을 확장하였다. 또한 회의실과 민원실도 저층에 집중 배치하였다. 기존의 청사 회의실이 부서별로 배치되어 민원인이 직원을 찾아가는 형식이었던, 열린 청사를 위해 저층부에 회의실을 집중하여 배치함으로써 직원들이 민원인을 찾아가는 동선을 계획하였고, 회의실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비어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청사가 공무원 중심의 시설에서 주민 중심의 시설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설정을 위해 경기도는 주민과의 대화, 새로운 시설을 위한 자문 등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이는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어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에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을 만들자는 노력의 일환이다.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맞춰 공공청사를 개선하고, 관공서의 권위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는 역할, 이것이 곧 열린 청사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신청사 시설 중 열린 청사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은 단연 의회 본회의장이다. 본회의장은 정기적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곳으로 경기도 의정활동의 중심 공간이다. 중요한 예산을 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곳을 밝고 부드러운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형태를 원형으로 하고, 상부에 투명한 유리 돔을 얹었다. 이것은 원형의 형태를 활용하여 자리가 가지는 위계를 없애고 서로 마주 보며 회의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유도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본회의장의 벽과 상부 돔의 재료를 유리로 하여 외부에서 본회의장 내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본회의장의 아이디어를 결정하기까지는 독일 베를린 연방의회 건물 라이히슈타그(Reichstag)의 영감이 컸다. 설계 당시 많은 관계자와 본회의장을 고민할 때, 회의에 참여한 대부분 사람이 자기 생각을 설명하면서 이 건물을 사례로 언급할 정도였다. 건축설계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좋은 점은 건축 답사를 명분으로 많은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떠난 여행 중에 몇몇 건축물은 직접 마주하고 나서 커다란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 라이히슈타그가 그랬다. 그래서 많

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공간에 대해 또렷한 기억을 하고 있다. 그 기억은 본회의장을 완성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언젠가 이런 건축물을 만들자고 다짐했던 젊은 건축가의 꿈은 경기도 신청사를 통해 실현 되었다.

### 소통과 융합

열린 청사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한 것처럼, 새로운 업무공간을 위해서는 근무자와 소통해야 한다. 더구나 동별로 분리된 회원로 청사의 근무환경을 신청사 한 건물 안에 통합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과정이었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사용 면적을 넓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청사에 관한 여러 기준으로 인해 정해진 면적보다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어려웠고, 조직의 소통을 위해서도 크기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결국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고, 이는 곧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스마트오피스라는 혁신 공간이 만들어진 계기이다. 스마트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크기는 같더라도 공간 활용의 개념을 바꿔 현대적인 업무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칸막이를 없애고 개방형 공간(Open Plan)으로 만들어 공간에 유연성을 부여하였고,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협업 공간(Co-work Space)을 만들어 소통을 유도했다. 또한 근무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곳곳에 배치하여 재충전의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우연한 마주침과 활발한 교류를 발생시켜 활력있는 청사가 되도록 하였다.

신청사의 계획안이 완성될 무렵, 신청사 부지를 포함한 단지 전체에 대해 복합개발이 발표되었다. 경기도의 주요 행정기관을 같은 단지 안에 이전시켜 통합하는 계획으로, 원활한 소통과 행정의 일원화가 목적이었다. 경기도는 복합개발을 위한 소통을 주도했고 각 기관이 그 의지를 수용하면서 이전을 약속했으며, 이때부터 경기융합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융합타운을 만들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거대한 하나의 주차장으로 통합하고, 조경이나 신재생에너지를 공유하는 등 일반적인 설계와는 다른 까다로운 작업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융합타운이 가지는 상징성과 선도적 의미에 공감하여 묵묵히 설계를 마무리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소통과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축가로서 시각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최근 업무를 시작한 도본청과 의회의 뒤를 이어 경기교육청,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모든 기관이 입주하여 경기융합타운이 완성되면 소통과 융합을 핵심 가치로 한 경기도의 대표 공간이 될 것이다.

### 경기도 신청사의 의미

경기도 신청사는 주민을 향해 열린 청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양한 개방 공간은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신청사를 대중교통과 직접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관, 정원, 광장, 보행물과 연계시켜 거대한 복합 시설로 개발하는 시도는 지금까지의 공공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통과 융합을 바탕으로 행정기관 간 다양한 참여와 창의적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이런 공간적 변화는 정치와 행정에 긍정적으로 이어져 화합의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경기도 신청사는 미래의 공공청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였고,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제로에너지 인증을 취득하여 친환경 청사를 선도하였으며 이후에 건립되는 공공청사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한 도시의 상징물을 만드는 작업은 건축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다. 나에게도 경기도 신청사가 그런 프로젝트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수년간의 설계 기간 수많은 변경안을 만드는 작업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신청사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것은 건축설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경기도 관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신청사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훌륭한 결과물이 되어 그 에너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 신청사가 도민들의 희망을 품고 광고신도시에서 새 시대의 리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 경기도건설본부 경기융합타운추진단

### 건설본부장

김준태, 김철중, 송해중, 안용봉, 윤성진, 이계삼, 한대희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박종근, 이종구, 정종국, 홍중화

### 신청사건설팀장

김남근, 김종준, 성세진

### 실무진

권미영, 김규원, 김영섭, 김영주, 김용상, 김유호, 김정욱, 김지애, 백승우, 서영석, 서윤범, 송태규, 송희광, 신명진, 엄진호, 오정호, 장승일, 장현석, 전갑성, 전성우, 조승희, 조종만, 최민호, 한병구, 황욱재

## 설계

### MA(Master Architect)

경기대학교 천의영 교수

### 기본설계(공간건축)

이상림 대표, 김광식 소장, 이해욱 교수

## 경기주택도시공사(총괄사업관리)

| 단 장 고필용, 송태규, 정일현, 최성진

| 부 장 박영환

| 건축담당 고우성, 구자훈, 김주현, 김혜진, 박태술, 배중훈, 이세영, 이수아, 조제훈, 최윤봉, 홍상영

| 토목담당 김병주

| 전기담당 오세훈, 이상원, 정관음, 조항번

| 기계담당 신천일, 최재용

| 안전담당 이민환

## 건설사업관리단

### 상주 기술자

| 단 장 최영길

| 건축분야 고광복, 권방성, 길호경, 김승태, 김영철, 김윤희, 김의삼, 김현주, 남동희, 남중현, 박선규, 윤병규, 안경섭, 장병식, 정영휴, 정인수, 최진욱

| 기계분야 김기완, 신청호

| 토목분야 김덕성, 김순택, 박재성, 최중화

| 전기분야 남기문, 송영훈, 전정열, 정연만, 황윤호

| 통신분야 김동준, 송충기, 이성식

| 소방분야 박성배, 이종국, 이형완

| 조경분야 문경재, 변성현

### 비상주 기술자

| 건축분야 김태완

| 기계분야 권호준, 김영석, 이성호

| 토목분야 강효중, 고은태

| 전기분야 김상한, 명갑태

| 통신분야 이희관

| 조경분야 김혜선

## 시공사(태영건설컨소시엄)

### ■ 태영건설

- | 소 장 안치열, 이찬호
- | 공무담당 강운봉, 김우람, 박권수, 박민희, 박찬주, 배기철, 우한솔
- | BIM담당 김지은
- | 공사담당 강현중, 김대석, 김상덕, 김원수, 김정호, 김지형, 김현정, 신은규, 이정희, 이창배
- | 설계담당 유충현
- | 건축담당 홍병춘
- | 토목담당 정웅
- | 조경담당 전영, 함형우
- | 설비담당 강동한, 강승재, 김용기
- | 전기담당 김상현, 박상권
- | 보건담당 김효빈, 박상아, 이경원, 이아영, 정다운
- | 관리담당 박진만, 안주희, 조한호
- | 안전담당 고재필, 김경모, 김성훈, 김영식, 박동준
- | 기전담당 김병목

### ■ 이에스아이

- | 전기담당 신동현, 정슬찬, 최용민
- | 소방담당 남익진
- | 안전담당 이상운

### ■ 국제산업

- | CAD담당 강영총, 유민
- | 보건담당 송영지

### ■ 소사벌종합건설

- | 환경담당 손한솔, 정학기

### ■ 씨앤씨종합건설

- | 품질담당 김용기, 류제복

### ■ 호반건설

- | 통신담당 정준모

### ■ 한동건설

- | 품질담당 김동욱



##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Vol.1 Story book

### 비매품

---

발 행 경기도  
발 행 일 2023년 01월  
제작지원 경기도건설본부  
편집·인쇄 월드피엔씨 02)501-5820

---

이 책은 저작권법 98조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